

전략연구 2012-10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지역문화정책성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이인배 · 권영현 · 김경태 · 권미정

발간사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지역의 문화는 세계화와 더불어 문화의 특성을 살린 문화정체성이 중요한 시대로 도래되고 있습니다. 문화는 지역의 위상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중의 하나이며, 정체성은 지역활성화론에서 내발적 발전을 위해 내적인 동력을 확보하여 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역문화의 정책의 관심 또한 사회의 창의성·통합성·다양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의 주요한 가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문화 환경은 문화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로서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제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문화향유 수준은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충청남도 또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지역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에 진행되었으나 문화정체성과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정책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주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 문화정체성을 고찰하여 지역문화의 중요한 본질을 살펴보고,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서비스 향유 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적 과제와 전략을 도출하여 충남 문화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향후 연구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이인배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권영현, 김경태, 권미정 등의 내부연구진과 공주대학교 유기준 교수, 충남대학교 정선기 교수 등의 외부연구진, 그 동안에 많은 조언과 참여를 아끼지 않아주신 자문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연구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연구심의위원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

연구요약

1. 필요성과 목적

문화는 지역의 위상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이며, 상상력과 감수성에 기초한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창조력의 기반이 된다. 최근 들어 문화정책의 관심 또한 사회의 창의성·통합성·다양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의 주요한 가치로 전환되고 있다.

충청남도과 각 시·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문화환경 조성의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기반 시설 수에 있어서는 전 중위권이나 시설활용도는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이는 시설운영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부족, 지역예술단체와의 연계 미흡, 문화예술 향유자의 시설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지속적인 문화공간 확충과 기존 조성된 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충남은 도민들을 위한 문화인프라로서 문화기반시설은 전국의 6위로 중위권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문화향유지수 3개 부분이 하위권 14-15위권으로서 도민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실태를 분석해보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문화정체성은 문화시설의 운영과 도민 문화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문화정체성 및 문화기반시설 관련 연구가 미흡하여 정책적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충남 지역문화의 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정체성에 기반을 둔 문화기반시설의 제공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화서비스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여 충남의 문화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이와 연계하는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 실태와 지역주민들의 문화서비스 향유실태를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적인 과제로 삼아 전략적인 문화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지역문화서비스 제고를 위해 제시된 전략들을 정책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충남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활성화와 연계한 충남의 문화발전계획 수립 등 충남 문화정책 세부사업을 마련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충남 문화정체성을 고찰하여 지역문화의 중요한 본질을 살펴보고,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서비스 향유 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적 과제와 전략을 도출하여 충남 문화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향후 연구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의 문화정체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정리 및 고찰로 지역문화의 연구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문화정체성 연계 문화기반시설의 운영현황과 향유실태 분석으로 과제를 도출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제시한다.

셋째,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 방안과 충남 중·장기 문화발전계획 수립 및 세부추진 시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한다.

2. 주요 연구내용

1)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실태 분석과 과제

① 충남 문화기반시설 공급실태 분석

충남내에서 문화소비는 57.0%이고, 서울·경기에 인접하고 있어 수도권지역에 대한 문화소비도 34.9%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역에서 충남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문화활동 소비도 78.7%로서 외부지역보다는 충남의 자체적인 문화활동 소비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들 관계를 비교분석해 본다면 충남의 내부적 문화활동 소비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으면서 외부의 문화활동 소비를 충남으로 유인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건립과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전국문화기반시설로 충남은 전체 시설수가 10개 광역자치도 중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기반시설은 유형에 따라 지역별로 확충하여 지역별 문화시설의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기반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무엇보다 미술관 등과 같은 전시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기반시설들은 지역주민들의 이용수요에 따라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반시설의 운영차원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차원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충남도는 새로운 서해안대가 도래하고, 세종시의 건립과 도청사의 내포이전을 계기로 백제시대 동북아 교류의 중심지였던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포용과 관용의 문화적 가치에 기초하여 지향적 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② 충남 문화향유 지역주민 의식조사 분석의 시사점

충남 문화향유 지역주민 의식조사 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기반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 인식 변화 유도이다. 지역문화기반시설 서비스 기능 확대를 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과제로는 운영인력의 전문화와 재정확대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문화기반시설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문화적 욕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삶 혹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문화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문화기반시설이 해야 하겠다.

충남도만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의식은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도시지역은 문화기반시설 이용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농촌지역은 비교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주민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였다. 특히, 문화정체성에 대한 관심부족이 30.0% 정도를 차지하여 관심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지역별 문화정체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이다.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시·군·민회관, 공공도서관, 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각 시·군·지역에서 기존에 건립된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정체성을 소재로 하는 공연과 전시회, 축제와 이벤트, 음악회 등을 활성화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천안-아산의 도시지역은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반면, 금산-청양의 농촌지역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규모가 크고 문화시설이 풍부한 지역일수록 지역주민의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기반시설의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의식 고취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 대한 지역문화교육과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활성화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문화기반시설은 있으나 지역문화정체성과 연

제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면에서 도시지역 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지역특성과 문화정체성을 고려한 문화시설의 확충과 운영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문화기반시설의 지역간 차별화와 입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있어서도 지역간 차별화와 입지에 적합한 문화시설 및 공간의 확충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수요에 적합하고,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보유 자원들과 연계된 문화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및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는 문화정체성 관련 시설의 정비와 확충과 다양한 문화 정체성 프로그램 제공, 시민문화정체성 교육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와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지역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정체성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한다.

넷째, 문화기반시설 이용서비스와 관련 시설간 연계성 강화이다.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문화정체성 관련 서비스 항목 만족도에서 직원친절과 이용가능시간 다양, 편의시설 쾌적성 등에서 높은 만족도이고 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 획득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역 정체성과 연계된 예술행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행사에 대한 문화행사정보 제공과 관심 있는 프로그램의 발굴육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관람·감상형 행사보다는 체험 참여형의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거주지 근처에 생활권내의 문화수요에 적합한 공연과 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연장(문예회관 등) 등의 생활권 문화기반시설 조성 and 운영활성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주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개발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정체성 관련 시설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하겠다.

다섯째,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인력 전문화와 재정책대 및 홍보 강화이다.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위해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전문성의 강화와 예산확충이 필요하고, 문화정체성

관련 만족도가 낮게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문화기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화에 대해 높게 나타나고 금산-청양 지역의 경우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확대가 높게 나타나, 지역의 도시와 농촌에서 문화시설 규모 및 시설 여건에 따라 정책방향을 달리 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용 시간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과 문화정체성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확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강화와 주민들의 지역문화 교육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였다.

③ 문화시설 관련 담당자 조사분석의 시사점

문화시설 관련 담당자 조사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문화기반시설 운영활성화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문화기반시설 운영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 활용을 위한 해결과제로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서비스의 문화적 욕구 다양성 확보 방안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삶 혹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둘째, 문화적 전통을 계승할 문화서비스 제공 강화와 관련 담당자의 관심 제고이다. 충남만의 문화정체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보통정도(3.1점)’ 이었고,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은 ‘보통이하(2.9점)’ 로서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기반시설 관련 담당자들은 지역의 문화적 전통이 현대까지 전승 또는 창조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프로그램 확충이다.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거주지 근처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을 확충하되 문화화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해야 한다. 문화기반시설 이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편리성,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이라고 응답하여 시설 조성 및 운영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별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관리운영의 강화이다. 문화시설 중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에 있어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문화예술회관으로서 아직 건립되지 않은 시군은 확충이 필요하고, 이미 건립된 시군은 이들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정체성과 연계하는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만족도는 대부분 높은 점수이나 편의시설의 쾌적성만 보통이하의 점수로 나타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고유성이 살아있는 문화기반시설과 연계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육성해야 한다. 지역문화정체성과 관련한 필요 문화기반시설은 공연장(문예회관 등)이며, 문화행사 참여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관심 있는(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부족을 꼽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정체성 관련 지역 고유성이 살아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저가형의 체험·참여형으로 육성하도록 해야 하겠다.

여섯째, 일상생활권 연계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이다.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추진방향은 민간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였다. 또한 문화서비스 행정의 역점 추진 정책으로는 문화정체성 관련시설의 정비와 확충과 다양한 문화정체성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므로 독창적인 지역문화 발굴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과 관련 시설 및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이다.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향유를 위해 문화시설 운영면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문화예술 단체의 운영 활성화와 프로그램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과 문화예술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였다.

2)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충남지역에는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정체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문화향유기회 확대, 지역문화 특성을 고려한 문화시설과 운영프로그램 활성화, 문화정체성과 연계된 문화시설 관리운영체계 구축, 지역입지별 차별화된 문화시설 확충과 운영프로그램 제공, 문화시설 운영 자립기반 구축과 공공지원 정책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충남의 문화비전으로는 ‘고유한 지역문화로 행복한 충남도민’으로 제시하고, 충남의 문화정체성 인식제고, 문화기반의 확충과 운영개선, 전통문화의 향유기회 강화 등 세 가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은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주민 문화정체성 인식제고를 위한 전통행사와 교육프로그램 강화,
- 둘째,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육성과 운영 활성화,
- 셋째, 문화기반시설의 편중성 극복과 다목적 이용으로 문화향유기회 촉진,
- 넷째,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인력양성 강화,
- 다섯째, 충남 지역특성의 문화시설별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홍보 촉진 등이다.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의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정체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행사와 프로그램 강화

문화정체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행사와 프로그램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 대상 ‘지역문화아카데미’ 교육 사업 활성화이다. 충남과 각 시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전통문화를 이해하여 문화정체성을 제고하는데 지역문화아카데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실시된 충청남도의 행복문화아카데미를 각 시군별 또는 인접한 시군별 협력사업으로 하여, 지역대학 또는 문화원, 문화예술단체 등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둘째, 기존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한 지역 정체성 연계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이다. 충남의 시군 지역별로는 그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자원, 문화예술 등과 같은 특성 있는 자원들이 분포한다. 따라서 문예회관 등의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을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내용으로 운영하여 단순한 여가나 취미활동의 수준을 벗어나 지역의 전통문화와 연계되어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② 지역 특성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활성화

지역 특성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성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문화기반시설로 육성하고,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 충남의 시군 지역별로는 그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자원과 인물, 역사성 등의 역사문화자원

을 지역문화기반시설로 육성한다. 특히, 박물관 건립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 찾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으로 공주에서는 효박물관, 예산의 의형제 박물관, 태안의 해양문화재 연구소, 보령의 문방사우박물관 등의 건립을 구상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역사문화자원은 문화기반시설로 건립할뿐만 아니라 전시, 공연, 이벤트 및 축제, 영화, 콘텐츠 등의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여 개발하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관광객들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군의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컨설팅 지원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충남의 시·군 지역별 문화기반시설로는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지역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활용과 시설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규로 건립되는 문화기반시설의 경우는 건립과정에서부터 운영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전문업체와 컨설팅 협약에 의해 신규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셋째, 문화 전문인력 교육확대 및 네트워크 구성과 주민참여형 문화체험교육을 개발한다. 충남의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더불어 문화 전문인력의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 및 예술활동 종사자와 교육자, 문화행정 집행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시설 운영 및 교육담당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험 및 정보를 교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 공유토록 한다. 그리고 충남도내 공무원 및 문화 관련 운영자들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③ 문화기반시설의 차별화와 다목적 이용을 위한 기능의 강화

문화기반시설의 차별화와 다목적 이용을 위한 기능의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기반시설 유형과 지역별로 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의 확충과 운영 강화이다.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은 유형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이용패턴이 다르고 지역문화로서 가지는 기능도 다르므로, 문화기반시설 유형별로 차별성을 가지고 다목적 이용을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과 연계하여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거나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화기반시설의 차별화와 다목적 이용을 위한 기능의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다.

둘째, 내포신도시에 충남문화 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의 집중 조성이다. 충남에서는 현재 지

역출신 예술인 기념관으로 고암 이응노 기념관, 이문구 문학관, 박동진 판소리 유물전시관, 만해체험관, 홍대용 생가 전문과학관 등을 건립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충남 출신 예술인공간 기념관을 도청신도시내에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 전문미술관 건립을 구상하여 추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신도청도시의 문화지구내 건립 될 각각의 문화기반시설들은 시설 및 공간뿐만 아니라 건축개념, 운영프로그램까지 충남의 전통문화와 연계한 문화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지구와 문화거점 지역 등 문화환경 강화이다. 시·도지사는 자치조례를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역사문화자원을 관리·보호하고 문화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내 문화지구를 지정 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그 문화지구내에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영업시설의 종류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경우도 새롭게 건설 중인 도청신도시, 공주부여·홍성 등과 같은 역사문화도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지구를 통해 역사, 문화자원을 관리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을 조성해야 하겠다.

④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인력양성 강화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인력양성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문화 선도기관의 설립과 문화정책 지원체계 구축이다. 2012년 9월 현재 이 사업은 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충남문화재단은 주요기능과 업무영역에 있어서 기존의 충남도와 문화기관의 업무를 수용하면서 충남의 고유한 전통과 역사에 기반을 둔 문화정체성을 정립하는 충청학연구와 DB의 구축, 이러한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된 문화시설들의 확충과 운영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방문객까지 모든 사람들이 충남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문화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개선과 자립운영체계 구축이다.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

화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개선과 자립적인 운영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건립될 문예회관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군의 문예회관들도 민간 기업과 지역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리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있어서도 각 시·군의 전통 및 향토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정체성의 정립을 위한 특성화된 사업을 육성하여 다른 문화단체와는 차별화된 운영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셋째,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과 관련 시설 및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이다.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전문인력 확충은 서설구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 공립시설의 경우에는 정부의 총액 인건비제도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문화시설 전문인력은 총액 인건비제도의 예외규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활성화와 프로그램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과 문화예술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앞의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기반시설과 이용실태는 격차가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충남의 문화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문화기반시설의 구축과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육성 등은 상호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예방하고, 지역별로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충남 문화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⑤ 충남 지역특성의 문화시설별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홍보촉진

충남 지역특성의 문화시설별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홍보촉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 전통문화아카이브 설립 운영과 안내 및 정보시스템 구축이다. 최근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에 대한 아카이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전문화재단에서 문화아카이브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문화예술 아카이브를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현대 문화예술과 관련한 문화 아카이브이다.

따라서 충남에서도 충남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지역의 전통과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DB화하고,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전통문화 아카이브 센터를 설치하여 충남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충남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연고지 활동 기반 강화이다.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지원을 통한 창의력 시장을 위하여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도민예술활동 참여 활성화, 도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연고지 활동의 기반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역의 예술가와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 예술의 활동을 위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지역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활동이므로 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충남의 전통문화 대표 축제와 지역별 문화정체성 고유 문화행사 개최이다. 충남의 문화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문화 축제를 육성해야 한다. 현재는 시·군 지역별로 축제를 지역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위하여 전통문화 축제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의 고유한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축제가 개최되어야 한다.

3. 결론 및 향후 과제

충남 문화정체성 연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으로는 문화정체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행사와 프로그램 강화, 지역 특성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활성화, 문화기반시설의 차별화와 다목적 이용을 위한 기능의 강화,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인력양성 강화, 충남 지역특성의 문화시설별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홍보촉진 등의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책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생긴 설문조사의 공간범위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연구와 활성화 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별 실행계획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6
3. 연구과정	9
제2장 문화정체성과 문화기반시설 관련 이론고찰	11
1. 문화정체성과 지역 활성화	11
1) 정체성의 개념	11
2) 문화정체성의 개념	12
3) 문화정체성의 구성요인	14
4) 지역활성화에 있어 정체성의 역할과 디지털시대의 문화정체성	15
2. 충남의 문화정체성 관련 연구동향	18
1) 충남 문화정체성의 조작적 정의	18
2) 충남의 문화정체성 관련 연구	20
3) 충남의 문화정체성 관련 연구동향 검토의 시사점	42
3. 문화기반시설 관련 이론 고찰	45
1) 문화 환경의 개념과 분류	45
2) 문화 환경의 구성요인	48

3) 문화서비스의 개념과 역할	49
4) 문화기반시설의 개념과 유형	54
5) 문화기반시설과 향유실태 등의 관련 연구 동향	60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1
5. 문화정체성과 문화기반시설의 관계 정립	63

제3장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공급과 향유실태 분석 65

1. 분석의 틀	65
2. 충남 문화기반시설 공급실태 분석	66
1) 충남의 문화활동 소비구조	66
2) 문화기반시설의 현황분석	68
3)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실태분석	72
4) 시사점과 과제	82
3. 충남 지역주민 문화향유 의식조사 분석	85
1) 조사분석의 개요	85
2) 지역주민 의식조사 결과	88
3) 종합 분석 및 시사점	110
4. 문화시설 관련 담당자 조사 분석	118
1) 조사 분석의 개요	118
2) 담당자 의식조사 결과	120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142
5. 지역주민과 담당자 설문결과 비교분석 및 시사점	150
1)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서비스 향유 실태	150
2) 지역문화정책 관련 활성화 및 개선사항	157
6. 분석 과제의 도출	162

제4장 충남 문화정체성 연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165

1. 접근 틀과 정책추진과제	165
1) 접근 틀	165
2) 정책추진과제	167
2. 목표와 추진전략	169

1) 비전	169
2) 목표	169
3) 추진전략	169
3. 충남 문화정체성 연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172
1) 문화정체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행사와 프로그램 강화	172
2) 지역 특성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활성화	174
3) 문화기반시설의 차별화와 다목적 이용을 위한 기능의 강화	176
4)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인력양성 강화	178
5) 충남 지역특성의 문화시설별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홍보촉진	18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7
1. 요약 및 정책제언	187
1) 요약 및 종합정리	187
2) 정책제언	196
2. 향후 연구과제	201
참고문헌	202
부록 1.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지역문화서비스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204
부록 2.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지역문화서비스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담당자설문조사·	209

표 목 차

<표 1> 설문지 조사 설계 내용	7
<표 2> 연구협의회 개최	8
<표 3> 외부 전문가 원고 위탁	9
<표 4> 문화와 정체성의 유사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	13
<표 5> 정체성의 유형화	15
<표 6> 지역정체성의 영향요인	20
<표 7> 충남의 시·군별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27
<표 8> 충남의 도지정문화재 현황	28
<표 9> 충남 내포제 시조창의 전승계보	40
<표 10> 문화환경의 형태와 유형	46
<표 11> 시설규모에 따른 문화시설의 기능과 역할	55
<표 1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58
<표 13> 법적체계에 의한 문화시설 분류	59
<표 14> 선행연구와 차별성	62
<표 15> 충남지역에서의 문화활동 소비구조 분석	66
<표 16> 전국 각 지역의 문화활동 소비구조 분석	67
<표 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68
<표 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유형별 증가현황(2010.12.31.기준)	68
<표 19> 문화 시설별 전문 인력 비율(2010.12.31.기준)	69
<표 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시도별 현황(2010.12.31.기준)	70
<표 21> 인구 백만 명당 문화 시설 수(2010.12.31.기준)	71

<표 22>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현황(2010. 12. 31. 기준)	73
<표 23> 시·군별 도서관 현황(2010. 12. 31. 기준)	74
<표 24> 시·군별 박물관 현황(2010. 12. 31. 기준)	75
<표 25> 시·군별 미술관 현황(2010. 12. 31. 기준)	77
<표 26> 시·군별 문예회관 현황(2010. 12. 31. 기준)	78
<표 27> 시·군별 문예회관 주요 프로그램(2012년)	79
<표 28> 시·군별 문화원 현황(2010. 12. 31. 기준)	81
<표 29>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1)	86
<표 30>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2)	87
<표 31> 문화서비스 기능 확대 방안	88
<표 32> 문화기반시설 활용을 위한 과제	88
<표 33> 문화기반시설 활용을 위한 과제 지역별 차이분석	89
<표 34> 문화적 욕구 다양성 확보 방안	90
<표 35> 문화정책성과 관련 서비스 제공 유무	90
<표 36> 문화 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향유에 있어 문제 요소	91
<표 37> 문화정책성 관련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91
<표 38>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방식	92
<표 39> 거주지 주변 문화기반시설 이용시 고려 사항	92
<표 40> 문화정책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시 고려사항 지역별 차이분석	93
<표 41> 문화시설 문화서비스 제공 만족도	94
<표 42> 문화정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지역별 비교	95
<표 43> 지역 문화정책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	95
<표 44> 문화시설 중 문화정책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	96
<표 45> 문화정책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	97
<표 46> 문화정책성 관련 활성화해야 되는 문화서비스시설	98
<표 47> 문화행사시 참여가 어려운 이유	99
<표 48> 문화행사시 참여가 어려운 이유 교차분석	100
<표 49> 프로그램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101
<표 50> 문화시설 프로그램 선호 형태	101
<표 51> 지역별 프로그램 선호 형태	102
<표 52> 행사나 프로그램 지불의사 금액	103

<표 53> 문화정체성을 위한 행정 보완 사항	104
<표 54> 문화정책 만족도	105
<표 55> 문화서비스 행정 역점 추진 사항	106
<표 56> 문화기반시설 지역주민 활용도 제고 방안	107
<표 57>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	108
<표 58> 문화시설 운영면에서 개선 사항	109
<표 59> 문화기반시설 이용 관련 주민인식 조사 결과	110
<표 60> 문화정체성 관련 지역주민 문화서비스 향유정도 결과	111
<표 61>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기반시설 이용실태 결과	111
<표 62>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 만족도 결과	112
<표 63> 문화행사 참여가 어려운 이유	112
<표 64>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	113
<표 65> 문화정체성을 위한 행정 보완사항 지역 비교	113
<표 66> 문화기반시설 평가 지역비교	114
<표 67> 문화시설 역점시책 및 활용도 방안 지역비교	114
<표 68> 담당자 인구통계적 특성(1)	119
<표 69> 담당자 인구통계적 특성(2)	120
<표 70> 문화서비스 기능 확대 방안	121
<표 71> 문화기반시설 활용을 위한 과제	122
<표 72> 문화적 욕구 다양성 확보 방안	123
<표 73> 문화정체성 관련 의견	124
<표 74> 문화기반시설 향유에 있어 문제 요소	124
<표 75>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125
<표 76>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방식	126
<표 77> 거주지 주변 문화기반시설 이용 시 고려 사항	127
<표 78>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만족도	128
<표 79> 문화기반시설 중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	128
<표 80> 문화정체성 관련 서비스 항목 만족도	129
<표 81> 활성화해야 되는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130
<표 82> 문화행사 참여의 어려움	130
<표 83> 문화행사 참여 어려움의 지역별 비교분석	131

<표 84> 프로그램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132
<표 85> 프로그램 선호 형태	133
<표 86> 행사나 프로그램 지불의사 금액	134
<표 87> 문화정체성을 위한 행정 보완 사항	135
<표 88> 지역별 문화정책에 대한 만족도	136
<표 89>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 역점 추진 사항	136
<표 90>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주민 활용도 제고 방안	137
<표 91>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 평가	138
<표 92> 문화시설 운영의 개선 사항	139
<표 93>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평가	140
<표 94>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지역별 평가	141
<표 95>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제시 사항	141
<표 96> 지역문화서비스 기능 확대 방안 지역비교	142
<표 97> 문화정체성 관련 인식과 서비스 향유 지역 비교	143
<표 98> 문화기반시설 향유 실태 지역비교	143
<표 99> 문화기반시설 이용만족도 지역별 결과	144
<표 100>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실태 결과	145
<표 101> 지역문화정책 추진방향 결과	146
<표 102> 문화시설 관련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결과	147
<표 103>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과제	150
<표 104> 문화서비스 향유에 있어 문제 요소	151
<표 105> 문화서비스 시설 확충 방식	152
<표 106> 거주지 주변 문화기반시설 이용시 고려 사항	152
<표 107> 문화시설 문화기반시설 이용 만족도	153
<표 108>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 만족도	154
<표 109> 문화정책에 대한 만족도	158
<표 110> 문화시설 운영면 개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역별 비교분석	160
<표 111> 문화시설 운영면 개선 사항에 대한 담당자의 지역별 비교분석	161
<표 112> 시·군별 역사문화와 연계한 프로그램화 방안 예시	173
<표 113> 문화기반시설 유형과 지역별로 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의 확충과 운영 강화	176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5
[그림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개념도	5
[그림 3] 연구진행과정별 연구방법	9
[그림 4] 문화환경의 영역과 범위	47
[그림 5] 문화서비스의 구조	54
[그림 6] 문화정체성과 문화기반시설의 관계 정립 개념도	63
[그림 7] 분석의 틀	65
[그림 8] 광역자치도별 인구 백만 명당 시설 수	70
[그림 9]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분포 현황(2010. 12. 31. 기준)	72
[그림 10] 문화정체성 관련 활성화해야 되는 문화기반시설	155
[그림 11]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행사 참여 어려움	156
[그림 12] 문화정체성 관련 프로그램 선호 형태	156
[그림 13] 문화정체성을 문화서비스 행정 보완 사항	157
[그림 14]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행정 역점 추진 사항	159
[그림 15] 분석과제의 도출체계	163
[그림 16] 접근 틀	166
[그림 17] 목표와 추진전략	171
[그림 18] 문화지구 조성의 개념도	178
[그림 19] 충남문화재단 조직 구성도(안)	179
[그림 20] 충남문화재단 기본적 역할 정립	179
[그림 21] 충남문화재단 주요업무	180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지역의 문화정체성이 중요한 시대 도래

21세기 문화환경의 변화는 세계화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진행에서 우리 문화의 특성을 살리고 문화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일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역활성화론에서 내발적 발전론(Endogenous Development)은 정체성 논의의 확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며, 정체성이 내면적 가치나 태도와 연결된다면 지역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여 내적 동력을 확보하여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핵심 이론이다.(충북발전연구원, 2011)

문화는 지역의 위상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이며, 상상력과 감수성에 기초한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창조력의 기반이 된다. 최근 들어 문화정책의 관심 또한 사회의 창의성·통합성·다양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의 주요한 가치로 전환되고 있다(오재환·임호, 2010).

충청남도과 각 시·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문화환경 조성의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기반 시설 수에 있어서는 전국 중위권이나 시설활용도는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이는

시설운영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부족, 지역예술단체와의 연계 미흡, 문화예술 향유자의 시설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지속적인 문화공간 확충과 기 조성된 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¹⁾

(2) 지역 문화시설 기반은 비교적 양호하나 충남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향유 수준 미흡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증가에 따라 지역단위에서도 문화예산이 증가되고 복지차원에서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문화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은 문화관련 시설투자를 통해 하드웨어의 양적 발달은 가져왔으나 지역주민의 실제 이용률 및 문화향수의 질적 수준은 문화수준의 양적 증가 추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의 문화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로 문화기반시설은 전국 2,030개소에 충남 136개소(6.7%)로 전국의 6위를 차지하고, 공공도서관 50개소, 박물관 39개소, 미술관 5개소, 문예회관 15개소, 문화원 17개소, 문화의 집 10개소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들 문화기반시설들은 충남 서북부쪽에 집중되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충남 문화향유 실태로 문화지수 현황분석을 통해 충남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문화유산 지수가 전국평균 0.2703에 비해 0.3479로 전국 7위이고, 문학 예술지수는 전국 0.2268에 비해 0.1560으로 전국 15위, 대중문화지수는 전국 0.3223에 비해 0.2688로 전국 15위, 사회문화활동·여가활동지수는 전국 0.3345에 비해 0.3124인 전국 14위로 3개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권이다²⁾(충청남도, 2007).

이와 같이 살펴볼 때, 충남은 도민들을 위한 문화서비스의 인프라로서 문화기반시설은 전국의 6위로 중위권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문화향유지수는 3개 부분이 하위권 14-15위권으로서 도민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문화서비스 제고 전략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1) 충청남도(2007), '충청남도는 문화예술의 향기 그윽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에서 요약.

2) 전국 시·도 비교시 광역시와 광역도의 편차가 많은 이유는 도시와 농촌의 문화시설과 예술인의 분포에 따른 주민문화활동의 여건 차이에서 기인된 요인으로 사료됨.

(3)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정체성 관련 연구 미흡으로 정책적 활용 부족

충남의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그 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충남정신의 뿌리와 실체(충청남도, 1991), 충남 인물사 연구(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2), 충청지역의 사회의식과 지역정체성(이재열 외, 2004), 충남의 정체성 연구(소진광 외, 2010) 등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역정체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문화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문화서비스 및 향유와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문화향수실태 및 수요조사(전북발전연구원, 2007), 전라북도 문화기반시설 확충방안(전북발전연구원, 2007), 부산시 문화지표 연구(부산발전연구원, 2010), 울산지역 시민의 문화지수 측정과 문화향유 실태분석(울산발전연구원, 2009) 등 타 시도에서는 관련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충남은 아직까지 조사·연구된 것이 없어 정책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4)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지역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마련 필요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지역문화의 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정체성에 기반을 둔 문화기반시설의 제공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화서비스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여 충남의 문화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이와 연계하는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 실태와 지역주민들의 문화서비스 향유실태를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적인 과제로 삼아 전략적인 문화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지역문화서비스 제고를 위해 제시된 전략들을 정책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충남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활성화와 연계한 충남의 문화발전계획 수립 등 충남 문화정책 세부사업을 마련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충남 문화정체성을 고찰하여 지역문화의 중요한 본질을 살펴보고,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서

비스 향유 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적 과제와 전략을 도출하여 충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향후 연구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의 문화정체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정리 및 고찰로 지역문화의 연구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문화정체성 연계 문화기반시설의 운영현황과 향유실태 분석으로 과제를 도출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제시한다.

셋째,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 방안과 충남 중·장기 문화발전계획 수립 및 세부추진 시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문화정체성과 문화기반시설 관련 이론고찰, 충남 문화기반시설 향유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도출, 충남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전략과 정책추진방안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문화정체성과 문화기반시설 관련 이론 고찰에서는 문화정체성과 문화기반시설의 관계를 살펴보고,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운영과 행사 등과 관계되는 충남 문화정체성에 대한 연구동향을 통해 문화기반시설 이용실태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항목을 도출한다.

둘째, 충남 문화기반시설 현황과 이용실태분석과 정책과제 도출은 충남의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기반시설 공급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와 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6개 시군³⁾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충남의 각 시·군의 문화기반시설 공급현황의 운영실태자료를 분석하고, 이들을 운영하는 관련 담당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연구방향을 정립하는데 시사점과 과제를 얻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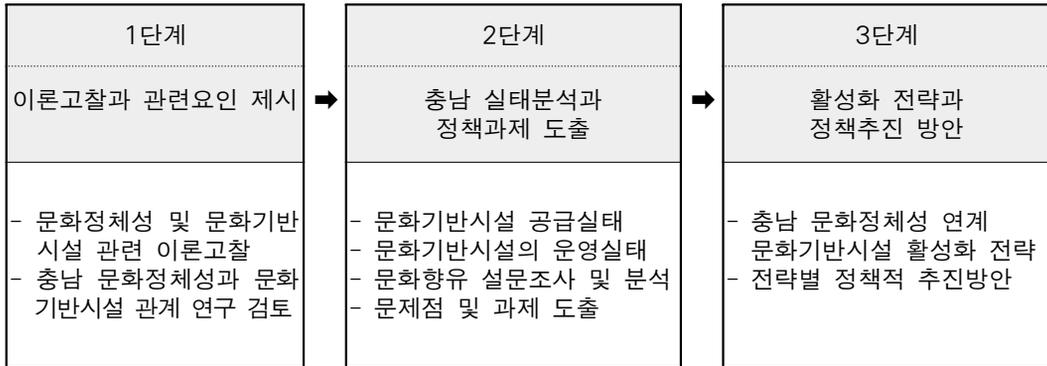
셋째, 충남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전략과 정책추진 방안은 앞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하는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전략별 정책적

3) 조사대상지로 선정된 충남의 6개 시·군은 천안시와 아산시, 공주시와 논산시, 청양군과 금산군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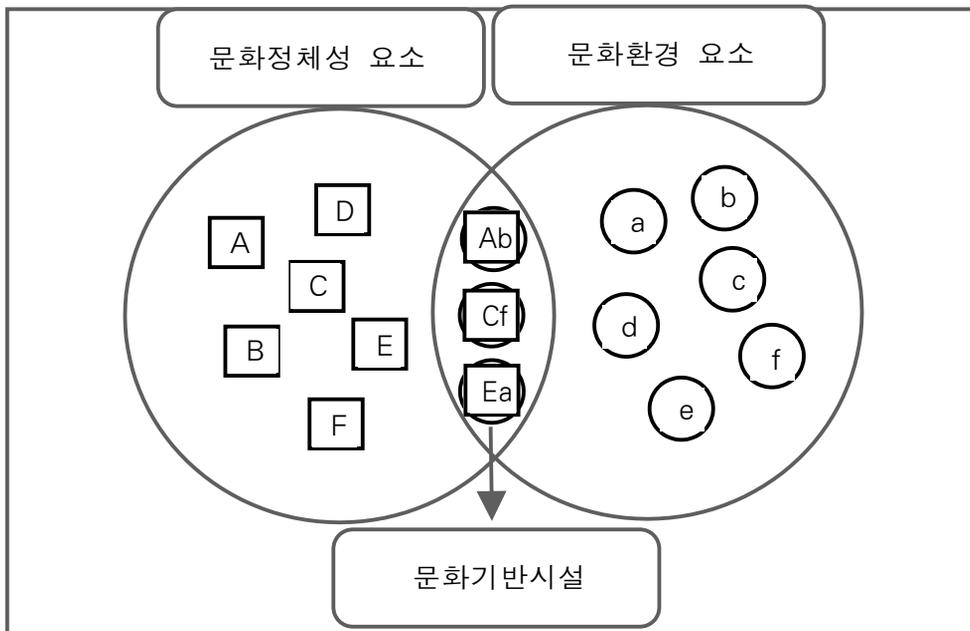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시·군에서 주민들의 문화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문화환경 구성요소 중 공공부문의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그림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개념도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①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② 조사항목 도출과 설문지 설계, ③ 지역주민 및 관련 담당자 조사, ④ 연구협의회, ⑤ 외부 전문가에 대한 원고위탁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1)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문화정체성 및 문화기반시설 관련 이론고찰로 상호 관계를 살펴본다. 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문화정체성 이론과 충남 정체성을 정리하고, 문화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이론 및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공급실태 분석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기반시설 이용행태와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논문과 정책보고서 등의 문헌조사와 연구진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 조사항목 및 실태조사 조사항목 도출과 설문지 설계

지역주민들의 문화기반시설 향유실태와 관련된 조사항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화기반시설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관련 담당자 조사를 구분하여 조사대상자에 맞도록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또한 행정자료 조사와 연구협의회를 통하여 최종적인 설문지의 조사 문항을 선정하였다.

(3) 지역주민 및 관련 담당자 조사

지역주민 설문조사는 지역민들의 문화기반시설 이용실태 즉, 향유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지역주민 설문조사는 2012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되었고, 문화기반시설 관련 공무원과 담당자는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훈련된 조사원들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지역주민의 조사의 내용은 ① 일반적인 지역 문화기반시설 이용 관련 문항(문화기반시설 이용확대 방안,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해결과제, 문화적 욕구의 다양성 확보방안), ② 지역 문화

정체성에 대한 문항(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시설제공과 이용 현황,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문화기반시설 이용의 문제점), ③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기반시설 관련 문항(문화기반시설의 정책추진 방향, 문화기반시설 확충방안,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시 고려사항, 문화기반시설 이용 만족도,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문화기반시설, 문화시설 중 문화정체성 관련 서비스 항목의 만족도,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행사 참여의 만족도,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 시 고려사항, 문화행사의 프로그램의 선호형태, 문화행사나 프로그램 이용 시 지불의사 금액), ④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문항(문화정체성을 위해 행정에서의 보완 사항, 지역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정책의 만족도,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정책 및 행정의 역점 시책 우선순위, 지역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도 제고 방안,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평가, 지역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개선방향) ⑤ 일반 인구통계학적 사항(성별, 직업, 학력, 거주지) 등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문화기반시설 관련 공무원과 담당자의 설문조사는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실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실태, 문화예술 관련 교육실태, 문화기반시설 관련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실태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설문지 조사 설계 내용

구 분	조사설계 내용
조사목적	•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지역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
조사대상	• 충남의 지역주민, 문화시설 관련 공무원 및 담당자
조사시군	• 도시 규모를 고려한 6개 시·군(천안-아산, 공주-논산, 청양-금산)
조사방법	• 교육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인터뷰 면접조사
주요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문화기반시설 이용 관련 문항 - 지역 문화정체성에 대한 문항 -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기반시설 제공 및 운영 관련 문항 - 지역 문화정책에 대한 문항 - 일반 인구통계학적 사항 • 문화시설 관련 공무원 및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실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실태, 문화예술 관련 교육 실태, 문화서비스 관련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실태 등
조사일정	• 조사표 초안 작성 및 면담·사전조사(5월) → 조사표 보완 및 본조사(6월) → 자료입력 및 통계분석(7월)

(4) 연구협의회

문화정체성과 문화기반시설의 관계를 고찰하고,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제공 및 운영과 문화기반시설 이용실태의 조사분석을 위한 연계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연구협의회를 실시하였다.

1차 연구협의회에서는 문화정체성 관련 연구범위와 내용, 문화정체성과 문화기반시설 관련 요인들의 도출, 이를 바탕으로 한 조사·분석 및 연구방향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진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차 연구협의회에서는 문화정체성 관련 연구 동향과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지역주민과 담당자 설문조사에 대한 연계 적용 방안과 충남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론고찰과 실태조사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표 2〉 연구협의회 개최

구 분	일자	외부참석자	주요내용
1차 연구협의회	2012년 2월20일	• 정선기 교수(충남대) • 유기준 교수(공주대)	• 문화정체성 관련 연구범위와 내용 • 문화정체성과 문화기반시설 관련 연구방향과 연구진행 방안 등
2차 연구협의회	2012년 7월27일	• 정선기 교수(충남대) • 유기준 교수(공주대)	• 문화정체성 연구동향, 운영실태, 설문조사 연계 적용방안 • 충남 문화기반시설 이용 설문조사내용 및 이론고찰과 연계방안

(5)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그 동안의 충남 문화정체성이나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실태와 과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체성 이론과 충남의 문화정체성 연구동향과 ‘충남 문화시설 운영 실태와 과제’에 대한 원고를 외부 연구진에 집필 의뢰하였다.

“문화정체성 이론 고찰과 충남 문화정체성의 관련 연구동향”에서는 문화정체성의 개념, 문화정체성의 조작적 정의, 문화정체성과 지역공동체 문화와 충남 문화정체성 관련 영향요인 등을 정리하였다.

“문화기반시설 공급 및 운영실태 분석”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의 공급 현황분석,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현황분석, 충남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공공서비스 실태분석과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표 3〉 외부 전문가 원고 위탁

외부전문가	전 공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유기준 교수 (공주대)	문 학	• 충남문화정책성 연구동향 고찰	2012. 6~7
정선기 교수 (충남대)	사회학	•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와 과제	2012. 6~7

3. 연구과정

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고 각 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문화정책성 및 문화기반시설 관련 이론고찰과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충남 문화정책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공급 실태조사와 이용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를 위한 연구동향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공급 및 운영 실태와 지역주민의 문화기반시설 이용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과제를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앞장에서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 문화정책성과 연계한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전략과 정책추진 방안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연구결과를 요약, 종합정리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3〕 연구진행과정별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	- 연구논문 등 문헌조사
문화정책성 및 문화기반시설 관련 이론과 연구 동향 고찰	- 연구논문과 정책보고서 등 문헌조사 - 연구 워크숍 개최
충남 문화기반시설 제공실태와 주민 이용실태조사 분석 및 과제 도출	- 행정 자료 조사 및 인터뷰 조사 - 지역통계 및 관련기관 자료와 인터뷰 조사 - 지역주민 설문조사
충남 문화정책성과 연계한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전략과 정책추진 방안	- 인터뷰 결과 및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추진방안 제시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진 종합의견수렴

제2장 문화정체성과 문화기반시설 관련 이론고찰

1. 문화정체성과 지역 활성화

1) 정체성의 개념

일반적으로 정체성은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대답되어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자기다움의 사상을 뜻한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이며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자아외부의 변화에 직면하여 이루어지는 자아의 적응’ 을 정체성으로 정의 내렸다. ‘정체성’ 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인 담론에서 널리 사용된 것은 에릭슨의 정의가 영향을 끼쳤다. 그러함에도 사회적 자아의 형성과 발달은 ‘자아(自我)’, ‘주체(主體)’, ‘의식(意識)’, ‘퍼스널리티(personality)’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분석되어 왔다.

정체성은 아(我)와 타(他), 비아(非我)와의 구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른 사람과의 구별 속에서 정립된다는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혹은 지역 사회나 다른 사회 혹은 더 큰 단체, 인종과 인종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도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상태적인 개념이고 관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즉 정체성은 이성적 인간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개인이 어떻게 자신을 사회적 주체인 실체로 믿게 되는 과정과 적응을 의미한다.

정체성은 역사적 관계성, 인간의 욕망과 열정, 감성과 기질과 같은 감정적 측면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나는 무엇인가’ 라는 정체성은 먼저 자기 자신을 타인과 혹은 집단과 구별

것은 과정을 갖고 있다. 민족, 인종, 성과 연령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특정한 사회집단에 의해 인위적인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 타자와의 차이, 더 넓게는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의와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체성의 형성 양식은 사회마다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사회라도 역사적 변천에 의하여 다를 수 있다.

정체성이란 고정되고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화롭게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고 사회에 적응함으로써 개인과 민족은 사회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타문화의 타자성에 대해 차이와 차별을 심하게 느낄 경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질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이제 적응하게 될 때에는 정체성은 보다 다원적이고 다층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정체성은 우리를 둘러싼 문화 체계들 속에서 재현되거나 다뤄지는 방식과 관련하여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형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통합된 하나의 형태로 고착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혼합된 일시적인 것이다. 정체성은 항상 진행 중인 과정이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끊임없이 외부 타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부족한 자아를 보완하고 새로운 자아를 완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홍경자, 2006).

2) 문화정체성의 개념

문화는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그 일차적 의미가 있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문화정체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지속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집단은 문화정체성을 통해 문화를 일관되게 이해하고, 질서 있게 영위하게 되며, 또한 문화정체성을 통해 문화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문화에 대한 열의를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문화정체성은 집단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동기, 열망, 계획, 실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집단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문화정체성은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종교적 그리고 국가적 문화에 ‘속해있음’ 으로부터 형성되는 정체성의 측면들을 지칭한다. 문화적 정체성은 특정집단의 과거 역사적 경험이나 지리적 근접성, 미래에 대한 공통 목표 등에 의해 구성되며, 그 집단 성원들에게 문화적 동질성과 독자성, 그리고 현실 이해에 대한 공통의 지침을 제공한다. 오늘날 ‘문화적 정체성’ 의

재정립 문제가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센 물결은 우리에게도 혼란과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역사적으로 단일 민족의 동질적 문화인 인종, 민족, 국적 등의 문화적 지형을 크게 흔들면서 기존의 우리 문화적 정체성을 해체시키고 있다(홍경자, 2006).

문화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인 정체성, 가치관, 의식 등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을 관념체계로 한정해서 보면, 정신문화와 유사하다. 정신문화와 유사개념인 전통, 정체성, 가치, 사회적 성격·의식·사고방식, 문화적 문법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 문화, 사회적 성격, 문화적 문법은 집단이라면, 정체성, 가치, 의식, 사고방식 등은 집단을 물론 개인까지를 포괄한다.

둘째, 이것들의 시간성은 모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다. 하지만 다른 것과 비교하여 전통은 과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셋째, 형태로 보면, 전통, 문화, 정체성은 유·무형을 동시에 포괄하지만, 가치, 사회적 성격, 문화적 문법, 의식과 사고방식은 무형의 것에 한정된다. 다만 전통, 문화, 정체성에서도 무형의 성격이 유형의 성격보다 강하다.

넷째, 상호관계에서 보면, 문화와 비교하여 전통과 정체성은 광의의 개념이고, 가치, 사회적 성격·의식·사고방식은 협의의 개념이다. 반면 문화적 문법은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조현성, 2009).

〈표 4〉 문화와 정체성의 유사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 분	단 위	시간성	형 태	포괄범위(대상)
전 통	집 단	과거-현재	무형 > 유형	전통 > 문화
문 화	집 단	과거-현재	무형 > 유형	
정체성	개인/집단	과거-현재	무형 > 유형	정체성 > 문화
가 치	개인/집단	과거-현재	무 형	문화 > 가치
사회적 성격	집 단	과거-현재	무 형	문화 > 사회적 성격
의식(구조)	개인/집단	과거-현재	무 형	문화 > 의식
사고방식	개인/집단	과거-현재	무 형	문화 > 사고방식
문화적 문법	집 단	과거-현재	무 형	문화≒문화적 문법

주 : 문화적 문법은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정신·문화·사고방식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준 지역 공동의 틀 문화를 가리킨다.

3) 문화정체성의 구성요인

문화정체성은 근대적인 개념인 ‘민족’,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교류와 연계성이 빠르게 강화되는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민족 정체성 개념이 혼돈을 겪고 있다. 한 사회 생활양식의 총체인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 정체성은 인종, 민족, 언어, 종교, 관습, 풍토, 기후 등 여러 요인으로부터 형성되는 정체성의 내용을 말한다. 따라서 세계화는 민족 단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정체성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며, 폐쇄된 민족문화의 정체성들을 다원화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양한 가능성과 새로운 동일성을 파생시켜 민족 단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 정체성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홀은 ‘문화적 정체성’이란 정체성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특히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종교적 그리고 국가적 문화에 ‘속해 있음’ 으로부터 형성되는 정체성의 측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홀은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적 정체성을 현대의 문화적 정체성에서 가장 토대를 이루는 요인으로 강조한다.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기존의 많은 논의들은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al proximity)을 바탕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도, 시, 군과 같은 행정적인 단위로 나누면서 동일 단위 내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되어 왔으나 지역민들의 삶을 구성하는 맥락이자 사회적 구성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체성은 지역민들의 인지는 물론 개인으로서 지역민의 소속감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 및 전통 등에 대한 지식여부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긍심에는 사투리의 사용과 이에 대한 평가 및 지역민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가치 등을 다른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주관적이면서 정서적인 차원의 규정으로서 지역 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로서 충, 효 및 기타 예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지역 정체성은 지역특성, 기질, 상징, 슬로건 등으로 표현되는 개념을 물론 이미지로 수사학적(rhetorical) 표현으로도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정도로도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김규원, 2008).

정체성은 철학적 논의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이론 및 실무들과 결합하면서 보다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게 된다. 가장 비근한 예로, 최근 대부분의 도시와 지역들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 또는 장소마케팅과 관련된 행사들은 바로 이러한 지역정체성 복원 또는 새로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역정체성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

다. 이들을 몇 가지 요소들로 유형화하면 역사정체성, 문화정체성, 경관정체성, 산업정체성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최병두, 2008).

〈표 5〉 문화와 정체성의 유사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 야	내 용
역사정체성	역사적 사실, 역사의 현장, 역사적 인물, 유적
문화정체성	민속, 축제,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음식
경관정체성	미관, 자연경관, 도심경관, 구조물, 환경운동, 체험과 이미지
산업정체성	관광, 첨단산업, 수공업, 농산물, 제3차산업

자료 : 최병두(2008), “도시발전 전략에 있어 정체성 형성과 공적 공간의 구축에 관한 비판적 성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4권 제5호.

4) 지역활성화에 있어 정체성의 역할과 디지털시대의 문화정체성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자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이며,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어떠한가, 실재하는 것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자신을 규정하는 행위이다. 즉 정체성은 자신과 타인들을 구별하며, 복잡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일정한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자신과 타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이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하는가를 방향지어 주는 틀이다. 정체성은 자신을 사회에 편입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개인이 아닌 조직단위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방화 시대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의 역사성이나 문화유산을 찾아내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고 책으로 발간하며 지역의 역사·문화·인물을 홍보하고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자치단체들이 자치행정단위가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기 위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신들의 지역을 차별화 된 상징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은 각 지역의 문화자원 현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시대적 배경과 생활양식·풍습·지리적 특성, 경제적 상황 등이 지역 정체성과 맞물려 보수성을

따게 되기도 하며, 동시대 지향적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정체성은 존재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 타자와의 비교에 의해서 확립되는 가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의 구축은 기존의 주어진 역사·전통에 의한 구분과 함께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차별화 시키는 과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조성될 수 있다(김규원 외, 2001).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곧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도와 노력을 불러온다.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정체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 될 수 있다.

첫째, 지역정체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적 필요성의 측면이다. 먼저 지역 차별화 작업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물론 지방자치 이전에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방자치 이후에는 각 지역이 독립된 정치 단위로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상상의 공동체임을 인식시켜 지역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결국, 지역정체성 형성은 간접적으로 지역민들의 통합성을 높이고 지역의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지역민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든다.

둘째, 대외적 필요성의 측면으로 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 요소로서 지역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에 관한 방법으로 지역의 이미지 메이킹을 들 수 있는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상징적 이미지를 만들어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그 목적은 달성된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 해당 지역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각인시킬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차별적 내용을 소비하도록 유인할 수 있게 되며 차별화된 이미지는 지역정체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을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은 지역의 문화활성화와 지역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지역의 이미지를 확보하는데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최지원, 2010)

디지털 시대의 문화정체성의 지시대상은 새롭게 변모된 개인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추적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최근 학계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주체형성 과정이 학문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많은 이론적 혼란을 보이고 있다. 물론 주체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적 혼란이 정보화 사회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정체성의 형성 과정이 과거

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주체의 역량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화시대에서 컴퓨터통신에 접속된 자아는 경직되고 통합된 자아가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교류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자아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경직되고 통일된 자아가 의미하는 바는 전통적인 정체성이 가족관계나 학교 혹은 타 인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반면, 접속의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상공간에서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는 가상인물 속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정체성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홍성민, 2001)

디지털 시대의 문화를 한 저자는 “제 3의 문화” 라고 지칭했다. 생활양식이 공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새롭게 바뀌는데, 이것은 제 3의 생활양식을 가지는 사회가 된다는 뜻이다. 현재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문화적 지구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모든 국경을 넘어서는 소프트웨어의 무국적화로 인해 획일화가 이루어지면서 문화적 지구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는 기능적 상업화를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의 획일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문화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부지불식간에 획일화에 강력하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인쇄매체, 텔레비전 등으로 획일화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디지털 매체는 이전의 매체보다 수십 배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더욱 쉽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는 급속한 문화개방이 이루어진 결과로 문화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고유 문화성의 침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자기 문화의 특수성을 찾아내어 세계로 나아가야하며,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 충남의 문화정체성⁴⁾ 관련 연구동향

1) 충남 문화정체성의 조작적 정의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공간적 관계 안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유된 존재의미나 의식, 즉 ‘정체성’을 갖는다. 정체성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지니는 원래의 모습, 혹은 지니고자 하는 성향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대단히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정체성이란 과거와 기존의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모습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에 따라서 개인의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은 자아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동일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추구하는 존재이며, 자기 동일시의 대상이 태초 어머니로 시작하여, 가정, 놀이터, 마을, 도시, 국가 등의 수준으로 점점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배경에는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이주 및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어 오랫동안 지속되어져오던 지역의 정체성이 약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도시 및 지역 간의 개발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역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지역정체성은 다른 지역에서 빌려오거나 훔쳐 낸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여타 상위 단체에서 요구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생적으로 축적된 것이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이다. 지역정체성은 지역민 개개인의 개별 정체성과 상호 긴밀한 영향관계를 주고받는다. 그러므로 지역정체성 확립은 지역민의 삶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직결되며,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삶의 지표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설정방향 역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하겠다.

지역정체성을 이야기 할 때 내부적으로는 동일성(sameness)을 중심으로 삼고 외부적으로는 개별성(eness)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들을 함께 다룬다. 그것은 동일성 측면에서 보자면

4) 충남의 정체성 연구(소진광 외, 2010)에서는 지역정체성 개념과 시·공간 함수를 접근 틀로 하여 충남 정체성의 시간함수를 충남지역의 역사, 충남의 인물, 충남의 유물과 유적, 충남의 문화, 충남의 시간활용방식 등과 충남 정체성의 공간함수를 충남의 위치와 면적, 충남의 지형적 특성, 충남의 인문환경, 충남의 지역구분 등으로 정리하고 있음. 특히, 충남의 문화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세시풍속, 충남의 전통신앙, 충남의 음식, 충남의 예술, 충남의 언어(사투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어떤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영속성(continuance)과 그 불변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여러 환경적인 동화감(assimilability)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개별성 측면에서는 기존하는 내부적 동일성에 대응하는 특이성(uniqueness), 우월성(excellence), 특수성(specificity), 차별성(differentiability)과 같은 특성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의 정체성은 한 나라의 정체성과는 달리 공간과 제도의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한 나라의 정체성이 국경이라는 다소 경직된 여과장치를 통해 인식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역정체성은 나라 안에서 어떠한 지리적 경계를 인식하지 않고 넘나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정체성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점(point)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면(surface)을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활동과 공간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주민활동이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미 형성된 공간에 의해 주민활동이 파생되기도 한다.

충남의 문화정체성도 이러한 지역정체성에 바탕을 두어 충남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자신들에 대한 개별의식이나 집단에 대하여 면(surface)과 점(point)으로 나타나는 공통의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 정체성 발굴에 대한 노력은 개체나 집단에 있어 인간소외의 극복이자 친화의 증대를 의미한다.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은 지역을 통해 인지되는 표상으로서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경제, 사회작동체계(지역사회 규범 등)와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표상들은 단편적인 지표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독립변수, 즉 역사인식, 역사적 인물, 전통사상, 세시풍속, 전통예술, 언어적 특성,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 기록, 유물, 유적 등을 총체적으로 투입하여 인지되는 시간함수와 지형, 기후, 인구특성을 반영하는 인문현상, 토지이용 등 공간 활용방식 등을 총체적으로 투입하여 인지되는 공간함수로 표현된다.

역사적 사실만으로는 지역정체성의 시간함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민속, 언어, 생활습관, 역사적 사건, 유물, 유적, 역사적 인물 등은 시간함수의 독립변수에 속하지만 이의 변환장치는 역시 사람의 인식이다. 결국 지역정체성의 시간함수는 주민들의 역사인식으로 집약된다. 다만 개별 독립변수 즉, 민속, 언어적 특성, 생활습관, 역사적 사건, 역사인물, 유물, 유적, 시간활용 방식 등은 역사 인식의 소재일 뿐이다.

다른 한편 지역별 공간현상에 속하는 지형, 기후, 인구분포 등 인문현상, 물리적 시설, 토지이용 방식 등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통해 공간적 차별성으로 귀결된다. 지역별로 다른 지형,

기후, 인문현상, 물리적 시설, 토지이용방식 등의 존재는 결국 인간의 공간 활용 방식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지역의 공간함수는 생활환경으로 표현될 수 있다.

〈표 6〉 지역정체성의 영향요인

지역정체성 영향요인	독립 변수(지표)	주요 기능
시 간 적 영향요인	지역의 역사, 역사적 인물, 유물과 유적, 문화(세시풍속, 토속신앙, 음식, 예술, 언어).	해당 지역 혹은 집단의 동질성에 근거한 내부결속 강화
공 간 적 영향요인	위치와 면적, 지형, 기후, 인문환경, 지역구분, 공간활용 방식 등	해당 지역 혹은 집단별 차별성에 근거한 경쟁우위 확보

자료 : 소진광·박철희(2010), 충남의 정체성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p13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문화정체성을 충남지역의 역사, 역사적 인물, 유물과 유적, 세시풍속, 음식, 예술, 언어, 행동양식 등에 영향을 받아 충남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자신들에 대한 개별의식이나 집단에 대한 문화적인 공통의식 및 자긍심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2) 충남의 문화정체성 관련 연구

문화정체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지속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집단은 문화정체성을 통해 문화를 일관되게 이해하고, 질서 있게 영위하게 되며, 또한 집단은 문화정체성을 통해 문화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문화에 대한 열의를 형성하게 된다.⁵⁾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연환경과 문화적 전통을 들 수 있다. 충남의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시·공간적 영향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충남의 역사

충남 일원은 선사시대 기원전 B.C 10세기 이전부터 수만 년에 이르는 구석기시대 유적이 공주 석장리에서 발견되었고, 도내 전역에서 청동기 유적들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구석기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54국 중 15개 소국 정도

5) 양건열, 문화정체성확립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가 충청도 지역에 분포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제시대 고이왕(234-286, 18대)은 6좌평을 설치하고, 16관등제를 도입하였으며 나라의 기반인 법령을 반포하였다. 이어 근초고왕(346-375)은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를 완성하였고, 서기 371년 평양성을 공격하였고, 부자상속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서기를 편찬하였다. 침류왕 원년(384)에는 불교를 공인하였고, 웅진도읍기인 서기 479년부터는 백제는 국력을 회복하였다.

백제의 동성왕은 새로운 도읍지로 사비(지금의 부여)를 선정하였고, 26대 성왕(523-554)은 538년 사비천도를 단행하여 도성을 정비하였고(5部 5巷), 방·군·성제(方郡城制)를 통해 지방제도를 완성하였다. 이어 성왕은 551년 신라 진흥왕과 연합작전을 실시하여, 한강유역을 회복하였으나 554년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백제는 각종 첨단기술이 발달하여 신라와 왜(倭)에 전수하였고, 특히 왜(倭)에는 오경(五經), 의(醫), 역(易) 분야의 박사를 파견하였고, 불경을 전파하였다. 법왕(599-600)은 살생을 금하는 칙령을 내렸고, 무왕(600-641)은 백제 정원문화의 진수인 궁남지를 조성하였으며, 미륵사와 왕흥사를 창건하였다. 의자왕(641-660)은 제위 초기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해동증자(海東僧子)로 칭송되었고, 연개소문과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백제는 왕비인 은고(恩古)의 권력욕이 지나쳐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고 서기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다. 백제의 국력은 5부(部), 37군(郡), 200성(城), 76만호로 기록되어 있는데, 백제를 멸망시키고 세웠다는 평제비에는 24만호 600만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백제의 지방통치제도는 부제(部制), 담로제(檀魯制)를 거쳐 방군성제(方郡城制)로 이어졌다.

통일신라시대 충남 일대는 웅진도독부와 소부리주(사비주), 웅천부, 응주 등으로 불렸으며, 후삼국시대에는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영역에 속하였다. 고려시대 충남지역은 하남도, 양광도, 충청주도, 충청도 등으로 불렸으며, 경기도와 합침과 분리가 반복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4년(1396년)에 양광도를 충청도와 경기도로 분리하였고 선조 31년(1598년)에는 감영을 충주에서 공주로 이전하였으며, 이후에 충청도의 명칭은 공청도, 충청도, 공홍도, 충홍도, 공충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개칭되다가 순조 34년(1834년)에 공청도에서 충청도로 환원되었다. 고종 33년 1896년 칙령 제36호로 13도제로 개편됨에 따라 충청북도와 분리되어 비로소 충청남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2) 충남의 인물⁶⁾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며, 기록을 남긴다. 사람의 행적은 후대에 전해져, 시간흐름의 맥락을 이룬다. 후대에 전해지는 사람의 행적은 후대의 길잡이가 되어 통시적(通時的) 맥락을 이룬다. 충남의 기질은 곧 충남에 살았던 사람들의 치적을 이룬다. 찬란한 백제문화가 꽃피었던 충청 지역이 조선시대에 이르면 선비문화의 중심지로 부각된다. 이의 논거는 이곳에 살았던 사람의 행적에 있다. 충청도는 흔히 ‘양반의 고장’, ‘선비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져 왔는데, 이는 일찍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양반, 선비, 충신·열사가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충청도를 흔히 양반의 고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도 충청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질을 역사적 맥락에서 조명한 때문이다.

선비문화의 전성기는 조선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충청도는 선비문화의 중심지였다. 일찍이 여말선초 성리학이 수용되던 시기에 충남 출신 학자들은 성리학 수용과 연구에 앞장섰으니, 보령 남포의 이재 백이정(白頤正, 1247~1323)과 서천 한산의 이곡(李穀, 1298~1351)·이색(李穡, 1328~1396) 부자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석탄 이존오(李存吾, 1341~1371)는 말년에 공주 석탄(현재의 부여 저석리)에 은거했으며, 야은 길재(吉再, 1353~1419)는 전라도 금주(錦州, 지금의 충남 금산)와 인연이 있다. 선초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이개(李塏, 1417~1456)는 이색의 증손자요, 성삼문(成三問, 1418~1456, 홍주)과 박팽년(朴彭年, 1417~1456, 연기·회덕)도 충남과 연고가 있으며, 생육신인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부여 홍산 무량사에 부도와 영정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문무를 겸비한 진정한 선비 절재 김종서(金宗瑞, 1383~1453)도 공주 출신이었다.

우리나라의 유교는 16세기에 이르면 ‘조선적 성리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독자성을 지니게 되었는데, 16세기 기호유학은 화담계열(花潭系列)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화담 서경덕(徐敬德)은 무인집안 출신으로, 제자를 받아들일 때 문호를 개방하여 양반뿐 아니라 양인·천인에게까지 문하에 출입하게 했다. 화담계열에는 충남의 내포지방에 살던 인물로 이지함서·가흥가신 등이 포함된다. 토정 이지함(李之函, 1517~1578)은 한산 이씨로 보령사람이며 묘소는 보령시 주포면 고정리에 있고 아산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고청 서기(徐起,

6) 이 절의 상당 부분은 충남의 정체성 연구(소진광·박철희, 2010)의 지역정체성 시간함수에서 임선빈, 2008,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대입 한 것을 요약 재정리 한 것임.

1523~1591)는 천인으로서 서자인 이중호(李仲虎)의 문인으로 화담문화에 출입했다. 고청 서기는 공주의 공암에 충남 최초의 서원을 건립한 인물로, 원래 홍주의 상전리에서 태어나 40대까지 홍주에서 살았으나, 만년에 20여 년간 계룡산 자락에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그곳에 문힘으로써 ‘계룡산문화권(혹은 금강문화권)’에 성리학적 학풍을 가지게 한 인물로 이해된다. 아산의 향현으로 홍주목사를 지낸바 있는 홍가신(洪可臣, 1541~1615)은 화담의 제자인 민순(閔純, 1519~1591)의 제자이다.

한편, 16세기에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많은 유학자들이 활동했다. 계룡산의 처사 박증(朴增, 1461~1517, 노성), 후기 사림과 김정(1486~1520, 보은·회덕), 기묘명현록에 올라있는 이자(李籽 1466~1524, 한산), 김안로를 탄핵했던 송인수(宋麟壽, 1499~1547, 청주·회덕), 유성과 연고가 있는 박순(朴淳, 1523~1589) 등이 금강유역의 대표적 인물이며, 앞서 언급한 고청 서기도 만년을 계룡산 자락에서 보냈다.

우리나라의 유학은 크게 영남유학과 기호유학으로 대별되는데, 기호유학의 중심은 바로 충청도였다. 기호학과 가운데 율곡 이이의 적통을 계승하는 사계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연산)과 그의 제자 신독재 김집(金集, 1574~1656, 연산),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 회덕),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1606~1672, 회덕), 초려 이유태(李惟泰, 1607~1684, 금산·공주), 송애 김경여(金慶餘, 1596~1653, 회덕), 그리고 김집 문하의 시남 유계(兪槩, 1607~1664, 임천·금산), 미촌 윤선거(尹宣舉, 1610~1669, 노성) 등이 호서의 금강유역 인물이다. 김장생·김집 부자가 연산을 중심으로 한 강학활동은 이 지역에 많은 선비들이 운집하게 하였으며, 이후 논산 지역(연산, 노성)을 17세기 조선예학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이들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다섯 사람(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유계, 윤선거)을 충청오현이라 했는데, 이들이 모두 금강유역의 인물이다.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난숙기는 17세기인데, 이 시기의 주도적인 위상에 있던 유학자들은 기호, 그 중에서도 호서출신이 절대 다수였고, 선비 중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산림(山林)이 여기에 속한다.⁷⁾

7) ‘산림’은 조선시대 산곡임하(山谷林下)에 은거해 있으며 학덕을 겸비하여 국가로부터 징소를 받은 인물로 산림지사(山林之士), 산림숙덕지사(山林宿德之士), 산림독서지사(山林讀書之士)의 약칭으로 임하지인(林下之人), 임하독서지인(林下讀書之人) 등으로도 불리었다. 산림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향촌에 은거해 있으면서 유림의 추앙을 받았으며, 정계를 떠나 있어도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것은 아니며, 정계에 진출해 있다 해도 항상 산림에 본거지를 가지고 있는 조선 후기 특유의 존재로서, 이들의 명성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이루어진

17세기 산림(山林)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조사된 38명 가운데 충청도가 17명, 경기도가 7명, 경상도가 5명, 전라도·강원도가 각각 2명, 평안도가 1명, 미상 4명이다. 충청도 출신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김장생(연산), 박지계(신창·아산), 강학년(姜鶴年, 1585~1647, 연기·회덕), 김집(연산), 조극선(趙克善, 1595~1658, 덕산), 송준길(회덕), 송시열(회덕), 권시(權誥 1604~1672, 유성), 윤순거(尹舜舉, 1596~1668, 노성), 이유태(금산·공주), 윤선거(노성), 윤원거(尹元舉, 1601~1672, 노성), 송기후(宋基厚, 1621~1674, 회덕), 이상(李翔, 1620~1690, 전의), 윤중(尹拯, 1629~1714, 노성), 권상하(權尙夏, 1641~1721, 청풍), 이기홍(李箕洪, 1641~1708, 연풍) 등이다.

17세기의 호서유학이 연산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인 회덕, 노성, 금산, 보은, 옥천 등지로 확산되었다고 한다면, 18세기의 호서유학은 금강유역에 머물지 않고 남한강유역과 내포지역에 까지 확산되어 나갔다. 송시열의 적전은 수암 권상하(남한강 유역의 청풍)이며, 권상하의 문하에서는 이기론, 예론과 함께 조선시대 성리학계의 3대 논변 중 하나였던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 일명 湖洛論爭)이 전개되었다. 이는 율곡의 주기론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 洛論)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 : 湖論)으로 갈리었다.

호론(湖論)의 중심인물인 남당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은 내포의 결성현 남당리[현재의 홍성군 결성면 남당리] 출신이며, 그의 지지자들은 예산의 병계 윤봉구(尹鳳九, 1681~1767), 매봉 최징후, 서산의 한간 김한록(金漢祿), 봉암 채지홍(蔡之洪, 1683~1741) 등이 있다. 낙론의 지지자들은 주로 경기도에 살았지만, 중심 인물인 외암 이간(李柬, 1677~1727)은 온양의 외암리(현재의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출신이다. 한원진의 적통이면서 기철학자로 유명한 녹문 임성주(任聖周, 1711~1788) 또한 말년에 공주에 머물지만 원래는 청풍 출신이다.

이 외에도 토정 이지함의 조카로 대북의 영수이면서 영의정까지 지낸 아계 이산해(李山海, 1539~1609,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에 묘소가 위치), 인조초 김장생·장현광과 함께 조정에 징소된 3대 사림으로 예학에 뛰어났던 박지계(신창, 아산의 인산서원에 배향), 효종때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의 역을함을 논하다가 죽임을 당한 학주 김홍욱(金弘郁, 1602~1654, 정조대의 벽파 김구주의 조상으로 서산 사람, 성암서원 배향, 묘소는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위치),

것이였다. 즉, 과거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과거를 거친 관료보다 더 존중되는 선비였다(임선빈).

1611년(광해군 3)에 조광조·김광필·정여창·이언적 등 4현(四賢)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다가 좌천되었고, 김육이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기여한 유명한 학자관료이자 교육이론가였던 포저 조익(趙翼, 1579~1655), 권필·윤근수·이호민 등과 함께 동악시단(東岳詩壇)을 만들어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글씨도 잘 썼던 동악 이안눌(李安訥, 1571~1637), 박지계와 조익의 문인이며 성리학과 예설에 밝았던 야곡 조극선, 숙종 때 오래 동안 영의정을 지낸 소론의 영수로 결성에 우거(寓居)했던 약천 남구만(南九萬, 1629~1711), 홍주의 구봉산 아래 어재동(현재의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어재동)에서 출생해서 정조대에 10년 독상(獨相)을 지낼 정도로 유명한 남인의 영수 변암 체제공(蔡濟恭, 1720~1799), 추사체로 잘 알려진 완당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예산) 등이 내포의 인물이다.

또한 주자학적 경전해석에 반기를 들고 자주적 학풍을 열었던 백호 윤휴(尹鑣, 1617~1680, 공주 우거), 구운몽의 저자인 서포 김만중(金萬重, 1637~1692, 연산), 인문지리학자이며 택리지의 저자인 청담 이중환(李重煥, 1690~1752, 공주), 주역을 연구하여 독창적인 정역의 이론체계를 세운 일부 김항(金恒, 1826~1898, 연산) 등이 금강유역에서 활동하였다. 이 외에 북학과 실학의 선구자였던 담헌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이 천안지역에 연고를 갖고 활동한 바 있으며, 면암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화서 이항로의 문인으로 위정척사(衛正斥邪)에 앞장섰던 한말의 큰 유학자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유학사에서 충청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정신문화가 유교를 중심으로 큰 맥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충청도는 바로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산실이다. 충청도를 일컬어 ‘양반의 고장’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충청도 선비들은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을 내세워 종종 자신의 지위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충청도 선비정신은 ‘문약’으로 표현되던 선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도 다르다. 즉, 충남의 선비들은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외적의 침략 앞에서는 자신의 안일을 추구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다.

일찍이 조선 중기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에는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아산), 김시민(金時敏, 1554~1592, 천안), 영규(靈圭, ?~1592, 공주) 등 충남의 명장과 의병이 큰 역할을 했다. 중봉 조헌(趙憲, 1544~1592)은 충남 출생은 아니지만, 일찍이 홍주목 교수, 보은 현감, 공주목 제독관 등을 역임하였고,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옥천군 안읍밤티(安邑栗峙)로 들어가 후율정사(後栗精舍)라는 서실을 짓고 제자 양성과 학문을 닦는 데 전념하여 충청도의 선비들

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므로, 의병을 일으켜 금산전투에서 순절할 때에 충청도의 선비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전통시대 대부분의 의병들은 원래 창칼을 들고 싸움을 하던 무인이 아니라 서책을 갖고 글을 읽던 문인이었다.

조선시대 강건(剛健)한 선비문화의 전통은 근대에 이르러 항일 구국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조선 말 일제강점기에 호국에 온몸을 던졌던 의병장이나 독립운동가로 민종식(閔宗植, 1861~1917), 이남규(李南珪, 1855~1907), 김복한(金福漢, 1860~1924), 최익현(崔益鉉, 1833~1906),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이상재(李商在, 1850~1927), 이종일(李鍾一, 1858~1925), 유관순(柳寬順, 1902~1920?), 이동녕(李東寧, 1869~1940), 김좌진(金佐鎭, 1889~1930),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윤봉길(尹奉吉, 1908~1932) 등이 충남 출생이거나 충남과 연고를 지니고 있다.

충청남도가 펴낸 「충남의 얼과 맥」(1996)에서는 충남의 5대 정신을 충효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예의정신, 개척정신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인물을 대응시키고 있다. 즉, 백제시대 성충의 충성, 고려시대 한교의 효행, 조선시대 이순신의 충성, 근세 윤봉길의 의거 등은 충남 충효정신의 맥락을 이룬다. 또한 백제시대 도미 아내의 절개, 고려시대 길재의 지조, 조선시대 성삼문의 절의, 근세 김좌진의 정의감 등은 충남인의 절의정신을 대표하고 있다. 충남인의 선비정신은 청백리 박문수, 이상재의 신의, 이지함의 청빈, 고려시대 이색의 단심(丹心)에서 찾을 수 있다. 충남인의 예의정신은 조선시대 김장생의 예의, 김집의 예학, 송준길의 도학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인의 개척정신은 백제시대 왜(倭)를 개화시킨 아직기, 심훈의 농촌운동, 서재필의 개혁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3) 충남의 유물과 유적

충남의 유물과 유적은 이 지역의 역사성을 표현하고 있다. 충남에는 모두 222개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이를 구분하면 국보가 27개, 국가지정 보물이 97개, 국가지정 사적 및 명승이 51개, 중요무형문화재가 7개 등이다. 이러한 국가 지정문화재 중 부여군은 48개, 공주시는 43개를 보유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시·군별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충남의 시·군별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구분	합계	국가지정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중요무형 문화재	천연 기념물	중요민속 자료
합계	222	27	97	51	7	15	25
천안시	14	1	10	1	-	2	-
공주시	43	16	18	9	-	-	-
보령시	9	1	3	3	-	1	1
아산시	14	1	4	3	-	-	6
서산시	14	1	8	3	-	-	2
논산시	13	-	8	2	-	1	2
계룡시	-	-	-	-	-	-	-
금산군	5	-	1	1	1	2	-
연기군	3	-	2	-	-	1	-
부여군	48	3	16	22	1	1	5
서천군	8	-	2	2	2	1	1
청양군	11	2	8	-	-	-	1
홍성군	9	-	4	2	-	-	3
예산군	17	1	9	2	1	1	3
태안군	6	1	-	1	-	4	-
당진군	8	-	4	-	2	1	1

자료 : 충청남도(2011), 충남통계연보

한편 충남도가 지정한 문화재는 모두 390개이며 이 중에서 60개는 공주시에, 55개는 부여군에 43개는 논산시에, 그리고 36개는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다. <표 8>은 시·군별 도지정 문화재 현황을 보여준다. 충남의 도지정 문화재 390개 중에서 유형문화재는 168개, 무형문화재는 40개, 기념물이 162개, 민속이 20개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문화재는 공주시가 35개, 부여군이 25개, 논산시가 23개, 예산군이 18개를 보유하고 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홍성군이 6개로 가장 많고, 부여군, 서천군이 각각 5개, 공주시가 4개, 아산시, 금산군, 청양군이 각각 3개씩 보유하고 있다.

도 지정 기념물은 모두 162개인데, 부여군이 25개로 가장 많고, 공주시가 19개, 예산군이 16개, 논산시가 15개, 천안시가 14개를 보유하고 있다. 도 지정 민속은 모두 22개 인데, 아산시와 논산시가 각각 4개를, 서산시, 홍성군이 각각 3개씩을 보유하고 있다.

충남의 국가지정 국보를 살펴보면, 공주의 당금동보살입상(국보 247호), 죽좌<왕>(국보 165

호), 두침(국보 164호), 지석(국보 163호), 석수(국보 162호), 청동 신수경외 2점(국보 161호), 은 제팔짜<왕비>(국보 160호), 금제뒤꽂이<왕>(국보 159호), 금제경식<왕비>(국보 158호), 금제수식부이식<왕비>(국보 157호), 금제심엽형이식<왕>(국보156호), 금제관식<왕비>(국보 제155호), 금제관식<왕>(국보 제154호), 계유명 삼존천불비상(국보 제108호) 등이다.

〈표 8〉 충남의 도지정문화재 현황

구분	합계	도지정			
		유형	기념물	무형	민속
합계	390	168	162	40	20
천안시	25	10	14	1	-
공주시	60	35	19	4	2
보령시	17	9	6	1	1
아산시	18	4	7	3	4
서산시	25	11	9	2	3
논산시	43	23	15	1	4
계룡시	4	2	-	1	1
금산군	14	6	5	3	-
연기군	12	5	7	-	-
부여군	55	25	25	5	-
서천군	13	1	7	5	-
청양군	14	6	4	3	1
홍성군	24	5	10	6	3
예산군	36	18	16	2	-
태안군	14	5	6	2	1
당진군	16	3	12	1	-

자료 : 충청남도(2011), 충남통계연보.

또한 태안의 태안마애삼존불(국보 제307호), 청양의 장곡사 철조 약사여래좌상 부석조 대좌(국보 58호), 장곡사 미륵불괘불탱(국보 300호), 천안의 봉선홍경사사적갈비(국보 7호),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국보 49호), 아산의 이충무공난중일기부서간첩임진장초(국보 76호), 서산의 서산마애삼존불상(국보 84호)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부여의 백제 금동 대향로(국보 287호)는 당시 백제의 문화정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당의 기법과도 다른 독특한 예술미와 주조기술을 보여준다.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국보 9호), 금동 미륵보살반가상(국보 83호), 백제 창왕명석조사리감(국보 288호), 보령의 성주사 낭혜화

상백월보광탑비(국보 8호), 공주의 갑사 삼신불괘불탱(국보 298호), 노사나불괘불탱(국보 299호) 등도 충남의 시간합수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국보이다.

충남의 국가지정 보물로는 당진의 신암사 금동불좌상(보물987호), 홍성의 중봉조현관계유품(보물 1007호), 홍성 신경리 마애석불(보물 355호), 홍성 고산사 대광보전(보물 399호), 홍성 동문동 당간지주(보물 538호), 용봉사 영산 회괘불탱(보물 1262호), 청양의 정산 서정리 구층석탑(보물 18호), 장곡사 상대응전(보물 162호), 장곡사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 부석조대좌(보물 174호), 장곡사 하대응전(보물 181호), 청양 석조 삼존불입상(보물 197호), 장곡사 금동 약사여래좌상(보물 337호) 등이 있다.

또한 천안의 천홍사지 당간지주(보물 99호), 천홍사지 오층석탑(보물 354호), 광덕사 고려사경(보물 390호), 천원 삼대리 마애불(보물 407호), 광덕사 소장면 역사괘교지(보물 1246호), 광덕사 소장 조선시대사경(보물 1247호), 광덕사 소장 조선시대사경(보물 1247호), 광덕사 노사나불괘불탱(보물 1261호), 예산의 예산삼교 석조보살입상(보물 508호), 예산 김정희종가유물(보물 547호),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보물 794호), 이색영정(보물 1215호), 수덕사 노사나불괘불탱(보물 1263호), 아산의 이충무공유물(보물 326호), 기사계첩(보물 639호)도 충청의 기질을 나타내주는 보물이다.

서천의 비인 오층석탑(보물 224호), 보원사지 석조(보물 102호), 보원사지 당간지주(보물 103호), 서산의 보원사지 오층석탑(보물 104호), 보원사 법인국사 보승탑(보물 105호), 보원사 법인국사 보승탑비(보물 106호), 개심사 대응전(보물 143), 개심사 영산회괘불탱(보물 1264호), 부여의 무량사 극락전(보물 356호), 당유인원기공비(보물 21호), 보광사 대보광선사비(보물 107호)도 이 고장의 대표적 보물이다.

부여 정림사지 석불좌상(보물 108호),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보물 184호), 무량사 오층석탑(보물 185호), 부여석조(보물 194호), 금동석가여래입상(보물 196호),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217호), 무량사 석등(보물 233호), 군수리 석조여래좌상(보물 329호), 군수리 금동미륵보살입상(보물 330호), 무량사 미륵불괘불탱(보물 1265호), 보령의 성주사지 오층석탑(보물 19호), 성주사지 중앙삼층석탑(보물 20호), 성주사지 서삼층석탑(보물 47호), 당진의 안국사지 석불입상(보물 100호), 안국사지 석탑(보물 101호), 영탑사 금동삼존불(보물 409호) 등도 충남의 시간합수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논산의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218호), 개태사지 석불입상(보물 219호), 관촉사 석등

(보물 232호), 쌍계사 대웅전(보물 408호), 성주도씨 종중문서(보물 724호), 남양전씨 종중문서(보물 727호), 공주의 감지은니 묘법연화경(보물 269호), 공주반죽동 당간지주(보물 150호), 갑사 칠당간 및 지주(보물 256호), 갑사 부도(보물 257호), 감지금니묘법연화경<권제6>(보물 270호), 갑사 동종(보물 478호), 선조2년 간월인 석보판목(보물 582호), 마곡사 오층석탑(보물 799호), 마곡사 영산전(보물 800호), 마곡사 대웅보전(보물 801호), 마곡사대광보전(보물 802호), 공주 서혈사 석불좌상(보물 979호), 마곡사 석가모니 불괘불탱(보물 1260호), 청량사지 오층석탑(보물 1284호), 청량사지 칠층석탑(보물 1285호), 계룡산 중악단(보물 1293호) 등이 충남의 시간 함수에 속한다.

충남에는 무형문화재도 많다. 백제시대부터 전해오는 것으로 산유화가 있고, 충남의 양반 음악인 내포제(內浦制) 시조가 전해오고 있다. 특히 충남일대에는 불교 관련 유물, 유적이 많다. 자연과 동화되면서도 자연에 묻히지 않는 충남인의 기질은 불교에서 묻어나는 향내와 같다. 서산의 마애삼존불상(국보 84호)에서 감추듯 잔잔하게 흐르는 미소는 어느 사학자의 표현대로 ‘백제의 미소’를 전하고 있다. 잔잔한 미소를 곁에 두고 사는 충남인의 기질이 현재 전국 희극배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4) 충남의 세시풍속과 음식

① 세시풍속⁸⁾

충청남도(충청남도)는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완만한 산세와 금강을 중심으로 기름진 평야지대가 발달하고 있어서 사람 살기에 좋은 편이다. 그러므로 충남지역은 자연재해도 비켜갔고, 주민들의 품성도 착하고 온순하며 느리기로 소문났다. 자연재해가 적어서 충남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이 여유롭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바다에 연해 있고 차령고개를 안고 사는 내포지역의 경우는 내륙지역보다는 태풍이나 파도,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기감과 충격이 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질 또한 다르다.

충남의 천안, 충북의 진천, 그리고 경기 안성지역은 서로 지리적으로는 근거리에 있지만 지형적으로는 금북정맥 등 교류 상 장애가 될 수 있는 산과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이에 따른 풍속 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충남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면서도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8) 이 부분은 주로 「충청남도지 제18권」의 정승모 글을 인용하였다.

천안지역은 인접한 진천지역에 비하면 지형이 비교적 평탄하여 동쪽보다는 서쪽, 그리고 남북 축으로 특히 남쪽지역과의 연계성이 강하다. 그래서 정초에는 충남 대부분의 지역처럼 가내 평안을 위하여 안택도 하고 정월떡도 하며, 집안의 제액초복(除厄招福)을 위하여 정월 보름 안으로 서낭제·용왕제·거리제·황수맥이 등도 치러진다. 하지만 충남의 남부지역과는 달리 10월에 하는 안택의 비중이 크고, 또한 ‘정월떡’ 보다는 ‘갈떡’ (가을떡)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충남 서산지역에서는 안택고사를 지신제라 하는 등 지역에 따라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거의 같다. 어촌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는 배에서 고사를 지냈는데, 이를 안택고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배에 있는 신을 경기, 충남 및 전남북·경남북의 모든 해안가에서 배서낭이라 하고, 강원도에서는 배성주,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지왕님 또는 당(堂)이라 일컫기도 한다. 가장 익숙한 명칭은 배서낭인데, 이 서낭은 육지에서 섬기는 ‘서낭’과는 다르다. 어촌의 안택고사 역시 집안의 평안과 풍요를 위하여 집안에서 섬기는 가신(家神)을 대상으로 지내는 의례로 정초에 주로 한다. 가을에 지내는 고사도 안택, 또는 안택고사라고 하지만, 가을고사는 주로 ‘성주고사’ 혹은, ‘천신고사’ 라고도 한다.

줄다리기는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마을공동체, 또는 넓은 고을의 지역축제이다. 천안 병산면 병천의 줄다리기는 넓은 지역에 걸쳐 치러지는 지역축제에 해당한다. 병천장에서는 윤달이 드는 해에 병천리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주민들까지 모두 모여서 줄을 당겼다. 천안 직산읍의 줄다리기는 구 직산읍을 중심으로 근동에 위치한 4개 면이 함께 놀던 놀이다. 직산읍을 비롯하여 성환읍·입장면·성거면이 당시 북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네 개의 면이 줄다리기에 모두 참여하였다.

또한, 당진의 기지시줄다리기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이다. 기지시줄다리기는 농경의식의 하나인 일종의 편싸움 놀이로 길쌈이라고도 한다. 마을을 육지와 바닷가 쪽 두 편으로 나누는데 생산의 의미에서 여성을 상징하는 바닷가 쪽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한다. 줄다리기는 윤년 음력 3월초에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낸 다음 행해졌다. 전설에 의하면 당진의 기지시리는 풍수적으로 옥녀가 베짜는 형국이어서 베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시늉을 한 데서 줄다리가 생겼다고도 하고, 지형이 지네형이라서 지네모양의 큰 줄을 만들어 줄다리를 했다고도 전해진다.

줄의 길이는 50~60m이며 지름이 1m가 넘는 경우도 있어 사람이 줄을 타고 앉으면 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줄이 커서 손으로 잡아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원줄의 중간 중간에 가늘게 만든 곁줄을 여러 개 매달아 잡아당기기 좋도록 만든다. 줄 위에 올라선 대장이 지휘를 하면 줄다리가 시작되고 각 마을의 농악대는 빠른 장단으로 사람들의 흥을 돋운다. 줄다리가 끝나면 줄은 이긴 쪽 차지가 되는데, 승부가 결정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칼로 줄을 끊어 간다. 기지시줄다리는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식의 하나로, 줄다리를 통한 농촌사회의 협동의식과 민족생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초의 마을 의례행사로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지신밟기다. 지신제라고도 하며 특히 우물에서 오래 머물러 우물제·샘제·용왕제와 혼동되거나 또는 같은 것으로 본다. 보령지역의 사례처럼 대보름 하루만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정초부터 보름까지 하는 곳도 있고, 아산지역의 사례처럼 보름부터 2월 초하루까지 지신밟기가 계속되는 지역도 있다. 지역에 따라 칠석날 호미씻이 때나 추석 때도 지신밟기가 행해진다.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에서는 지신제와 ‘홍수매기’(홍수막이)를 겸해서 실시한다.

천안시 수신면 해정리 엄정말에서는 정월 열하루부터 열 사흘날까지 행해지는 ‘도구지미’는 동네 남자들이 주동이 되어 각 가정을 돌면서 터를 다지는 지신밟기의 일종인데, 다른 지역과는 용어도 다르고 내용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터를 다지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충남지역 지신밟기의 성격을 오히려 잘 드러낸다.

정월 초에는 일년 농사를 준비하는 세시풍속들이 등장한다. ‘소고뽕이드리기’도 이러한 성격의 세시풍속이다. 홍성·금산 등 충남의 내륙이나 서부해안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대개는 ‘소고뽕이드리기’라고 한다. ‘쟁기줄 만들기’·‘소줄꼬기’·‘쇠줄 드리기’·‘봇줄 드리기’ 등도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같은 내용이다

정월 열 나흘날이나 보름에 행하는 액땜 관행으로 ‘노두독 놓기’가 있는데, 충남지역에서는 서천군 기산면·논산시 상월면·금산군 복수면 등 주로 남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에 반해 같은 날에 신수가 나쁜 식구가 있을 때에 이를 없애기 위해 행하는 거리제는 거의 충남 전 지역에서 볼 수 있다. ‘노두독’은 노뚫돌, 즉 하마석(下馬石)의 우리말인데 개울 건널 때 밟고 갈 수 있게 징검다리로 놓은 돌의 의미로 쓰였다. 위의 충남 남부지역과 근접한 전북 군산지역에는 이를 ‘노두놓기’라고 하는데, 두 지역 모두 신수가 안 좋은 식구를 위해 액막이 겸 적선(積善)의 의미를 담아 행해온 정월 풍속인 점은 동일하다.

충남지역 어디나 널리 행해지는 보름날 ‘벧가리 세우기’는 충남의 천안과 연기지역, 그

리고 천안과 인접해 있는 충북의 진천지역에서는 ‘보리타작과 벳가릿대 세우기’ 라고 하여 보리농사와 벳농사가 합쳐진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에서는 정월에 머슴을 들일 경우 보름 안에 미리 들인다. 즉 일 년 머슴 살리 들어갈 때는 정월 보름을 주인집에서 쇠게 된다. 직산 군동리 구역말에서도 음력 이월 말일경이 되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므로 그전에 머슴을 들인다. 간혹은 정월에 들어서 밥만 먹여주고 땀나무 일을 시키는 머슴을 두기도 한다. 머슴을 빨리 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농사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지역에서는 겨울철에 머슴에게 시킬 일이 많아 이전 해 늦가을부터 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충남지역에서는 드문 것 같다.

‘목서리 해주기’ 라고 하여 보름밤에 원새끼를 꼬아 복숭아가지와 함께 소의 목에 걸어 주는 풍속도 충남지역의 한 특징으로 여겨진다. ‘소밤참주기’ 도 유사한 풍속인데, 충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천의 의림지 등 충북지역과 전북의 저수지 부근 마을에서 볼 수 있다.

굴이 많이 나는 음력 4월경에 충남 서해안의 섬마을과 해변 마을에서 1950~60년대까지 처녀들 사이에서 행해졌다는 ‘등바루놀이’ 는 선달그믐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행하던 ‘등불 썬기놀이’ 와 함께 일종의 풍어놀이라고 한다. 그런데 놀이가 갖는 의미나 타 지역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다.

떡을 들고 논으로 가서 물꼬 밑과 논둑 밑에 한 덩이씩 놓아두는 유두일의 논고사, 혹은 물꼬고사는 유두 행사의 변형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충남지역에서는 농사력의 하나로서 일정한 의미를 갖게 된 것 같다. 충북지역에서는 참외재배 농가에서 참외제를 지내고 밤에 불을 밝히고 들기름 냄새가 나도록 부침개를 부치는데, 이는 충남지역에서도 널리 퍼져 있다.⁹⁾ 즉 유두일의 논고사는 두 지역을 구분하지만 참외제와 부침개로 기름냄새 피우기는 두 지역을 연결한다.

칠성신을 위하는 7월 칠석(7일)과 농사일이 끝나는 백중일(15일) 사이는 8일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사력에 따라 칠석날 이미 호미씻이를 끝낸 지역에서는 백중보다 칠석날 행사가 더 크다. 천안지역의 경우가 그러한데 백중보다는 칠석날 칠성을 위하는 풍속이 강하여 직산면 군동리 구역말의 경우 칠석에 두레잔치를 열지만 같은 천안의 수신면 해정리와는 달리 백중날에는 머슴에게 용돈을 주고 하루 쉬게 하는 정도로 끝난다.¹⁰⁾

9) 충남 부여, 청양과 공주에서는 이를 여우제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풍속은 여우들이 참외의 단맛을 좋아하여 참외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의 예방책으로 보인다.

충남지역에서는 추석에 천신(薦新) 또는 ‘올벼천신’ · ‘올베천신’ · ‘이른벼 천신’ 이라 하여 아직 충분히 익지 않은 벼를 홀태로 훑어 명석에 사나홀 동안 말린 다음에 도정하여 메를 지어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기도 하고 성주·터주·조왕을 위하기도 한다. 올벼천신은 충남의 경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날이 당겨져 대개 추석전에 하고, 전북지역에 오면 백중 때 행하는 곳도 있다. 일반 벼의 수확시기가 모내기 시점에 맞추어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늦어지는 반면 올벼의 수확 시기는 모내기 시점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남쪽의 올벼 생산이 더 빠르고 올벼천신의 시기도 당겨진 것이다.

경기도와 충청도 등 중부지방 농촌에서 추석날 저녁에 노는 소놀이나 거북놀이는 올벼 생산과 관련이 있는 민속놀이이다. 소놀이는 황해도 지역에서 주로 분포되어 있던 반면 거북놀이는 경기지역에서 행해지던 놀이다. 두 놀이 모두 농사일을 마친 농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이듬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추석 이전에 올벼를 수확하여 추석 음식을 장만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가난한 농가의 청년들이 부농을 상대로 떡 등 먹을 것을 얻고자 만든 놀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놀이들은 충북 진천과 가까운 천안을 비롯하여 그 서쪽의 아산지역과 남쪽의 연기지역 등의 충남 내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병천면 병천리에서는 열 나흘날에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 일찍 저녁을 먹고 남은 오곡밥을 솥 안에 넣어두면 사랑방에 모여서 놀던 마실꾼¹¹⁾들이 주인 몰래 밥을 훔쳐다 먹는다고 한다. 같은 천안의 직산면 군동리에서는 보름날 저녁에 아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오곡밥을 훔쳐다가 연자방앗간에서 먹는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연기군 금남면 대박리의 사례에서와 같이 아홉 번 먹는 밥을 연자방앗간에서 먹어야 효험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즉 충남 남부지역에서처럼 거북놀이가 추석이 아니라 정월보름에 행해지게 되었을 뿐 이것과 아홉 번 밥먹기, 그리고 보름밥 훔쳐먹기 등 세 가지가 단지 형태와 방식에서 차이가 날 뿐 그 동기나 목적 등에서는 서로 상통하는 관행이었던 것이다.

부여·서천 등지에서 7, 8월경에 각 마을의 여자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 매일 밤 모시를 짜면서 노는 ‘모시두레’ 또한 충남의 지역성을 반영하는 세시풍속으로서 특기할 만하다. 충남이

10) 부여군 일대에서도 백중날 머슴들에게 장노자(장에 가서 쓸 용돈)를 주고 하루를 장에 가서 즐기다 오게 하여 머슴들의 명절이라 불렀다.

11)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담소를 즐기거나 놀이를 하던 풍속으로 ‘마실’ 역시 마을을 뜻하여 마을 중심지로 모여들었던 행태에서 ‘마실간다’로 전해오고 있다.

경기나 전라남북도와 공유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의 하나는 모두 서쪽에 바다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어종으로는 조기와 송어가 모두 이들 지역의 문화에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예컨대 조기의 경우 전북지역에서는 ‘조구심니’ 라고 하여 4월에 새 조기가 나면 조상에게 먼저 올리는 의미로 성주 상에 조기와 밥을 차려놓는 천신의례가 있다고 하는데, 경기나 충남지역에도 이러한 천신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송어 역시 서해안 일대에서는 제사상의 필수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② 음식¹²⁾

충남의 음식문화는 내포권과 서해안 섬을 중심으로 한 해안지방과, 강경과 그 주변을 연결해주는 내륙지방으로 크게 나누어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내포지방은 싱겁고 맵게 먹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김치에도 고춧가루를 별로 쓰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굴과 새우젓·조기젓·황새기(황석어)젓을 김치에 넣는 특성이 있으므로 굴짜두기가 유명하고, 백김치에는 새우젓·조기젓·황새기젓을 넣되 멸치젓은 사용하지 않는다. 대두 생산량이 적어 강경권에 비하여 간장·된장은 비교적 담아 먹지 않는다. 간을 낼 때에는 새우젓을 간장대용으로 쓴다. 해피젓(바지락+소금), 새우젓(새우+소금), 박하지(꽃게보다 작고 단단한 게 +소금), 사시랭이젓(꽃게새끼+소금) 등과 같은 거의 모든 젓같은 해산물에 소금만을 넣고 담았다. 그러나 당진의 어리굴젓은 굴+소금+고춧가루이고, 서산의 어리굴젓은 굴+소금+고춧가루+조밥을 넣는 특징이 있다.

내포권을 포함한 해안지방에서는 계절별로 다양한 생선을 먹었는데, 봄에는 중하·새우·삼치·조기·송어를, 여름에는 대하·파래를, 가을에는 새우·전어·낙지·쭈꾸미·준치를, 겨울에는 굴·새우·밴댕이·송어·망둥어·꽃게·김을 즐겨 먹었다. 이들 생선들은 회로 먹기도 하였고, 소금간을 하여 절여먹거나 말려서 먹었다. 제철 생선은 소금을 약간 뿌려서 살짝 말린 다음 찌서 먹는 자반류 외에 말린 생선으로 찌서 먹는 건어물찜이 풍부하다. 술로는 먼천의 두견주와 아산의 연엽주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쌀과 대두 그리고 나물이 귀한 도서지역은 보리밥을 많이 해 먹고, 고추장도 보리나 밀가루에 소금, 고춧가루와 엿기름을 섞어 만들되 메주가루를 넣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음식의 간은 까나리액젓이나 기타 다린 젓국을 간장 대용으로 사용하였다. 해안지방에서는 깨·녹두·

12) 이 부분은 주로 「충청남도지 제18권」의 김상보 글을 인용하였다.

팔·마늘·고추·쪽파·양파·고구마를 많이 재배하므로 쪽파나 마늘·고추 등을 재료로 한 파김치나 마늘쫄 장아찌를 많이 만들어 먹는다. 고추 사용은 내포권보다 비교적 많은데, 특히 마늘쫄 장아찌는 간장에 담는 것이 아니라 까나리액젓에 담는다. 해안지방에서는 나물반찬이 귀하므로 쪽파김치나 마늘쫄 장아찌·양파 등이 나물을 대신하여 밥상에 자주 오른다. 작은 소라새끼를 소금에 절인 무룩젓·조갯살을 소금에 절인 입조개젓, 굴을 소금에 절인 어리굴젓과 같이 젓갈은 해산물에 소금만을 넣고 담는다. 해안지방에서는 뱃고사를 많이 지내기 때문에 무르떡(백설기)·고물떡(팔시루떡) 외에 액막이 떡인 수수경단도 자주 만들어 먹었다.

내포권¹³⁾에 비하여 훨씬 짜고 맵게 먹는 강경을 포함하는 내륙권은 대두·모과·무·곡식 생산량이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공주·대전 등은 목회산지, 한산·부여 등은 모시산지로 부자가 많이 살던 곳이었다. 또 내륙지방은 강경으로부터 금강줄기를 타고 질 좋은 소금과 조기 그리고 각종 젓갈을 비교적 손쉽게 구입하여 조달되었던 지역이었다. 풍부한 소금과 대두가 어우러져 간장·된장·진장·즙장·지름장(지레 먹는 장)·각종 고추장이 발달하였고, 맛 좋은 간장으로 논의 벼포기에서 잡은 논게(참게)를 재료로 하여 젓갈을 담아 만들어 낸 ‘민물게장’이 유명했던 지역이다. 한산을 중심으로 무를 크게 썰어 담근 ‘섞박지’ 김치가 유명했다. 조기젓·황새기젓·새우젓을 김치에 넣었으나 최근 들어 멸치젓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금강으로 에워싸여 있어 먹조개(부여 백마강에서 잡힌 조개)로 만든 먹조개국, 잉어·가물치·붕어로 만든 잉어국·가물치국·잉어회·가물치회·붕어찜을 즐겨 먹었다. 북어는 원산에서 들여와 조선 후기부터 강경포구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여건 때문에 강경주변은 명태(북어) 쫄아찌도 전통음식 중 하나가 되었다. 가을철에는 감을 각종 장에 박아 삭혀 먹는 감장아찌도 유명하다. 금산이 충청남도에 편입된 이후로는 인삼을 재료로 하는 잉어찜(잉어+인삼)·묘삼나박김치(묘삼+소금+오이+실고추)·묘삼나물·묘삼생채도 지역성을 보여주는 음식문화가 되었다. 공주, 회덕, 유성 등지에는 쌀과 찹쌀을 다른 음식재료로 사용하였다. 특히 공주에서는 각두기를 담글 때 예부터 찹쌀풀과 꿀을 넣었으며, 충남 일대에는 찹쌀로 만든 고급 가양주였던 백일주, 송순주, 소국주와 국화주 등이 유명하다. 이상과 같이 생선과 젓갈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한 충청남도의 음식문화는 지역별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명절음식은 그 명칭만으로 보았을 때는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13) 내포권에 대한 공간범위는 문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강경, 부여, 공주까지도 내포(內浦)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헌은 예산, 당진, 서산, 홍성, 보령, 서천에 이르는 지역을 내포지역으로 보고 있다.

(5) 충남의 예술¹⁴⁾

충남은 서해안을 끼고 있는 내포지역과 충청의 젖줄 역할을 해온 금강 유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금강 유역에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동기 유적은 부여 송국리 유적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충남의 역사는 백제문화를 원류로 하고 있다. 일찍이 김부식은 부여의 왕궁터를 돌아보고 검이불루 화이불사(儉而不陋 華而不侈) 즉,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는 말로 백제문화를 총평하였다. 부여에서 1993년 발견된 금동향로에서 알 수 있듯이 백제의 정밀한 기술은 가히 당대 최첨단이었음을 보여준다. 그 수준이 가히 화(華)로 치장되었으되, 분에 넘치지 않았으니(不侈) 이 고장의 절제(儉)와 자연미가 느껴진다.

흔히 백제사, 백제문화는 망국의 한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지구상에 출현했던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로마제국과 몽골제국이 그랬고, 잉카제국과 고대 이집트가 그랬다.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처럼 백제도 망한 것에 불과하다. 고구려도 망하고 신라도 망하고 고려도 망하고 조선도 망했는데, 우리는 유독 백제가 망한 것에 대해 강한 미련과 아쉬움을 갖는다. 그 이유는 찬란했던 백제문화가 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여에서 중흥하던 백제는 전쟁다운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나당연합군의 기습공격에 의해 갑자기 망하였다. 따라서 백제의 멸망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망국의 한은 백제가 패망한 이후부터 불려지기 시작한 「산유화가」에 실려있다. 노랫말은 백제멸망 이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지만, 가락은 이 지방에서 오래전부터 불려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옛 가락에 백제멸망의 한을 실어 노랫말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충남 부여지방은 백제의 옛 도읍으로서 백마강을 끼고 주변에 평야가 발달해 있어서 벼농사가 성행하였다. 「산유화가」 가락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여를 중심으로 형성된 농요의 한 유형이다. 여기에 백제멸망의 한을 담아 노랫말을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근대에 들어서서, 충남의 문화적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시조창(時調唱)이다. 시조창은 대체로 조선 중기 이후 각 지방의 독특한 억양을 따라 발달하게 되었는데, 한양과 경기도 일대에서 불려진 경제(京制), 전라도 일대에서 불려진 완제(完制), 경상도 일대에

14) 이 부분은 주로 임선빈(2008), “충남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서 불려진 영제(嶺制)와 함께 충남의 내포지방을 중심으로 불려진 내포제(內浦制)가 그것이다. 홍성과 서천 일대에서 형성되어 20세기 초 청양과 부여로 전파된 내포제 시조창은 사설을 중심으로 음운이 근중한 것이 특징이다. 즉, 사설의 각 절마다 마지막 운을 눌러 받음함으로써 선비의 근중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라도의 완제 시조창은 목이 감기고, 경상도의 영제는 밋밋하며, 경제는 질러대는 운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전통예술에서 충남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분야는 시조창이다.¹⁵⁾ 시조(時調)는 ‘신조(新調)’, 또는 ‘시절가(時節歌)’로 불렸다. 가락이 소박하고 평이(平易)하며 느린 듯한 장단이지만 소리의 굴곡과 꾸미는 시김새가 부드럽다. 게다가 격조 있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자연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노랫말과 함께 부르는 가락이 어울리는 노래이기도 하다. 3음의 음계에 초·중·종장의 3장에 각 장마다 5박 8박의 장단 형식으로 글자수 3~4자를 슬기롭게 짜 맞추는 노래 솜씨와 글 재주를 함께 만들어 내는 대화의 노래이다.

창법의 종류로는 평으로 부르는 ‘평시조’, 앞머리 첫 부분을 높은 음으로 부른다 하여 ‘지름시조’, 각 음을 길게 부르는 것보다는 한 음에 노랫말이 자주자주 나와 사설을 많이 부른다 하여 ‘사설시조(辭說時調)’, 그 외에도 ‘사설지름시조’ · ‘잔각시조’ 등이 있으나 모두 형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언어가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듯 말을 사용하는 가락이 조금씩 다르게 되기 마련이다. 시조창도 각 지방 사투리가 있듯 강·약, 억양, 표현상의 토착화로 선율 변화와 그에 따른 음악적 특징이 있게 마련이다. 시조는 지방의 언어특색을 인정하며 부르는 성악곡으로 발전하여 경기지방의 시조를 경제(京制), 충청도지역의 시조를 내포제(內浦制), 호남지역의 시조를 완제(完制), 경상도지역의 시조를 영제(嶺制)라 하며, 각 지방의 언어의 특징에 따라 음악의 창법이 조금씩 다르다.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 보면, ‘내포(內浦)’는 서해로 연결된 물길로 배가 드나드는 지역의 ‘내륙의 포구’를 뜻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내포지역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충청도는 내포(內浦)를 제일 좋은 곳으로 삼는다.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이 백리 지점에 가야산이 있고 서쪽은 바다요 북쪽은 경기도의 해읍(海邑)과 한 큰 만(灣)을 사이에 두고 있는 데 곧 서해가 쑥 들어온 곳이다. 동쪽은 대 평야를 이루고 평야 한편에 또한 큰 포구(浦口)가 있는데 유궁진(由宮津, 지금의 아산만 남쪽포구)이라 한다. …… 북쪽에는 결성(鴻성) 해미가 있고 서

15) 이 부분은 주로 「충청남도지 제19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쪽에는 큰 만을 두고 안면도가 있다. 세 읍은 가야산 서쪽에 있고 북쪽은 태안 서산이 있어 강화도와 하나의 작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서루 마주 본다. 서산 동쪽은 오천 당진이고 큰 만을 사이에 두고 아산을 마주한다. 가야산 북쪽의 홍주 덕산은 유궁진의 서쪽에 자리 잡고 포동(浦東)의 예산 신창과 함께 뱃길로 한양에 왕래하면 대단히 빠르다. 홍주 동남은 대홍·청양인데 대홍은 곧 백제 때의 임존성이다.

내포지역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결성·해미·안면도·태안·서산·오천·당진·홍주·덕산·대홍·청양 지역을 기록한 곳으로 볼 수 있으나, 서해의 내륙포구는 금강을 끼고 부여와 공주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택리지에 기록한 바와 같이 내포지역은 포구와 평야가 있어서 물자가 부족하지 않고 서해바다가 인접하여 소금 등의 생산물이 나오는 까닭으로 생활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지역이 외져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지 않고 물자가 넉넉하여 대(代)를 이어 사는 사대부가 많았다. 이러한 내포의 경제적·지리적 조건과 면모는 시조창을 하는 풍류가객들에게 좋은 여건이 되었을 것이다.

충청남도에는 각 지역에 ‘시우회’가 있어 가객의 계보를 알 수 있는 이름이 더러 전해지고 있다. 원래 청양군 미당면의 윤중선은 부여의 소동규로 이어지는 내포제 시조계보로 알려져 있다. 미당과 부여는 백마강을 사이에 두고 내포와 충남 내륙을 이어주는 길목에 해당한다.

내포제 시조의 음악적 특징은 장식하는 시김새, 강약 조절, 모음의 처리가 2장의 첫 부분인 ‘소치는’ (경제에서는 소오 치이느)과 종장 첫 부분인 ‘재넘어’ (경제에서는 자이 넘어) 등 글자 붙임이나 모음을 발음할 때 분리하지 않고, 높은 음을 낼 때 가성을 사용하지 않아 가곡 창법에 가까운 점, 경제(京制)의 고음 황(潢)을 임(林)으로 내려서 부르며 요성(搖聲)이나 전성(轉聲), 퇴성(退聲) 등에서 지방색의 가락표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내포제는 충청남도의 부여·공주·천안·홍성·조치원·예산·청양·서천·보령 등지에서 활발하게 불려지고 있다. 내포제의 특징은 다른 제에 비하여 창(唱)의 고저(高低)와 완급이 자연 합리적인데 이것이 마치 천지의 이치와 같다는 것이다. 내포제를 전승하고 체계화한 명인은 청양의 윤중선으로 그는 덕망과 재질을 겸비하고 평생을 후배양성에 진력하였고 소동규를 수제자로 두었다. 충남에서 전승되는 시조는 경제(京制)와도 다르고 다른 지역 향제와도 달라서 내포제(內浦制)시조 명창이 많았겠지만 가객의 이름만 더러 전해지고 있다. 내포제 시조의 명인으로 청양의 윤중선·강진호, 예산의 윤도영, 서산의 이문교 등 극소수만이 기록에 전하고 있다. 근래에는 윤중선의 수제자인 부여의 소동규가 구전으로만 전승되어 오던 내포제

시조창을 악보로 집대성하고 이를 부활시켰다. 소동규는 개인재산과 일부 찬조를 받아 부여에 우리나라 최초로 시우회관을 건립하는 등 내포제 시조보급을 위해 일생을 바쳤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는 매년 전국의 제자들을 부여 시우회관으로 불러 사제로 내포제 시조강습회(일종의 재교육)를 열어오던 중 1995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타계하였다. 내포제 계보는 소동규의 제자인 김원실로 이어졌고, 김원실이 작고하자 다시 소동규의 제자인 김연소로 이어졌다.

〈표 9〉 충남 내포제 시조창의 전승계보

성 명	내 용
윤 종 선(尹從善)	19세기 말 내포제 시조 명인으로 인정받음
소 동 규(蘇東奎) (초대 인간문화재)	윤종선의 제자로 내포제 시조악보를 집대성하고 최초로 내포제시조 기능보유자(인간문화재 제17호)가 됨.
김 원 실(金元實) (제2대 인간문화재)	소동규의 제자로 내포제 시조 충남 기능 보유자(인간문화재)를 승계함.
김 연 소(金演韶) (제3대 인간문화재)	소동규의 제자로 김원실로부터 충남 기능 보유자(인간문화재)를 승계함.

지금은 충청남도에도 석암제 시조가 널리 알려져 내포제는 몇 곳만을 제외하고는 위축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 무형문화재(제17호 내포제 예능보유자)로 소동규를 지정하여 김원실을 후계자로 두고 내포제 시조의 보급과 연구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5) 충남의 언어(충청도 사투리¹⁶⁾)와 행동양식¹⁷⁾

충청도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억양이 강한 경상도와 전라도와 접하고 있어서 다소 고유 특성을 찾기는 어려우나 타 지역에 비해 어휘자체가 은유적이며 정감이 있고 느긋해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충청도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한반도 북방과 남방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어서 예부터 억양이 혼합된 특성을 보여주었다.

삼국시대엔 이곳이 전략적 요충으로 빈번한 전쟁에 휩싸이곤 하였다. 그 후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개성, 한양 사람들과 교류가 빈번했던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방언이

16) 이 부분은 최종진, (연도미상), “충청도 사투리에 대한 소고”에서 발췌한 것임.

17) 이 부분은 조남준(2001), “충청인의 기질론(월간조선 2001년 12월호)”에서 발췌한 것임.

많이 남아있지 않다. 지금도 그 지역 고유의 방언이 많이 남아있는 곳은 대부분 산간벽지로 외부사람들과의 왕래와 접촉이 없었던 곳으로 자신들의 말을 간직하며 살아온 지방이라 할 수 있다. 방언, 즉 사투리는 산맥과 산천을 경계로 교통, 교류가 외부와 차단된 지역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하겠다.¹⁸⁾

충청도 사투리는 느리다는 평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충청도 사투리의 함축적 의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충청도 사투리는 군더더기 없는 실체어로 느린 행동을 보완해준다. 더하지도, 그렇다고 궁색하지도 않은 선비의 절제된 마음가짐이 충청도 사투리에 녹아 있다.

조선조 숙종 때 사람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擇里志)의 인심조(人心條)에서 충청도 인심을 『권세와 이익에 쏠리는 경향이 짙다(專趨勢利·전추세리)』고 했다. 또 『산과 강이 평탄하고 아름다우며 서울의 남쪽 가까이 있어서 사대부(士大夫)가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는 지리적 여건과 함께 『서울의 세가(世家)들이 이곳에다 전답과 집을 두는 등 생활의 근거지로 삼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풍습이 서울과 가까워서 별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살 곳을 택하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문적 여건을 덧붙이고 있다.

현종 때 실학자 이규경(李圭景)은 「五洲衍文長箋散稿(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충청도 사람의 특징을 『湖西(호서·충청)는 이익과 권세를 노린다(勢利獐麪)』고 평했다. 이중환(李重煥)과 비슷한 견해다. 이 같은 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문제가 없지 않으나, 우리 조상들이 누천년을 두고 겪어온 경험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공감 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충청인을 「전추세리」나 「세리장학」이라 한 것은 이 지역이 조선조 후기 사회를 전횡(專橫)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벼슬아치를 배출한 데에 대한 부정적인 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정된 벼슬을 놓고 경쟁하고 이 과정에서 잠시 머물다 벼슬길에 오르는 모습은 벼슬길이 순탄치 못했던 이중환(李重煥)에게 「전추세리(專趨勢利)」나 「세리장학(勢利獐麪)」으로 비쳐졌을 것이다. 그러나 충남을 드나들던 벼슬아치들은 충남에 오랫동안 머물러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잠시 거쳐하며 기회를 엿보던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추세리(專趨勢利)」나

18) 그 실례로 일본의 경우 작은 현이라도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전혀 틀린 사투리를 구사해 같은 언어군을 형성하여도 서로 알아듣지 못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한함(최종진, 연도미상).

「세리장학(勢利獐麪)」이라는 표현은 진정한 충남 사람의 기질은 아니다. 오히려 충남인은 의리에 어긋나는 경우 과감히 벼슬을 떨치고 초야에 드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한편 충청인의 특징은 「청풍명월(淸風明月)」이라는 성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풍명월이 상징하는 이미지는 ‘맑음’, ‘고요함’, ‘여유로움’ 과 ‘한가로움’ 이다. 충청도 사람들은 언행이 짧았다. 공손하다. 급하지 않다. 서두르지 않는다. 날카로운 면이 적다. 모나지 않다. 두루뭉술하게 아무하고나 잘 어울린다. 무덤덤하고 싱겁다.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온건 보수주의적 성향을 띠게 된다. 충청인의 기질은 물리적 중간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 성향이 짙다.

혹자는 이 지역이 처했던 역사적 상황에서 중립, 무색 성향의 논거를 대기도 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정립시기에는 이 지역이 삼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친 곳이었다. 예컨대 충북 청주 상당산성(上黨山城)의 북쪽은 고구려였고 서쪽은 백제, 동쪽은 신라였다. 그리고 충남 북부를 포함한 한강 일대의 경우, 백제 초기에는 백제 땅이었고, 고구려 전성기에는 고구려 땅, 신라 전성기에는 신라 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의 편임을 쉽게 드러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든, 겉으로는 어느 쪽에도 고개를 숙이고 순응하는 척이라도 해야 생존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순응 잘 하는 기질 때문에 조선조 이후 최근까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는 곳이 충청도였다. 이러한 시간대응방식은 흔히 ‘느림’ 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느림은 순응의 다른 표현이다. 빠름은 선수치는 것이고, 주도권 쟁탈에 앞장서기 위한 시간활용방식이며 흔히 줄속으로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 즉, ‘느림’ 은 여유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한 여유는 상황을 온전한 파악하기 전까지는 기존 맥락을 흔들리지 않는다.

3) 충남의 문화정체성 관련 연구동향 검토의 시사점

충남의 문화정체성은 지역의 역사, 인물, 유물과 유적, 세시풍속과 신앙, 음식, 예술, 언어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를 통해 내부의 동일성과 항상성, 그리고 외부와의 차별성을 포함하고 있다. 충남의 역사는 유구하되 일단 이롭다고 판단한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성이 있고, 충남의 인물은 자신에겐 엄격했지만 남을 배려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며, 큰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충의정신을 타고 났다.

충남의 자연환경은 금강이 내륙사이를 가로 지르며 흐르고 있고 산지와 그 사이에 평야가 펼쳐지고 있다. 또한 충남은 서해 바다가 섬과 해안으로 연결되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에서 비롯한 충남문화 정체성은 온화함과 원만함이다.

이러한 지역적 토양에서 충남의 문화적 전통의 맥은 백제문화로 구현된다. 백제문화는 토기의 경우 온화한 인상을 주면서 모두가 섬세한 기교로 마무리되었고 또한 백제의 석탑은 목조 건물을 연상하게 하는 기법과 절제된 단순미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웅진시대 무령왕릉의 출토 유물의 참신한 조형감각과 원숙한 구조술 등은 같은 시기의 신라나 고구려의 유물에 비하여 그 세공기술이 앞서고 있다. 사비시대에는 불교문화가 융성하였고 불교는 시대를 이끌어 갈 지도이념으로 작용하며 이에 수반되는 각종 조각과 예술의 발달도 촉진시켰다. 백제의 불교미술품 중의 백제 불상은 시기나 양식에 따라 그 특징이 달라지지만 불상의 미소는 근엄하기보다는 고졸한 미소이며 600년을 전후한 시기의 상당수의 불상들은 백제 특유의 특징 이른바 백제미를 창조하였다.

백제의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으나 ‘바다와 강을 이용 할 줄 안 사람들의 문화’ 라 할 수 있다. 바다와 강은 문화의 수용과 교류 전파의 길이다. 이 바다와 강을 통하여 백제는 중국남조의 선진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이를 꽃 피울 수 있었다. 백제문화는 개방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신라나 고구려의 그것을 훨씬 더 능가한다.

개방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백제인들은 외래의 새로운 문화요소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진취적으로 받아들여 주체적으로 소화시켜 자기 것으로 표현하였다.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문화요소를 자기의 것으로 변모시키는 정신은 오늘날의 독창성이나 주체의식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능력의 수준은 일본에의 문화전파능력과 더불어 삼국통일이후 신라의 예술에 기여한 백제인들의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시조온조왕 15년 춘정 월조) 백제 시조 온조왕 15년의 기사이다. 기원전 4년에 해당하는 시기로 그해 춘정월(春正月)에 새로운 궁궐을 지었을 때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백제문화의 본질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현이다. 이러한 백제문화의 맥을 이어오는 충남의 문화정체성의 특징은 독창성과 주체의식을 지닌 개방성과 다양성이다.

또한 충남에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와 국가적 환란기에 저항정신을 보여준 인물 그리

고 조선시대 특색 있는 한국의 유교문화를 이룩해 낸 대학자 등 다양한 인물이 많이 있다. 충청지역에서 절의와 저항정신은 백제부흥군의 부흥운동으로부터 하여 조선시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와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충남의 인물을 분석하여 보면 충남은 역사적으로 유교문화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충남유교문화의 특성은 학문의 자유분방한 개방적 학풍과 다양성이었고 또한 예(禮)문화의 창출과 수준높은 문화의 향유로 인한 충청도가 예의 고장이라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의리적 도학풍의 진작으로 이러한 정신은 사회적 정의실현을 강조하는 의리적 실천을 포함하고 있다.¹⁹⁾

충남의 인물을 통하여 규명할 수 있는 충남문화의 정체성은 개방성과 다양성, 예의 고장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의리적 실천적 정신이다. 이러한 충의 정신은 백제 계백의 정신에서도 알 수 있다. 계백의 충의 정신은 단지 전투에서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에 한정하지 않고 도의(道義)에서 벗어나지 않는 관용의 정신을 보여주는 진정한 충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²⁰⁾

앞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충남의 유물과 유적은 검이불루 화이불사(儉而不陋 華而不侈)로 표현된다. 즉,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아니하다. 군더더기 없는 절제미가 충남의 유적에서 느껴진다. 이러한 느낌은 언어 즉, 충청도 사투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충청도 사투리는 느리다는 평을 많이 받아 왔지만 충청도 사투리의 함축적 의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충청도 사투리는 군더더기 없는 실체어로 느린 행동을 보전해준다. 더하지도, 그렇다고 궁색하지도 않은 선비의 절제된 마음 가짐이 충청도 사투리에 녹아 있다.

충남의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여유’이고, 충남의 격식은 남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이며, 충남의 운율은 거드름이 아니라 진정성을 전하기 위한 확신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시조창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홍성과 서천 일대에서 형성되어 20세기 초 청양과 부여로 전파된 내포제(內浦制) 시조창은 사설을 중심으로 음운이 근중한 것이 특징이다. 즉, 사설의 각 절마다 마지막 운을 눌러 발음함으로써 선비의 근중함을 표현하고 확신을 표현한다. 이에 비해 전라도의 완제(完制) 시조창은 목이 감기고, 경상도의 영제(嶺制)는 밋밋하며, 경제(京制)는 질러대는 운으로 알려져 있다.

19) 황의동(2004), “충남유교문화의 특성과 위상”,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3집. pp5-17

20) 강종원(2003), “계백의 충의정신과 그 계승”,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2집. pp171-190

이외에도 충남의 정체성 연구로는 충남정신의 뿌리와 실체(충청남도, 1991)로 이 연구에서는 충남의 역사와 지정학적 고찰, 충남의 문화로 백제문화와 전통문화, 충남의 충효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예의정신, 개척정신 등 5대 정신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충남정신의 현대적 역할로 정치적 중용, 경제적 선진, 사회적 안정, 문화적 창조 등과 2000년대를 향한 충남의 위상과 미래상으로는 서해안 개발, 중국과의 교역, 도청이전, 도민정신의 고취 및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충청지역의 사회의식과 지역정체성(이재열 외, 2004)에서는 지역정체성의 분석 기준을 마을단위, 시군단위, 권역단위, 도별 분석 등으로 하고 있다. 지역간 관계의 특성으로 연결망 분석과 지역정체성, 지역주의와 정체성으로 충청도 상징구조와 고정관념의 형성, 의식조사에 나타난 충청도 이미지, 충청도 사람들의 자화상과 타화상, 충청도지역 내 사회의식의 분화, 정보의 생산 유통과 지역정체성 등을 밝히고 있다.

3. 문화기반시설 관련 이론 고찰

1) 문화 환경의 개념과 분류

문화 환경은 문화와 환경의 복합어로 그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문화적 환경(cultural environment)’ 과 ‘문화를 위한 환경(environment for the culture)’ 으로 볼 수 있다.

‘문화적 환경’ 은 문화화(encultuation)-즉 인간이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형성, 습득하는 과정-된 환경으로서, 보통의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고 가꾼 평범한 환경을 가리킨다.

‘문화를 위한 환경’ 은 어떤 특정한 문화 창작활동과 향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조성한 환경으로 일상 환경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예술적 지적활동이 주가 되는 특정문화를 위한 환경에 국한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 즉 공간문화와 생활문화 등이 이로 정의될 수 있다.

문화 환경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보통 환경일 것이며, 문화 환경을 매개로 하여 펼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콘텐츠 또한 일상성이 강조될 것으로 본다.

문화환경은 문화를 위한 환경으로서의 문화시설과 문화적 환경인 일상생활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지구, 문화산업단지, 문화마을, 문화도시, 문화벨트 등이 지역 문화 환경을 확충하고 생활공간에서 문화향수를 위한 문화 환경으로 구분한다.

문화 환경 조성에 있어 문화시설, 문화지구, 문화의 거리, 문화도시, 문화벨트 등 선(線)의 개념이나 면(面)의 개념으로 연결되어 공간 간의 관계성이 형성된다.

(1) 문화시설 : 공연전시 및 문화보급, 전승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가리킨다. 공연, 도서, 지역 문화복지, 문화보급 전수 및 기타 용도에 쓰이는 시설이다.

(2) 문화지구 :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개념으로 문화예술자원이 밀집되어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지구 형태의 유형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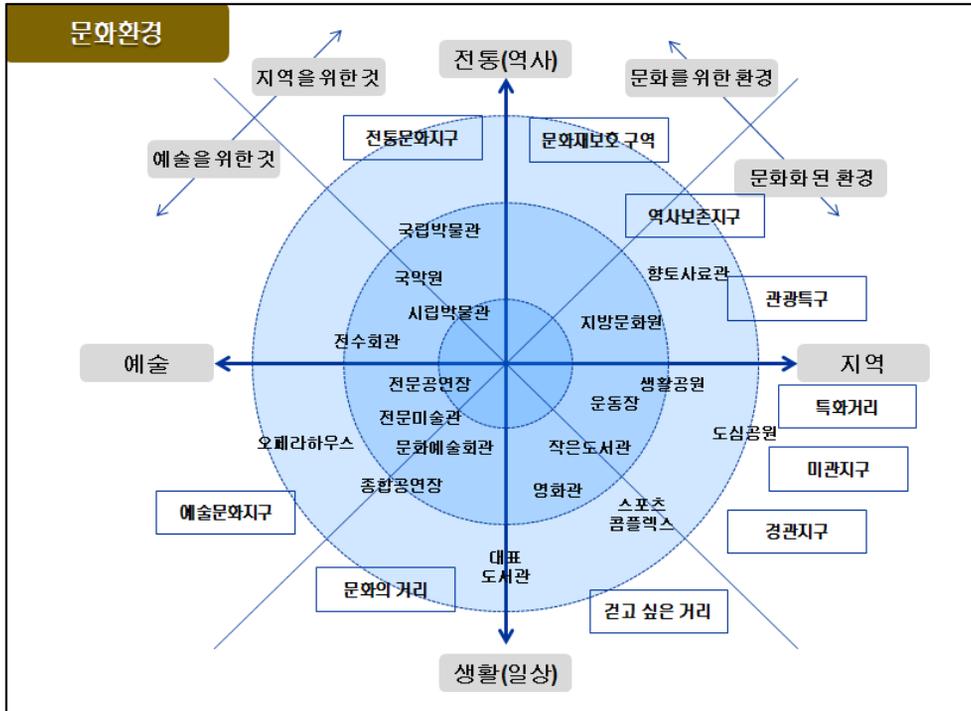
- ①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예술자원이 밀집되어있는 전통문화예술보존지구
- ② 문화예술관련 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앞으로 자치단체가 계획적으로 이러한 문화시설을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문화지구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문화시설지구
- ③ 문화 관련 업종이나 문화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하는 문화산업지구
- ④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이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그 지역의 문화 환경을 보존하거나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예술행사 지구 등이다.

문화지구는 도시공간을 가로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로를 포함한 인근지역 전체를 맥락차원에서 접근하여 보다 공식적으로 제도적인 차원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문화의 거리’ 보다 폭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표 10〉 문화환경의 형태와 유형

구 분	형태와 유형	
	형 태	유 형
문화환경	점적인 시설영역	• 공연장, 전시장, 공원 등의 시설
	면적인 지역영역	• 문화지구, 관광특구, 특화거리 등
	축제이벤트영역	• 예술축제, 스포츠행사, 전통문화행사, 거리축제 등

[그림 4] 문화환경의 영역과 범위



자료 : 나도삼 외(2006), 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3) 문화의 거리 : 거리 개념을 중심으로 일정 지역의 점적인 문화요소를 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한 문화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지구보다는 공간적으로 협소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4) 문화 도시 : 풍부한 문화자원과 문화시설 등 문화적 기반을 구비되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갖춰진 도시를 의미한다. 문화도시 내에는 일반적으로 문화지구, 문화거리, 도시문화벨트가 1개 이상 존재하며 전반적인 문화적 주제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적 공간이라 볼 수 있다.

(5) 문화벨트 : 문화적 특성을 지닌 지역이나 문화시설 등 문화거점지역을 연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외래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벨트 내에는 문화공간조성,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가로수, 도로, 간판, 색채, 편의시설 등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문화탐방로 및 소규모 상설 이벤트장(공연상설화) 등을 형성한다.

2) 문화 환경의 구성요인

문화 환경이 문화를 위한 환경과, 문화적 환경을 포함한다고 할 때, 문화적으로 세련된 일반 생활 환경과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일반 생활환경도 이 범주 안에 포함된다.

이러한 문화 환경은 다음의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접근성 : 사전적 정의로 발생 지역으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거리, 통행시간, 매력도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문화공간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다.

“모든 시민은 어떠한 장소나 서비스, 정보에도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또한 각기 다른 집단마다 자신들의 특수한 요구를 자연스럽게 표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세계도시 계획현장 ‘메거리드현장’ 중)

(2) 개방성 : 개방성은 태도나 생각 따위가 거리낌이 없고 열려있는 상태나 성질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공고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사람들은 폐쇄성과 개방성이라는 이중적 복합적 공간지가 심리가 있다. 개방성은 탁 트인 공간이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공공영역에서는 특히 공간이용자의 이용시간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3) 연계성: 어떤 것이 다른 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는 연계성은 공간이나 시설간의 연계, 거리간의 연계, 프로그램 간의 연계이다. 지역과 시설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면 그 공간은 자연스럽게 활성화 될 수 있다.

(4) 쾌적성: 어메니티(Amenity)의 어원은 쾌적함, 기쁨(pleasantness)과 동의어로 라틴어인 아모에니타스(amoenitas)의 쾌적함, 기쁨(pleasant)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었다. 어메니티는 단순히 하나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치를 지닌 총체적인 카탈로그이다. 그것은 예술가가 눈으로 보고 건축가가 디자인하는 아름다움, 역사가 낳은 상쾌하고 친근감이 있는 풍경을 포함해 일정한 상황 하에서 효용, 즉 있어야 할 것(가령 주거, 따뜻함, 빛, 맑은 공기, 집안의 서비스 등)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 또는 전체로서의 쾌적한 상태를 말한다.

(5) 조화성 : 서로 모순됨이나 어긋남이 없이 잘 어울린다는 의미로, 건축물과 환경의 조화나 건물이 위치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실내 환경과의 조화, 사인물과 건축 환경과의 조화 등 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요소이다(심재연, 2004).

3) 문화서비스의 개념과 역할

(1) 문화서비스의 개념

문화서비스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있는 유·무형의 재화, 즉 문화자원(문화적 내용 또는 표현)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여, 문화정보 서비스는 문화생활과 문화의식이 반영된 고유의 문화자원을 문자, 소리,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상으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말한다. 박물관, 문화유적지, 영화관, 미술관, 도서관, 관광지, 공연장, 유원지, 체육시설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제반 서비스가 바로 문화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화서비스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문화산업의 분류체계를 보면 영화, 음반, 게임, 출판, 방송, 디자인, 광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영화, 음반, 게임 등이 바로 문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문화서비스의 주체이기도 하다.

문화서비스는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반활동이며, 문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게 다가가는 서비스이다. 특히 대도시에 비하여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주민의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의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선택 받은 소수를 위한 공간이라는 제한된 이미지를 벗어나 소외 계층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된다.

(2) 공공서비스로서의 문화서비스 공급

공공문화서비스는 공공기관이 문화자원을 제공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문화자원의 소유·제공 주체는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들의 유관 기관, 비영리 공익기관, 공공성을 갖는 민간단체, 개인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문화 활동 중에서 영화, 대중예술 공연, 서적 등과 같이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문화서비스는 일반적 공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비경합(non-rivality), 비배제성(non-exclusiveness), 외부효과(external effect)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시장에서 공급되어질 수 없는 성격을 띠는 것들이 많다. 이를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인 ‘사회재’라고 하며, 한편 문화서비스는 교육 등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를 통하여 공급·소비되어지는 양보다 훨씬 증가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가치재’ 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적 목적의 도시공공서비스이자, 단순 사회재가 아니 가치재로서의 문화서비스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무작정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이나 상당수의 가치재가 그러한 특성을 가지겠지만, 문화의 논리에 따른다면 문화서비스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시민들이 문화소비를 줄일수록, 도시정부는 문화시설이나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육성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3) 현대사회와 문화서비스

현대사회에서 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 상관 없이 종래에는 문화·예술 활동을 소비재적인 성격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현대 국가들은 문화를 소비재적 성격과 생산재적 성격을 함께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정책적으로 개입한다. 다시 말해서 후기 산업 국가에서 문화서비스는 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양자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를 개인차원의 것으로 간주하던 소극적 인식을 벗어나 적극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문화서비스 공급의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수요와 공급의 상충작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중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문화시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정책논리가 개발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와 관광은 생활의 급박성이나 생물적 삶을 좌우하는 부문이라기보다는 제반여건의 평균적 향상에 따라 인간이 선택하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나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시설제공이나 여건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서비스의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신규 문화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나타난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인다.

종래에는 문화하드웨어를 충실히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문화서비스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었다면 그의 활용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국가에서는 복지개념의 적극적 해석과 함께 소위 문화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문화소프트웨어의 공급도

중요한 역할의 하나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문화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서비스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가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풍요로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선진국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이제 개인들은 삶의 질에서 인생의 질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적인 풍요를 느끼고 싶어 하는 문화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문화서비스는 유통업계는 물론 공공 문화예술기관으로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지방 박물관은 야간무료 개관을 실시하고, 어느 기관은 고객을 위한 문화서비스 공공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 고객참여 서비스나 고객눈높이 서비스 등을 추진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는 현실이다. 이처럼 문화서비스는 사회 전반적인 추세로 서비스업계에서 더 확대 재생산돼 수요자 중심 또는 고객 중심의 문화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문화서비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문화정보화는 수요자 중심, 정보 이용의 평등성, 지역 및 공간의 상호소통, 인터넷의 활성화, 웹서비스와 연계, 정보디지털화로 인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지역 경쟁력도 높이고 문화서비스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된다. 좀 확대해 다른 나라 문화정보망 활용도 대부분 정보의 접근 편의성과 참여 등을 유도하고 기구 간 네트워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교환, 정보의 디지털화 등을 꾀하고 있다. 이런 문화정보화로 특정한 공간 혹은 특정한 사람의 정보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정보로 존재하며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4) 문화서비스의 구조와 문화정체성과의 관계

문화서비스는 사회서비스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문화복지를 포함한 문화부문의 사회서비스는 크게 공급, 매개, 수요로 구분된다.

공급이란 일반인의 문화서비스 향유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그 관리, 운영 그리고 해당프로그램을 말한다. 즉, 사회서비스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지기 위한 시설, 운영, 프로그램 등은 문화서비스의 공급부문으로 볼 수 있다.

매개란 문화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요자에게 문화서비스 공급의 전

달·홍보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이 해당한다. 즉 문화서비스가 실수요자에게 전달되어 지는 가교역할을 하며, 문화서비스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전달체계가 포함된다.

수요는 수요자들을 위한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이나 문화서비스 향유와 기회증진을 위한 것들이 포함되어 일반부문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서비스의 주요 대상으로 모든 계층에 대한 문화향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부문의 사회서비스는 문화부문, 관광부문, 체육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서비스의 공급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이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역단위의 문화전략을 단순히 문화복지 보다는 문화적 환경개선을 통하여 문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증가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기반을 다양화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허지정·최막중(2009)은 지역의 문화서비스 공급이 가계의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수준모형을 적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서비스 공급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구의 문화소비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이 경제적 재생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역의 문화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희서·최석중(2009)에 의하면 문화소비활동은 거주지역간 편차가 높게 나타나는데,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반면 지방중소도시 그리고 보다 더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로 내려갈수록 문화소비의 수준의 차이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문화서비스 공급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과 같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나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상업적, 비영리적 문화활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해야한다. 시장의 질서가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정책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문은 매우 한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문화서비스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해야하는 부문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문화행정의 지방화가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 지역고유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문화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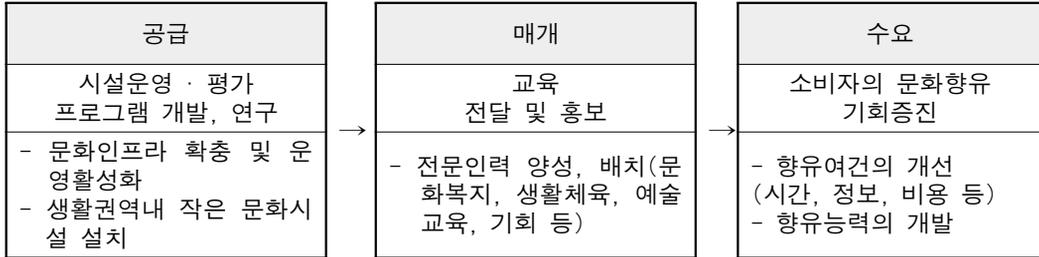
문화예술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는 시장의 논리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시장의 논리로만

이해되지 않는 준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의 공급이라는 의미는 상업적 공급 뿐 만 아니라 공공적 공급까지를 포함한다. 지역단위에서 문화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전달체계의 문제로 귀착되며 어떤 문화를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에게 남겨두더라도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공급하고 이것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문화서비스 제공방안에 정책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서비스의 공급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이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역단위의 문화전략은 단순히 문화복지보다는 문화적 환경개선을 통하여 문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증가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기반을 다양화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자하는 기대를 전제로 한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지역의 문화서비스 공급이 높아질수록 가구의 문화소비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 기반형 도시재생이 경제적 재생으로 연결가능하며 지역의 문화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서비스 공급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나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상업적 비영리적 문화 활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야한다. 시장의 질서가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정책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한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문화서비스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해야하는 부분은 많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문화행정의 지방화가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 지역 고유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문화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²¹⁾(정명희 외, 2010).

21) 정명희(2010), 전라북도 서민층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방안,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요약 재정리.

(그림 5) 문화서비스의 구조



자료 : 정명희(2010), 전라북도 서민층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방안, 전북발전연구원.

4) 문화기반시설의 개념과 유형

문화기반시설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삶의 다양성, 다양한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문화 활동의 과정이나 결과가 나타나는 총체적 공간이다. 문화기반 시설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보다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정신적 활동의 중요한 표현이고 결과물로서 사회관계 형성과 지역사회의 이해 확대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의미의 중요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시설 및 산업시설로서의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다(김원태 외 2001; 이원태, 2004).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시설을 공연, 전시, 문화보급 및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에서 구현되는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물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이러한 문화시설은 문화 활동의 창작, 교류, 집적, 전달 등이 이루어지는 소통의 공간으로서(라도삼, 2004; 이원태 외, 2004), 지역주민과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장소이다.

문화기반시설의 기능은 사회적 기능, 경제적 기능 그리고 환경적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김원태 외 2001; 손경년, 2002; 이원태 외, 2004).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적 의식과 문화향유의 형성, 문화격차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의 문화교육의 장소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은 지역문화의 발전, 창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지역의 성격과 문화적 특색이 결합하여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문화적 다양성이 형성되는 경제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및 장소라 할 수 있다. 문화기반시설은 지역 공동체가 요구하는 문화적

욕구와 기대를 문화공간의 적절한 기능과 역할을 통해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문화 공간 활성화의 효과는 지역주민의 향유권 증대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자발적인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문화기반시설은 지역문화 활동의 창출 및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의 역할을 수행한다. 법적 체계에 의한 문화시설은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일 뿐 장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문화시설을 현실적 여건에 맞춰 설치목적, 기능, 시설형태, 운영 방식, 시설형태, 시설규모에 따라 재분류 할 수 있다(라도삼, 2004; 양정필, 2006).²²⁾

〈표 11〉 시설규모에 따른 문화시설의 기능과 역할

시설의 기능		시설규모			
			대규모	중소규모	생활권 시설
창조의 공간	창작과 생산활동, 감상과 교육활동	시설 단위	거점단위	예술시설	생활문화시설
		설치 단위	국가·도시	민간	공공
교류의 공간	예술적 가치의 교류와 상호작용	설립 주체	국가·광역자치단체	민간기업·재단	기초지자체·지역개발사업자
집적의 공간	흡입과 발산의 창구	시설 입지	거점지역(상징 지역)도심이나 밀집지역	밀집지역, 도심	생활권(기초지자체별)
전달의 공간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전수활동	주요 역할	주요장르의 발표/전시 세계화의 교류	예술품의 발표/전시, 소비자와의 교류	문화교육 및 체험시민과의 교류
		주요 기능	국가적인 문화력 상징	예술의 시장적 가치 창출	시민문화권 형성

자료 : 라도삼(2004),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양정필(2006), 문화기반시설 건립 관련 법규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를 이동기 외(2007)에서 재인용.

지역문화시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문화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활력 있는 지역문화 활동과 더불어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와 경제활동의 실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문화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의의

22) 이동기 외(2007), 전라북도 문화기반시설 확충방안,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재인용.

가 있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의무와 책임도 요구되어진다.

문화시설은 문화의 개념이 다양한 만큼이나 여러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 문화를 예술이라는 좁은 의미로 규정한다면 문화시설은 예술시설과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 활동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행위·관습·규범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문화시설은 복지시설에서부터 교육시설·사회문화시설·종교시설 등 매우 광범위한 시설들을 포함하게 된다(김세훈 외, 2001). 문화시설은 문화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의 창의성이나 감수성 계발과 그것의 다양한 형태로의 표현 및 감상이 상호 교환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공간 및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지역문화시설은 지역시설과 문화시설의 두 가지 개념을 근거로 지역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공동체적 지역문화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시설로 구현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지역단위의 결속력이나 생활환경에 대한 정비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도시 및 지역단위의 생활 단위에서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이를 수행해 줄 지역문화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생활 수준의 향상과 지역문화의 확립이 제고될 것이다. 문화시설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창의적 행위가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문화 창작·향유 활동을 통하여 다른 삶의 모습이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사회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문화시설은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질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시설의 역할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 첫째, 지역의 문화예술 자체가 발전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향수될 수 있게 한다. 둘째, 실재하는 지역문화의 발전으로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일정한 전달매체 및 물리적 시설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문화시설의 개념에서 유추하여 지역내 활동공간을 문화공간화 하기 위한 개념으로 ‘문화를 위한 공간’ 과 ‘문화화 된 공간’ 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의 설정은 지역의 문화적 행위를 수용할 수 있고 이것이 실체화된 것으로 지역문화시설의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최지원, 2010).

문화기반시설의 법적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나타난 우리나라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 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기타 등 총 6개로 분류된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연주회, 무용,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도서관은 개정된 <도서관법> 제2조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서관은 설립 주체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국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분류되며,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 문고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도서관법 제22조(지역대표도서관)에 의하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해당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 도서관을 설립·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도립 도서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표 1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별표 1〉 문화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개정 2008.2.29〉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문고: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그 밖의 문화시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표 13〉 법적체계에 의한 문화시설 분류

구 분	문화의 집	문예회관	문화원
목 적	- 지역생활권내에 조성된 지역민 대상 문화교육·체험을 위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	- 공연·전시·행사를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문화 공간	- 지역 향토문화 연구 및 지역문화 행사를 개발·보급하는 법인
근 거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조2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조의2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기 능	- 청소년·노인·주부 등 계층별 문화교육 체험공간 - 꽃꽂이·생활도예·서예·가요·컴퓨터강좌·사진강좌·한문교실·창작동요·종이접기·풍물교실 등 소규모 문화프로그램 운영	- 연극, 무용, 오페라 등 공연 행사 및 전시회 개최 - 지역행사, 학술행사 등 장소 활용	- 지역향토문화 연구 및 사료 수집·보존 - 지역문화행사 개최 및 문화강좌 실시
현 황	- 전국 165개소	- 전국 150개소	- 전국 224개소
시 설 내 용	- 인터넷·비디오·CD부스·문화창작공간·문화강좌공간·문화체험공간(서예·도자기) 등 100평 내외	- 공연장(300~1,000석 이상), 전시장(200~500평 규모)	- 향토자료실, 교육공간(100평~200평)
관 리 주 체	- 지방자치단체 * 일부 민간위탁 운영	- 지방자치단체 * 일부 민간위탁 운영	- 사단법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

자료 : 이동기 외(2007), 전라북도 문화기반시설 확충방안,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재인용.

공연장은 <공연법>에 의해 규정된 시설로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 때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에 의해 규정된 시설로서, 박물관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의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을 말한다. 문화의집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령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조2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지역 생활권내에 조성된 지역민 대상 문화교육·체험을 위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을 일컫는다(이동기 외, 2007).

따라서 본 연구대상의 문화기반시설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 중에서 비교적 공공성의 기능과 성격이 크다고 판단되는 시·군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복지회관, 문화원, 청소년회관, 공공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문화의 집 등으로 하였다.

5) 문화기반시설과 향유실태 등의 관련 연구 동향

문화서비스 및 향유와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향수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와 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 등이 있다.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그리고 2006년부터는 2년 주기로 ‘국민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문화적 삶을 누리고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 내용은 ① 예술향유(관람 및 창작), ② 문화예술 교육, ③ 문화시설이용, ④ 문화관련 자원봉사 및 동호회 활동, ⑤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⑥ 지역축제 관람, ⑦ 사이버 문화 활동 및 매체이용 예술 감상 등임. 그리고 응답자의 집단별 속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 연령,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에서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법’ 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예회관 등이 있다.

- 공공도서관 : 시설규모, 자료현황, 직원현황, 운영예산, 이용현황 등
- 등록박물관 : 등록자료, 소장자료, 관람료, 관람시간, 편의시설 등
- 등록미술관 : 등록자료, 소장자료, 관람료, 관람시간, 편의시설 등
- 문예회관 : 공연장 및 전시장 규모, 관람자 수 포함 운영실적 등
- 문화원 : 시설규모, 운영프로그램, 참여자 수 등
- 문화의 집 : 시설규모, 운영예산 이용자 현황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라북도 문화향수실태 및 수요조사(전북발전연구원, 2007), 전라북도 문화기반시설 확충방안(전북발전연구원, 2007), 부산시 문화지표 연구(부산발전연구원, 2010), 울산지역 시민의 문화지수 측정과 문화향유 실태분석(울산발전연구원, 2009) 등의 관련 연구

가 이루어졌다.

전라북도 문화향수실태 및 수요조사(전북발전연구원, 2007)는 전라북도민의 문화의식, 전라북도 문화기반시설 이용, 문화활동, 여가생활, 지역축제, 문화유산 관람 및 예술관람, 문화예술 교육, 체육활동, 문화정책수요,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조사·분석 하였다.

전라북도 문화기반시설 확충방안(전북발전연구원, 2007)에서는 전국문화시설기반총량과 동일하게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과 문화예술공간으로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화랑),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국악원, 지역복지시설 등을 시군별 분포와 문화기반시설의 최소기준에 의한 시군별 과부족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부산시 문화지표 연구(부산발전연구원, 2010)에서는 6대 영역으로 문화자원, 문화시설, 문화산업, 문화지원, 문화활동, 문화향유로 구분하였다.

- 문화자원 : 역사자원, 해양자원 생활자원
- 문화시설 : 전시시설, 공연시설, 전수시설, 복합문화시설, 대안문화시설, 문화복지시설, 생활문화시설, 여가문화시설
- 문화산업 :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산업
- 문화지원 : 재정지원, 행정지원
- 문화활동 : 예술활동, 문화인력
- 문화향유 : 부산시민 문화수요조사(여가생활, 문화프로그램참여, 문화시설이용, 문화의식, 문화정책의식 등)

울산지역 시민의 문화지수 측정과 문화향유 실태분석(울산발전연구원, 2009)에서 문화지수 측정 항목은 6개 항목의 문화유산(문화재, 박물관) 이용 및 관람, 전시 및 예술행사 관람, 체육 및 수련시설 이용, 여가활용, 대중문화 향유, 도서관 이용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지역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는 충남 정체성 연구(소진광 외, 2010) 등이 있으나 문화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충남 문화정체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타 시도의 문화향수 실태와 수요조사는 각 지역의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설문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주민수요에 대한 설문조사와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화지표 또는 문화지수 측정을 위해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문화지표 체계와 지수를 산출하고, 주민 설문조사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지표를 분석하고, 결과를 정책적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표 14〉 선행연구와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 차별성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충남 정체성 연구	지역정체성의 지역경쟁력 강화 논리 개발	문헌연구 정성분석	충남 정체성을 시간함수와 공간함수로 구분, 지표개발
	전라북도 서민층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문화서비스 제고 방안	전북 서민층 문화향수 실태분석 및 문화서비스 제고방안 제시	문헌연구 주민설문	문화복지와 문화서비스 체계, 전라북도민의 문화향수 실태 및 문화서비스 실태, 서민층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전라북도 문화향수실태 및 수요조사	전북 문화향수 실태 및 수요를 조사하여 문화정책 기초자료 수집	주민설문조사 및 분석	전북도민 문화의식, 여가생활, 문화유산 및 예술관광, 문화활동, 문화기반시설이용, 체육활동, 지역축제, 문화예술교육, 문화정책 수요조사 분석
	전라북도 문화기반시설 확충방안	전북 문화기반시설 현황 및 욕구분석과 기정책 기초자료 제시	문헌연구, 주민설문, 공무원수요	전북 문화기반시설 현황, 문화기반시설 관련 설문조사, 문화기반시설 확충방안
	부산시 문화지표 연구	부산의 문화지표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정책활용 자료 제공	문헌연구, 전문가조사, 시민설문	부산 문화지표 체계 및 구성, 문화지표 조사 결과 분석, 정책과제별 지표분석
	울산지역 시민의 문화지수 측정과 향유 실태분석	울산시민의 상대적 상위 문화항목 발굴과 정책기초자료 탐색	문헌연구, 시민설문	문화 및 문화향유가치, 문화지수 산출, 울산지역 시민의 문화향유 실태분석
본 연구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를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주민과 담당자 실증조사분석을 통해 과제도출 및 정책자료로 제공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를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주민과 담당자 실증조사분석을 통해 과제도출 및 정책자료로 제공	문헌연구, 지역주민과 담당자설문조사 실시	충남 문화정체성 고찰, 충남 문화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정책도출, 충남 도민문화향유를 위한 정책추진방안 제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실태 조사 분석을 연구범위로 한정하고, 충남 문화정체성 고찰, 충남 문화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정책과제 도출을 통해 충남 도민문화향유를 위한 정책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5. 문화정체성과 문화기반시설의 관계 정립

문화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은 역사적 사실, 역사의 현장, 역사적 인물, 역사적 유물과 유적, 민속, 축제,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음식 등이 있다. 이와 연계하여 충남의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영향요인으로는 지역의 역사, 역사적 인물, 유물과 유적, 세시풍속, 음식, 예술, 언어, 행동양식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6) 문화정체성과 문화기반시설의 관계 정립 개념도

문화정체성 요인					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정체성의 문화기반시설 연계성
문화 정체성 구성요인		충남 문화정체성 영향요인			연구대상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기반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역사 정체성	역사적 사실	지역의 역사				
	역사의 현장	역사적 인물			문화예술회관	
	역사적 인물	유물과 유적			박물관	
	역사적 유물과 유적	세시풍속			미술관	
문화 정체성	민속	축제	문학	음식	복지회관	행사 및 프로그램
	연극	영화	미술	예술	문화원	
	음악	무용	음식	언어	청소년회관	
				행동양식	공공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문화의 집		
						역사 및 유물 박물관
						인물 및 예술공연 문예회관
						인물 및 예술전시 미술관
						풍속 및 음식 전수관
						예술 및 풍속문화의 집
						역사유물 전시회
						인물과 예술 공연
						역사, 인물, 음식, 예술 축제 및 이벤트
						인물 및 예술인 음악회
						역사 및 인물 연극과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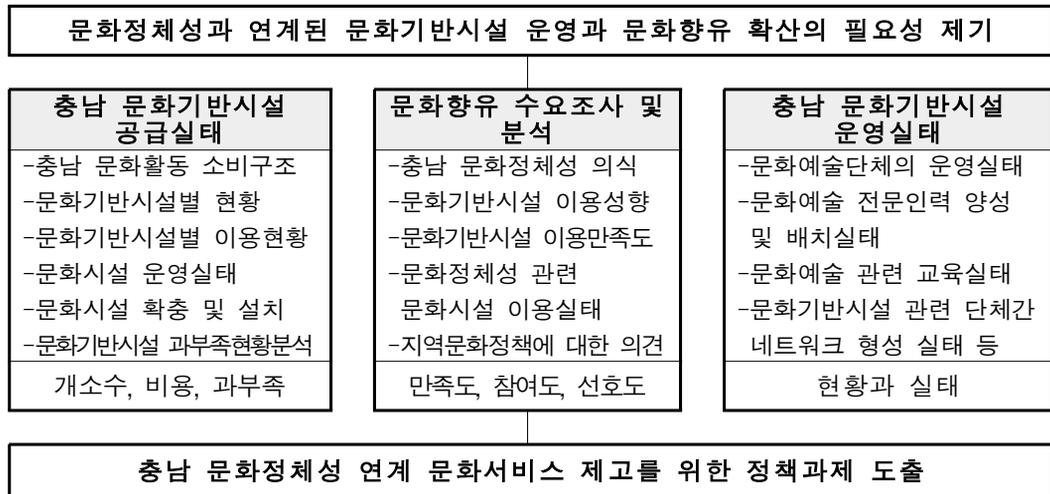
이러한 문화정체성과 연계할 수 있는 연구대상의 문화기반시설로는 시·군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복지회관, 문화원, 청소년회관, 공공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문화의 집 등이 있다. 그리고, 문화정체성과 문화기반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은 역사 및 유물·유적 박물관, 인물과 예술 관련 문화예술회관, 인물 및 예술 미술관, 풍속 및 음식전수관, 예술 및 민속 문화의 집 등의 건립이 있다. 행사 및 프로그램의 연계는 역사유물 전시회, 인물과 예술 공연, 역사·인물·음식·예술·행동양식 등의 축제와 이벤트, 인물 및 예술인 음악회, 역사 및 인물 연극과 영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공급과 향유실태 분석

1. 분석의 틀

이상에서 고찰한 문화정체성과 문화기반시설 이론고찰,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진행된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기반시설 향유 실태 조사와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연구를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틀은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과 문화향유 확산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충남 문화기반시설 공급실태와 문화향유 수요조사 및 분석, 문화활동 매개 및 운영실태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 충남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그림 7) 분석의 틀



2. 충남 문화기반시설 공급실태 분석

1) 충남의 문화활동 소비구조

사람들은 문화시설을 향유하기 위하여 문화소비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활동은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이나 외지에서 방문하는 타 지역 주민들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충남의 문화활동 소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충남지역내와 외부지역 그리고, 기업과 민간부문으로 구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문화활동 소비구조와 충남 지역 외 전국의 각 지역에서의 문화활동 소비구조를 기업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충남의 문화활동 소비구조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지역계정자료를 분석하여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화활동의 지역간 거래표를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로서 충남을 소비대상 기준 지역으로 하여 소비기업 소재 지역과 소비자 거주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²³⁾.

〈표 15〉 충남지역에서의 문화활동 소비구조 분석

(단위 : 원/%)

구분	충남의 기업(A)		충남의 민간(B)		합 계(A+B)	
	십억원(원)	비율(%)	십억원(원)	비율(%)	십억원(원)	비율(%)
서울	16.0	28.4	25.4	26.8	41.4	27.4
인천	0.6	1.1	1.0	1.1	1.6	1.1
경기	3.7	6.7	6.0	6.3	9.7	6.4
대전	3.3	5.9	5.0	5.2	8.2	5.5
충북	0.0	0.1	0.1	0.1	0.1	0.1
충남	31.2	55.5	54.9	57.8	86.0	57.0
광주	0.1	0.2	0.3	0.3	0.4	0.3
전북	0.2	0.3	0.3	0.3	0.5	0.3
전남	0.2	0.3	0.4	0.4	0.6	0.4
대구	0.1	0.2	0.3	0.3	0.4	0.2
경북	0.1	0.3	0.4	0.4	0.5	0.3
부산	0.1	0.2	0.3	0.3	0.3	0.2
울산	0.0	0.0	0.1	0.1	0.1	0.1
경남	0.1	0.1	0.2	0.2	0.3	0.2
강원	0.3	0.5	0.4	0.4	0.7	0.5
제주	0.1	0.2	0.2	0.2	0.3	0.2
합계	56.1	100.0	94.9	100.0	151.0	100.0

23) 본 원고는 한국은행과 통계청 지역계정자료를 근거로 한 임재영(2012)의 문화서비스 지역간 거래표 분석자료를 인용함.

분석결과, 충남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문화활동 소비는, 충남의 기업소비가 312억원으로 55.5%를 차지하고, 충남의 민간소비는 549억원으로 57.8%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들 기업과 민간부문의 문화소비는 총 860억원에 57.0%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충남내에서 발생하는 문화 소비는 57.0%를 차지하고, 외부지역으로의 문화소비는 서울이 27.4%이며, 경기도는 6.4%, 인천 1.1% 등으로서 수도권지역에 대한 문화소비도가 34.9%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으로의 문화소비도 5.5%를 차지하였다.

전국 각지역에서 충남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문화활동 소비구조를 분석해 보면, 전국 각 지역의 기업에서 충남이 312억원 73.1%이고, 민간에서 충남이 549억원으로 82.2%를 차지하여 총 860억원에 78.7%를 차지하였다. 또한, 수도권인 서울은 8.3%, 경기 3.1%, 인천 0.7% 등으로서 외부지역보다는 충남의 자체적인 문화활동 소비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들 관계를 비교분석해 본다면 충남의 내부적 문화활동 소비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으면서 외부의 문화 활동 소비를 충남으로 유인할 수 있는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구축과 운영 및 프로그램의 제공 등 문화활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표 16〉 전국 각 지역의 문화활동 소비구조 분석

(단위 : 원/%)

구분	전국의 기업(A)		전국의 민간(B)		합 계(A+B)	
	십억원(원)	비율(%)	십억원(원)	비율(%)	십억원(원)	비율(%)
서울	6.9	16.2	2.1	3.2	9.1	8.3
인천	0.2	0.5	0.5	0.8	0.8	0.7
경기	1.2	2.8	2.3	3.4	3.4	3.1
대전	0.4	1.0	0.7	1.1	1.2	1.1
충북	0.4	1.1	0.7	1.1	1.2	1.1
충남	31.2	73.1	54.9	82.2	86.0	78.7
광주	0.1	0.2	0.2	0.4	0.3	0.3
전북	0.1	0.2	0.3	0.5	0.4	0.4
전남	0.1	0.2	0.3	0.5	0.4	0.4
대구	0.1	0.3	0.4	0.6	0.5	0.5
경북	0.1	0.3	0.4	0.7	0.6	0.5
부산	0.5	1.1	1.2	1.8	1.7	1.5
울산	0.2	0.4	0.4	0.5	0.5	0.5
경남	0.4	1.0	1.0	1.6	1.5	1.3
강원	0.7	1.6	1.0	1.5	1.6	1.5
제주	0.1	0.1	0.1	0.1	0.1	0.1
합계	42.6	100.0	66.7	100.0	109.4	100.0

2) 문화기반시설의 현황분석

문화시설이란 사람들의 창의성이나 감수성을 개발하고,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거나 감상하는 행위가 상호작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 혹은 공간을 의미한다(오정심, 2010). 문화시설은 사람들의 창의적 행위를 가능하게 해주고 다양한 문화적 창작활동과 향유활동을 통하여 삶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사회적 건강을 고양시킨다.

문화기반시설은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문예회관, 박물관, 공연장, 도서관,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전국 문화 기반 시설은 전년 대비 5%가 증가한 1,979개소로 나타났으며, 2003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2010년	1,979	759	655	145	192	228
2009년	1,883	703	630	141	182	227
2008년	1,741	644	579	128	167	223
2007년	1,619	607	511	115	161	225
2006년	1,261	572	431	103	155	-
2005년	1,133	526	364	93	150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표 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유형별 증가현황(2010.12.31.기준)

구 분	시설 수		비고
	(‘09년말 기준)	(‘10년말 기준)	
공공도서관	703개관	759개관	56개관 증가
등록박물관	630개관	655개관	25개관 증가
등록미술관	141개관	145개관	4개관 증가
문예회관	182개관	192개관	10개관 증가
지방문화원	227개원	228개원	1개원 증가
합 계	1,883개소	1,979개소	96개소 증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시설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활동에 중요한 기반이며,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핵심적인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 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에는 콘텐츠의 특성상 전문인력이 요구되지만 시설당 평균직원 12.4명 중 전문직 비율 33.0%로 낮게 나타났다. 문화시설별 인력은, 등록박물관의 직원 수가 가장 많고, 문예회관이 시설평균 직원 수 및 전문직 비율 등이 가장 높다.

〈표 19〉 문화 시설별 전문 인력 비율(2010.12.31.기준)

(단위 : (명, %))

구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직원 수(A)	24,709	7,008	11,984	1,291	3,677	749
전문 직원 수(B)	7,331	3,161	1,834	291	2,045	-
1관당 직원 수	12.4	9.2	18.2	8.9	19.1	3.2
전문직 비율(B/A)	33.0	45.1	15.3	22.5	55.6	-

주 : 전문직 : 도서관(사서직), 박물관·미술관(학예직), 문예 회관(공연 사업, 무대 기술 인력)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이제 문화기반시설 관련 정책은 단순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여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문화기반시설의 건립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 및 평가에 대한 개선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전국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은 전체 시설수가 10개 광역자치도 중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도민의 삶의 질 수준에 감안할 때 여타 광역자치도에 비해서 문화기반 시설 수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단순히 기반시설 운영 개선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확충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자치도별 인구 백만 명당 시설수를 보면 충남이 5위로 중간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 지역에 비해서 인구밀집도가 큰 광역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인구비율에 따른 문화기반시설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남도의 경우는 지역적인

도시화 정도를 고려할 때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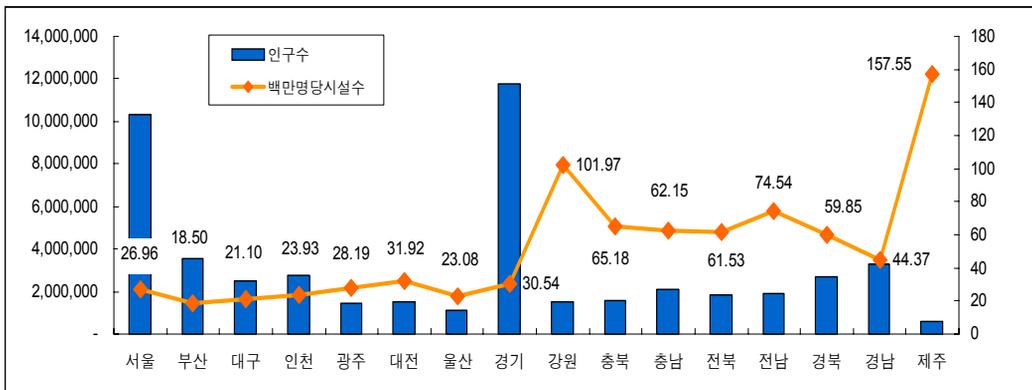
문화기반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미술관, 박물관 등과 같은 전시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시도별 현황(2010.12.31.기준)

시·도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서울	278	101	105	32	15	25
부산	66	30	12	4	7	13
대구	53	26	9	2	8	8
인천	66	26	22	5	5	8
광주	41	16	8	6	6	5
대전	48	22	15	4	2	5
울산	26	11	7		3	5
경기	360	163	109	31	26	31
강원	156	47	66	8	17	18
충북	101	32	39	6	12	12
충남	129	51	40	6	15	17
전북	109	45	30	3	17	14
전남	142	57	35	12	16	22
경북	167	58	57	6	23	23
경남	147	53	50	7	17	20
제주	90	21	51	13	3	2
총계	1,979	759	655	145	192	228
수도권	704(35.6%)	290	236	68	46	64
지방	1,275(64.4%)	469	419	77	146	164
계	1,979(100%)	759	655	145	192	22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그림 8) 광역자치도별 인구 백만 명당 시설 수



〈표 21〉 인구 백만명 당 문화 시설 수(2010.12.31.기준)

(단위 : 명,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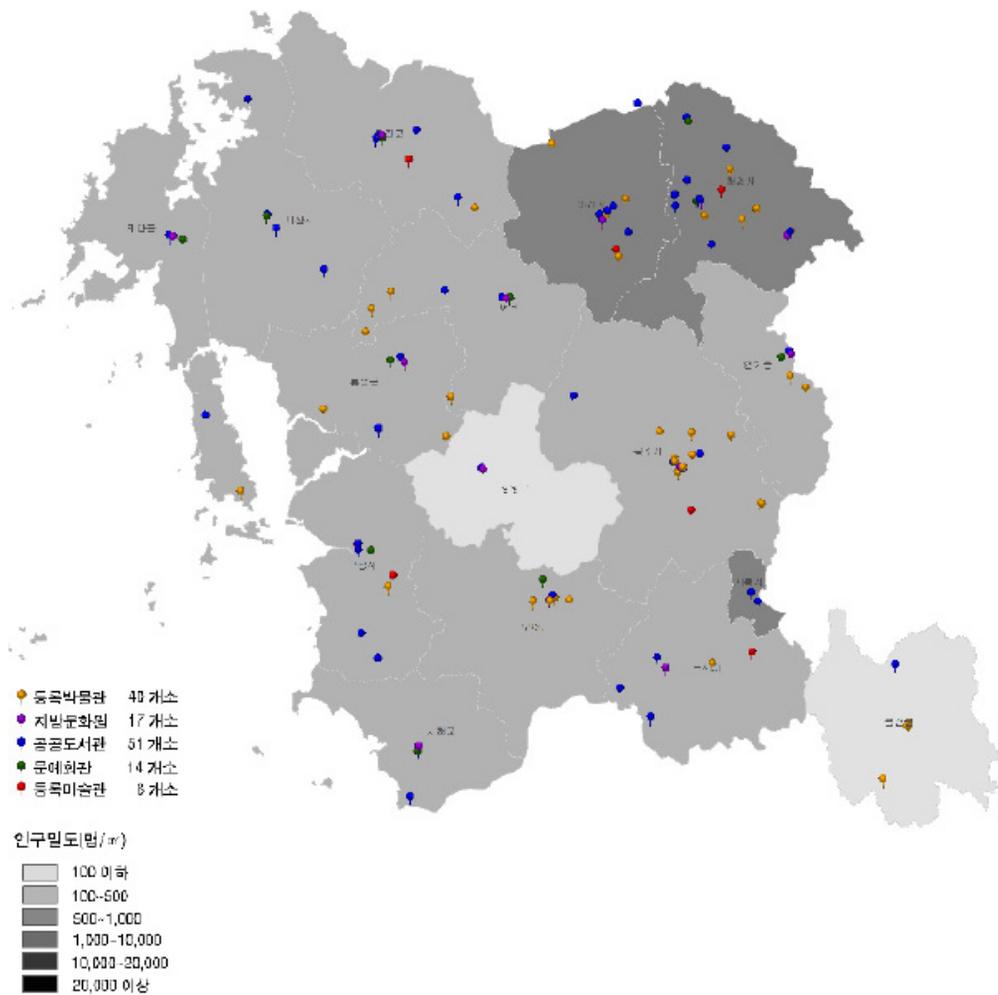
시·도	인구수	문화시설 총계	공공 도서관	등록 박물관	등록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서울	10,312,545	26.96	9.79	10.18	3.10	1.45	2.42
부산	3,567,910	18.50	8.41	3.36	1.12	1.96	3.64
대구	2,511,676	21.10	10.35	3.58	0.80	3.19	3.19
인천	2,758,296	23.93	9.43	7.98	1.81	1.81	2.90
광주	1,454,636	28.19	11.00	5.50	4.12	4.12	3.44
대전	1,503,664	31.92	14.63	9.98	2.66	1.33	3.33
울산	1,126,298	23.08	9.77	6.22	0.00	2.66	4.44
경기	11,786,622	30.54	13.83	9.25	2.63	2.21	2.63
강원	1,529,818	101.97	30.72	43.14	5.23	11.11	11.77
충북	1,549,528	65.18	20.65	25.17	3.87	7.74	7.74
충남	2,075,514	62.15	24.57	19.27	2.89	7.23	8.19
전북	1,868,963	61.53	24.08	16.05	1.61	9.10	7.49
전남	1,918,485	74.54	29.71	18.24	6.25	8.34	11.47
경북	2,689,920	59.85	21.56	21.19	2.23	8.55	8.55
경남	3,290,536	44.37	16.11	15.20	2.13	5.17	6.08
제주	571,255	157.55	36.76	89.28	22.76	5.25	3.50
총계	50,515,666	39.18	15.03	12.97	2.87	3.80	4.51
수도권	24,857,463	28.32	11.67	9.49	2.74	1.85	2.57
지방	25,658,203	49.69	18.28	16.33	3.00	5.69	6.39
총계	50,515,666	39.18	15.03	12.97	2.87	3.80	4.5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3)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실태분석

충남의 시군별 문화시설 분포는 시설의 유형별로 지역적인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야 할 지역은 계룡시(2개), 청양군(3개), 서천군(4개)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림 9]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분포 현황(2010. 12. 31. 기준)



문화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부여군, 연기군, 청양군 등에는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야 하며, 아산시는 문예회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술관은 6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군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그 중에서도 지자체의 등록미술관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박물관의 경우 전체 16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현황(2010. 12. 31. 기준)

시 군	합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129	51	31	20	-	40	24	14	2	6	-	6	-	15	17
천안시	21	9	6	3	-	6	4	2	-	1	-	1	-	2	2
공주시	17	4	2	2	-	10	5	3	2	1	-	1	-	1	1
보령시	8	4	2	2	-	1	1	-	-	1	-	1	-	1	1
아산시	12	6	5	1	-	4	2	2	-	1	-	1	-	-	1
서산시	6	4	2	2	-	-	-	-	-	-	-	-	-	1	1
논산시	7	3	2	1	-	1	1	-	-	1	-	1	-	1	1
계룡시	2	2	2		-	-	-	-	-	-	-	-	-	-	1
금산군	10	4	3	1	-	4	3	1	-	-	-	-	-	1	1
연기군	5	1	-	1	-	2	-	2	-	-	-	-	-	1	1
부여군	7	1	-	1	-	4	4	-	-	-	-	-	-	1	1
서천군	4	2	1	1	-	-	-	-	-	-	-	-	-	1	1
청양군	3	1	-	1	-	-	-	-	-	-	-	-	-	1	1
홍성군	6	2	1	1	-	2	1	1	-	-	-	-	-	1	1
예산군	8	2	1	1	-	4	1	3	-	-	-	-	-	1	1
태안군	5	2	1	1	-	1	1	-	-	-	-	-	-	1	1
당진군	8	4	3	1		1	1	-	-	1	-	1	-	1	1

자료 : 충청남도(2012), 내부자료

(1) 공공도서관

지식기반사회의 발전에 따라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이 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지식과 정보의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통합과 소통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추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 홍성, 서천, 태안 등은 지역적으로 도서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도서관은 지역민의 정체성과 문화적 창의성을 고취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활동과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추세이다. 점차 중요해지는 도서관의 공동체적 기능을 고려할 때 아직도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시·군은 복합문화센터 기능의 미래형 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 도서관에 직원이나 사서가 없는 시설도 있는데,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는 시급하게 사서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표 23〉 시·군별 도서관 현황(2010. 12. 31. 기준)

지역	도서관명	시설규모(㎡, 명)			도서자료	직원수		예산(천원)	이용자수(명)
		부지	건물	연람석		총	사서		
천안시	천안시중앙도서관	3,727	4,824	971	174,921	15	6	1,302,000	353,280
	천안시중앙도서관도솔분관	1,088	1,088	370	41,084	4	2	157,560	332,910
	천안시중앙도서관두정분관	16,437	6,865	650	53,037	11	5	2,003,346	972,913
	천안시중앙도서관성거분관	3	1,576	222	47,713	6	2	433,138	113,040
	천안시중앙도서관쌍용분관	5,631	4,792	968	125,809	10	2	325,472	417,864
	천안시중앙도서관아우내분관	18,825	3,920	85	39,266	6	1	390,000	68,653
아산시	아산시립남산도서관	7,806	565	162	29,846	1	1	382,166	104,063
	아산시립둔포도서관	1,157	1,015	89	66,830	2	1	382,166	55,361
	아산시립배방도서관	1,492	1,491	182	54,411	7	1	95,541	66,426
	아산시립송곡도서관	1,771	1,880	120	54,032	9	2	975,030	137,295
	아산시립어린이도서관		674	50	39,815	1	1	382,165	104,593
당진군	당진군립송악도서관	1,346	869	104	44,788	1	1	141,835	60,155
	당진군립중앙도서관	12,931	4,485	700	41,304	6	3	430,500	386,139
	당진합덕도서관	2,421	987	200	48,398	2	1	153,200	52,830
금산군	금산기적의도서관	1,717	529	100	37,569	3	2	175,372	87,262
	금산인삼고을도서관	394	1,566	1,986	43,345	3	1	360,000	109,928
	추부도서관	2,041	564	100	14,698	2	1	154,488	38,604
공주시	공주강북도서관	6,435	2,285	176	85,360	6	4	738,018	181,545
	공주용진도서관	17,030	2,816	379	124,818	10	4	664,603	193,749
논산시	논산강경도서관	1,962	1,447	235	65,628	3	1	214,200	60,972
	논산연무도서관	2,911	1,511	200	62,221	3	1	200,420	48,153
보령시	보령공공도서관		1,255	302	76,642	6	1	205,959	113,003
	보령주산도서관	3,355	448	144	44,593	1		50,291	14,661
서산시	서산시립도서관	10,357	2,585	354	194,131	10	4	1,239,556	268,291
	서산시립도서관대산분관	5,865	875	146	70,416	4	1	470,818	86,883
계룡시	엄사도서관	1,802	1,197	314	28,447	4	1	108,594	55,200
	계룡도서관	2,825	2,741	414	47,032	7	2	238,347	59,680
예산군	예산삼교도서관	2,083	772	132	55,640	3	1	173,506	8,919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2,643	1,570	85	62,702	3	2	239,569	26,577
서천군	서천장항공공도서관	826	805	144	58,586			169,000	25,822
태안군	태안안면도서관	1,648	578	96	41,424	3	2	219,510	10,411

자료 : 충청남도(2012), 내부자료

(2) 박물관

충남도는 10개 광역자치도 중에서 중간 수준의 박물관 시설수를 보유하고 있다. 충남도의 16개 시·군 중에서 서산, 계룡, 서천, 청양 등 4개 시군이 박물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 시·군별 박물관 현황(2010. 12. 31. 기준)

구분	지역	박물관명	시설규모 (㎡)			직원수(현원)		자료	
			연면적	전시실	수장고	총	학예직	소장자료	등록자료
국립	천안시	국립우정박물관	1,172	758	381	5	1	국내외우표 등 314,468	
	공주시	국립공주박물관	12,103	2,166	1,257	58	4	토도, 옥석, 금속 등 16,879	국보19점, 보물4점, 시도지정문화재5점
	부여군	국립부여박물관	9,735	2,107	1,922	61	3	금석, 옥석 등 33,372	국보3점, 보물3점, 시도문화재5점
	아산시	국립이충무공유물전시관	1,479	320	89	32	0	전적류 등 991	국보9점, 보물7점
	금산군	칠백의총기념관	187	154	22	2	0	기록화, 유물 등 168	보물7점
	소계	5				158	8		
공립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542	235	128	17	1	고서적, 복제 등 98	
		이동녕기념관	349	318		9	1	문서류, 시화 등 11	
		천안박물관	6,616	1,640	654	94	2	민속자료, 문헌자료 등 8,551	보물2점, 시도지정문화재2점
	공주시	충청남도산림박물관	3,173	2,234	76	7		모형, 표준박제 등 4,134	
		석장리박물관	2,050	820	70	28		석기, 토기, 화석 등 10,204	
		송산리고분군모형관	2,220	1,547		3		복제품 2,906	
		충청남도역사박물관	2,103	1,097	540	29	4	민속생활자료 등 55,464	보물6점, 중요민속자료54점, 시도지정문화재4점
	부여군	능산리고분군모형전시관	977	473	473			기타 6점	
		정림사지박물관	3,148	1,274	114	11	1	금속, 옥석, 토도 등 583	
		백제역사문화관	8,795	2,908	545	9	1	실물모형 및 복제품 158	
	금산군	금산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1,143	516	597	3		약기, 민속품 등 3,354	
		금산향토관	1,357	1,065	62	2		민속품 10,000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2,806	1,267	81	16		무기, 민속자료 606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1,799	875	56	12	1	광물표본 등 3,918	
	아산시	외암민속관	885	598		6		민속품 1,303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1,412	771		9		금속, 옥석, 옹기 등 110	보물51점
	당진군	한덕수리민속박물관	1,033	421	99	51	1	동전, 석기, 도자기 등 683	
	홍성군	결성농요농사박물관	232	232				민속류 1,020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1,610	800	203	3	1	선사, 역사 1,876	
	소계	19				309	13		

사립	공주시	계룡산자연사박물관	12,202	6,759	360	25	3	동식물류, 광물류 등 278,234	
		공주민속극박물관	990	462	18	6		민속품, 미속연극 등 517	
		웅진초등교육박물관	806	528	48	6	1	교과서, 참고서 등 12,000	
	예산군	수덕사근역성보관	2,613	456	90	13		조각, 회화, 전적 등 3,041	국보1점, 보물5점, 시도지정문화재6점
		한국고건축박물관	2,791	990	330	6	1	고건축모형, 기구 등 163	
		한국문인인장박물관	340	100	20	14	1	인장, 전각 등 1,230	
	아산시	공세리성지성당박물관	2,312	191	31	6	1	성물류, 도지류, 서지류 등 1,011	
		구정문화재단안양민속 박물관(재)	9,240	5,545	900	19	1	금속, 보석, 골각 등 20,000	시도지정문화재6점
	천안시	독립기념관	55,460	23,654	2,332	136	20	전적, 문건, 사진 등 90,131	보물1점, 등록문화재13 점, 국가지정기록물5점
		복권박물관	231	231				2,500	
	연기군	교과서박물관	3,476	1,253	228	5		교과서, 교육자료 등 192,000	보물1점
		연기향토박물관	800	316	13	9		도자기, 문서, 책 등 3,960	
	홍성군	한국식기박물관		113	23	1		민속구 1,800	
	금산군	태영민속박물관	817	215	33	5	1	도기, 목축초질 등 7,630	
	소계	14				251	29		
대학	공주시	공주교육대학교박물관	611	420	103	5	1	자기 및 토기 등 4,587	
		공주대학교부속박물관	1,047	596	297	13	1	토도, 금속, 옥석 등 12,590	
	소계	2대학박물관소계				18	2		
총계	40 개소				736	52			

자료 : 충청남도(2012), 내부자료

(3) 미술관

충남도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미술관은 충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장르의 문화기반시설 중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충남도는 단지 6개의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16개 시·군 중에서 10개 지역이 미술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충남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6개의 미술관도 모두 사립미술관으로 공립미술관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창작예술에서 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지역별로 1개 이상의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향수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술관을 개설하여 효과적

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예사가 없는 시설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신설 될 시설에도 학예사를 배치하여 효과적인 미술관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충남도는 백제시대부터 수준 높은 예술이 꽃을 피워 해외로는 일본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통일신라시대의 조형 및 건축 예술 발전에 기여 했던 한반도 문예의 고도지라 할 수 있다. 백제의 우수한 예술적 역량은 통일신라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 전역으로 전파되어 한민족의 문예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충남도는 전통예술뿐만 아니라 근대에는 이응노 등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인을 배출했던 고장으로 문예 중심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25〉 시·군별 미술관 현황(2010. 12. 31. 기준)

구분	지역	미술관명	시설규모(㎡)			직원수(현원)		자료		
			연면적	전시실	수장고	총	학예직	소장	전시	등록
사립	아산시	당림미술관	830	231	33	1	1(0)	1,010		
	보령시	모산조형 미술관	3,300	147	18	4	1(1)	700	250	
	천안시	리각미술관	4,851	450	42	3	1(1)	258		
	논산시	선화기독교 미술관	2,099	235	49	1		135		
	공주시	임립미술관	1,897	1,190	132	4	3(3)	6,343		
	당진군	아미미술관	820	251	65	3	1(1)	700		
	소계	6개소								

자료 : 충청남도(2012), 내부자료

(4) 문예회관

충남도 지역공동체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문예회관은 지역민의 소통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의 통합과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문화기반 시설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문예회관이 지역민의 문화활동에 대해서 가지는 중요한 기능에도 충남도는 16개 시·군 중에서 아직도 2개 시·군이 문예회관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지역사회에서 문예회관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감안할 때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는 시급하게 문예회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군 문예회관시설 중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시설은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26〉 시·군별 문예회관 현황(2010. 12. 31. 기준)

지역	문예회관명	객석수(명)				직원수(현원)	
		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총	전문직
천안시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신부분관	998		200		8	
	천안시민문화회관성환분관		760	240		6	2
공주시	공주문예회관		649	185		7	3
보령시	보령문화예술회관		820	167		7	3
서산시	서산시문화회관		601	80		13	3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577	180		3	2
금산군	금산다락원		727	250	3,000	12	4
연기군	연기문화예술회관		870			6	3
부여군	부여국악의전당			198		36	36
서천군	서천문예의전당		698	300		4	
청양군	청양문예회관		735	190	250	8	6
홍성군	홍주문예회관		637	100		5	1
태안군	태안군문화예술회관		687	168	200	20	8
당진군	당진문예의전당	1,001		300	1,000	17	6
예산군	예산군문예회관		505			7	2
총계	15 개소						

주 : 본 자료는 2010년 기준으로 계통시는 2011년에 계통문화예술의 전당을 건립함.
 자료 : 충청남도(2012), 내부자료

문예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전반적으로 음악회, 영화감상, 오락이나 취미활동이 대부분이며, 지역의 정체성관 연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충절의 고장으로서 충남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는 당진군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의 ‘대를 이어 朝鮮을 구하다’, 서천군 ‘서천문예의전당’의 ‘월남이상재’ 등을 들 수 있다. 문예회관의 프로그램을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내용으로 운영하여 단순한 여가나 취미활동의 수준을 벗어나 지역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27〉 시·군별 문예회관 주요 프로그램(2012년)

지역	시설명	주요프로그램
천안시	천안박물관	제6회 기획전, 무료영화상영
공주시	공주문예회관	음악으로떠나는배낭여행, 충남교향악단신년음악회, 충남교향악단화이트데이콘서트, 봄이오는소리 부활과함께하는드림콘서트, 연정국악원정기연주회, 사랑하면춤을춰라, 원달러, 충남교향악단정기연주회, 모스크바소년소녀합창단, 충남교향악단정기연주회, 오페라카르멘
보령시	보령문화예술회관	보령시민과 함께하는 신춘음악회, 이은걸 마술쇼, 판소리브레히트, 사천가, 양희은 너이름이 뭐니토코콘서트, 충남교향악단과함께 하는비발디사계
아산시	외암민속관	문화예술공연(국악 및 풍물)
서산시	서산시문화회관	모스틀리오케스트라 초청 신년음악회, 코믹명랑뮤지컬 「스페셜레터」, 써시봉 친구들 「윤형주&김세환의 우리들의 이야기」, 유창의 국악꽃향기, 강규성 초대전시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봄의소리왈츠, 최현우매직콘서트
계룡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뮤지컬 년센스, 모스크바소년소녀합창단 내한공연, 강아지똥-발레로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3군 합동연주회, 퓨전콘서트 공감21
당진시	기지사 줄다리기박물관	대를 이어 朝鮮을 구하다, 닥종이공예로 만나는 한국의 전통민속,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및대한민국중요무형문화재사진전
	문예의 전당	당진행복아카데미, MBC 나눔콘서트 산책, 가르미나 브라나, 굿(GOOD)보러가자, 비보이댄스, 난타, 태교음악회, 해나루 나눔 음악회, 부모님 전상서, 강아지 똥, 추억의음악다방, 통기타, 서예, 수채화, 청소년오케스트라, 한국화, 대금, 오카리나, 바둑, 밸리댄스, 종이접기, 차의미술, 창작도예, 도예, 요가
금산군	금산다락원	찾아가는음악회, 교양악기프로그램(기타, 플루트), 충청투데이 "신춘음악회", 음악뮤지컬 "페페의꿈", 청소년 문화존 개막식,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청소년 문화존 "영화상영", 찾아가는 노인연극 행복을가져다주는복권", 연극"라이어3"
부여군	국악의전당	토요상설공연
	정림사지박물관	백제불교문화관, 정림사지관, 부여군기증기탁기획전
서천군	서천문예의전당	조선청년의햇불!, 월남이상재, 책키와 복키
청양군	청양문예회관	기획공연"모스크바소년소녀합창단내한공연", 남교향악단 순회공연유치 봄의왈츠", 기획공연"기타리스트 김세환 오케스트라와 만나다", 완득이, 설록홈즈, 오싹한연애, 미션임파서블, 댄싱퀸, 마당을나온암탉, 건축학개론, 언터처블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체험전' 가루야 가루야', 최현우의 상상극장, 피노키오, 국립오페라단 '리골레토', 연극 '친정엄마'
예산군	예산군문예회관	2012행복한 예산을 여는 새봄콘서트 3월의 눈
태안군	태안문화예술회관	MBC나눔콘서트, 그남자 그여자, 품바, 늘근도둑이야기, 완득이, 퍼펙트 게임, 오싹한 연애, 건축학 개론

주 : 천안시의 천안문예회관은 2012년 개관예정임.

자료 : 충청남도(2012), 내부자료

(5) 문화원

충남도의 시·군별로 문화원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크게 충절과 예의 고장으로서는 전통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구성이 발견된다. 백제시대의 전통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는 ‘백제부흥군 위령제’, ‘부여서동연꽃축제’, ‘백제토기물레경연대회’, ‘2010백제역사문화탐방시티투어’ 등이 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연계한 애국과 충절의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은 ‘성웅이순신축제’가 있고, 일제시대의 애국열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만해제’, 김좌진장군 ‘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예학과 관련한 지역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예학의 고장 논산을 찾아서’가 있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충남도가 애국과 충절의 고장이자 예학의 중심지라는 문화적 의미가 부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통에 기초한 프로그램은 백제시대, 임진왜란, 조선예학, 항일운동 등과 관련된 문화활동이 눈에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충절의 고장이자 예학의 중심지라는 문화적 의미가 부각될 수 있다.

〈표 28〉 시·군별 문화원 현황(2010. 12. 31. 기준)

지역	문화원명	면적 (㎡)	회원수	직원수(현원)			연간 참여 자수	주요프로그램
				사무 국장	직원	기타(공 무원등)		
천안시	천안시동남구문화원	349	53	1	2		3,043	향토민속발굴사업
	성환문화원	275	132	1	1		5,200	컴퓨터교실운영, 천안의 구비설화
	천안문화원							
공주시	공주문화원	2,160	150	1	2		50,000	우리문화순회공연
보령시	대천문화원	954	386	1	1		8,000	우리고장바로알기교양강좌, 역사바로알기주부모임, 김좌진장군 추모제향, 충남문화포럼, 지역주민 우리문화체험
아산시	온양문화원	604	211	1	3	1	10,000	성웅이순신축제,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학교
서산시	서산문화원	1,884	2,100	1	3	1	9,000	서산의 숨결발간, 용대기놀이시연, 문화유적현장학습, 찾아가는 다도교실, 어르신문화학교
논산시	논산문화원	66	248	1	2	1	9,795	예학의고장 논산의 뿌리를 찾아서, 한일문화교류사업, 위풍당당어르신한지공예가파견
금산군	금산문화원	49	450	1	2		2,100	삼꽃문화사랑운동
연기군	연기문화원	1,680	527	1	4		527	연기문화해설사, 전통놀이, 찾아가는 무료영화 및 공연
부여군	부여문화원	528	386	1	2		26,950	부여서동연꽃축제, 명사와 함께하는 부여답사, 전국백제토기물레경연대회, 2010백제역사문화탐방시티투 어,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우리문화 한아름교실, 신년교례회
서천군	서천문화원	181	181	1	2		2,200	기벌포대보름제, 학술연구사업
청양군	청양문화원	569	101	1	3		2,500	철갑산장승문화축제
홍성군	홍성문화원	1,996	276	1	4		19,250	만해제, 한여름밤의영화제, 찾아가는 영화상영, 청소년 보훈캠프, 동네방네음악회
예산군	예산문화원	1,170	520	1	2	1	20,000	백제부흥군 위령제, 추사 추모 전국회화대회
태안군	태안문화원	795	360	1	1		7,876	소성의 향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외문화답사, 지방문화원특성화사업, 어르신문화학교
당진군	당진문화원	1,122	422	1	2		50,000	문화예술의향연, 출향예술인대회, 아주특별한만남, 찾아가는 문화나눔, 늘푸른악단

자료 : 충청남도(2012), 내부자료

4) 시사점과 과제

(1) 문화활동 소비와 문화기반시설 분석의 시사점

충남내에서 문화소비는 57.0%이고, 서울·경기에 인접하고 있어 수도권지역에 대한 문화소비도 34.9%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에서 충남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문화활동 소비도 78.7%이고, 수도권이 12.1%로서 외부지역보다는 충남의 자체적인 문화활동 소비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들 관계를 비교분석해 본다면 충남의 내부적 문화활동 소비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으면서 외부의 문화활동 소비를 충남으로 유인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건립과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전국문화기반시설로 충남은 전체 시설수가 10개 광역자치도 중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기반시설 운영 개선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확충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충남도의 문화기반시설은 유형에 따라 지역별로 확충하여 지역별 문화시설의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화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부여군, 연기군, 청양군 등에는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야 하며, 아산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 미술관은 6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군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그 중에서도 지자체의 등록미술관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박물관의 경우 전체 16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인간의 창의성이 중요해지는 미래 사회에서 창의적 활동을 자극하는 문화적 감수성은 점점 더 중요한 공동체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무엇보다 미술관 등과 같은 전시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기반시설들은 지역주민들의 이용수요에 따라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문화기반시설별로 살펴보면, 도서관은 지역민의 정체성과 문화적 창의성을 고취하면서 문화적 활동과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새롭게 건설되는 도청이전 내포 신도시와 아직도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시·군은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의 미래형 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은 충남도의 16개 시·군 중에서 서산, 계룡, 서천, 청양 등 4개 시군이 박물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시·군의 경우는 가능하다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박물관의 신설이 요구된다. 또한, 충남도는 단지 6개의 미술관을 보유하여 10개 지역이 미술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한 6개의 미술관도 모두 사립미술관으로 국립미술관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창작예술에서 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지역별로 1개 이상의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향수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는 16개 시·군 중에서 2011년에 계룡시가 문예회관을 건립하여, 현재는 1개 시·군이 문예회관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문예회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산시에서도 지역 인물을 명칭으로 하는 행사성 문예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면서 내부시설과 공간도 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능과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문화원은 충남의 모든 시·군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원별로 운영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2) 운영 및 문화행사 등 프로그램에서 시사점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차원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충남도는 백제시대부터 수준 높은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서쪽으로는 중국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일본과 해상 교류를 활발하게 해왔던 한반도의 동북아 진출의 거점지역이라 할 수 있다.

충남도는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백제시대의 문화적 유산을 적극적으로 관리 보존하면서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동북아 해외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상징적 의미와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서해를 중심으로 중국에는 아직도 백제민의 문화적 유산이 많이 남아있으며, 아스카 문화와 관련해서 요즈음도 많은 일본인들이 공주와 부여에 방문해서 백제시대의 문화적 유산을 견학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충남도는 동북아 교류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며 새로운 서해안시대의 개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서해안시대가 도래하고, 국가 행정의 중심이 중부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충남도는 명실 공히 동북아 교류의 중심이자 국가의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서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고 있다. 특히, 충남도가 새롭게 내포시대를 열면서 서해를 중심으로 문물을 받아들였던 백제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동북아 교류의 중심지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는 백제시대부터 수준 높은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통해서 서쪽으로는 중국대륙과 교류하면서 남쪽으로는 일본의 건축과 조형예술에 영향을 주었고, 통일신라 이후 한반도의 건축과 조형예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충남도는 문화재적 가치가 큰 백제시대의 건축물이나 조형예술품은 물론이고 예산의 고건축박물관과 더불어 고건축박물관, 조선시대의 추사(秋史)고택, 명재(明齋)고택, 광산김씨 종가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고건축을 보유하고 있다. 충남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술인 중 하나인 이응노 화백이 성장한 고장이며, 신동엽 시인과 같은 지역성이 강한 문인들을 배출하였다. 충남도는 매년 전 국민이 관심을 두는 백제문화제와 시·군별 전통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가의 전통문예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2000년부터 설립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소재하는 전통문화예술의 고장이라 할 수 있다.

충남도의 문화적 정체성은 충절과 예학이라는 전통에 기초한 스토리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에서 일제 강점기 시대 항일운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충절의 인물을 배출하였으며, 이조후기 예학의 지역으로 스토리 구성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접근은 과거 회귀적인 느낌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미래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문화적 가치를 연계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는 전통적으로 고귀한 선비의 지조와 더불어 문화적 관용과 삶의 여유를 보여주는 충절과 예학의 고장이라 할 수 있다. 충남도는 백제시대의 삼충신과 백제부흥운동, 임진왜란 시기의 이순신과 칠백의총, 일제강점기에는 유관순, 윤봉길, 이동녕, 이상재, 김좌진, 한용운 등 애국열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이라 할 수 있다. 충남도는 이이 율곡의 사상을 이어 받아 예학(禮學)의 꽃을 피웠던 이조후기 기호학과 활동의 중심지로서 예절(禮節)의 고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과 학문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문화예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는 새로운 서해시대가 도래하고, 세종시의 조성과 도청사의 내포이전을 계기로 백제시대 동북아 교류의 중심지였던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포용과 관용의 문화적 가치에 기초해서 미래지향적 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점차 강화되는 다문화 사회의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 중국과의 교류가 강화되는 황해시대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허브로서 충남도의 문화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충남도는 글로벌·디지털 시대의 건조한 가치보다는 지역성과 공동체적 가치에 기초한 아날로그적 문화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3. 충남 지역주민 문화향유 의식조사 분석

1) 조사분석의 개요

(1) 조사목적

본 설문조사는 충남의 지역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도민들의 문화향유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도민들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정책성과 관련된 문화환경, 문화시설이용, 문화정책 등의 문화활동 실태를 조사하여 문화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키 위함이다.

(2) 조사방법 및 대상

설문방법은 서면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지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고연령자의 경우 면접자기입식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충남 지역 특성별 대표지역 6개 시·군(천안, 아산, 공주, 논산, 청양, 금산)에 유효표본 최소 100부 이상을 각각 할당하였으며, 설문조사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요원은 충남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 및 설문의 목적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을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충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6개 시·군²⁴⁾(천안, 아산, 공주, 논산, 청양, 금산)에서 실시하였다.

(3)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지역주민의 문화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문화시설 활용 및 수요에 대한 인식 및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1차 설문조사결과 전체 650부가 회수되었고, 그 가운데 무성의한 응답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설문응답 50부를 제외한 600부를 유효표본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24) 조사대상지역의 대도시(천안·아산), 중소도시(공주·논산), 농촌지역(청양·금산)으로 구분하였음

(4)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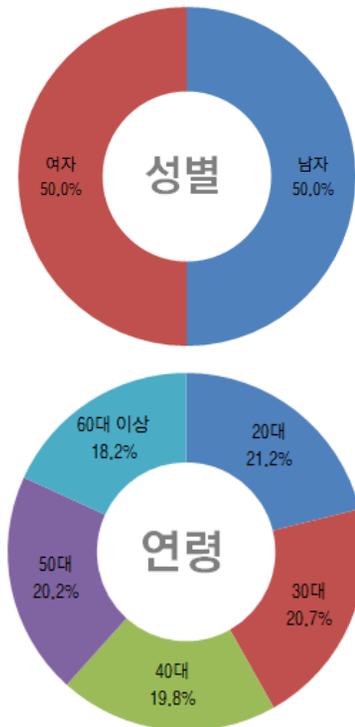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남자와 여자 비율은 각각 55.3%와 44.7%로 나타났다으며, 연령은 20대인 20-29세 집단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 30대, 50대, 19세 이하, 60세 이상 집단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대졸과 고졸이 47.2%와 38.9%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은 거의 유사한 비중으로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학생이 1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농수산업 집단이 5.8%로 가장 낮은 응답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할당표본추출에 기인하였으므로, 지역별 많은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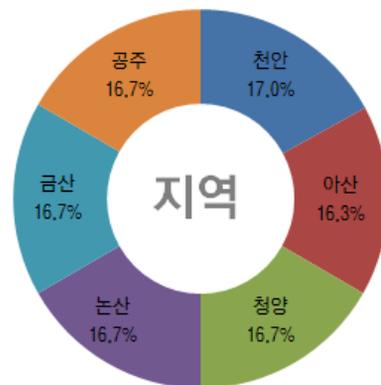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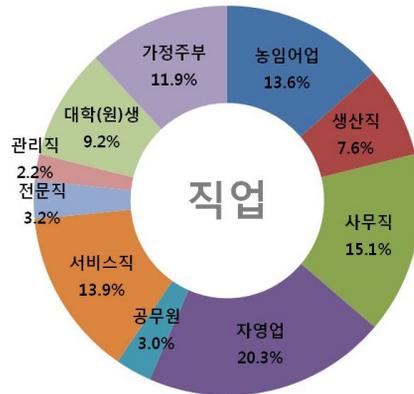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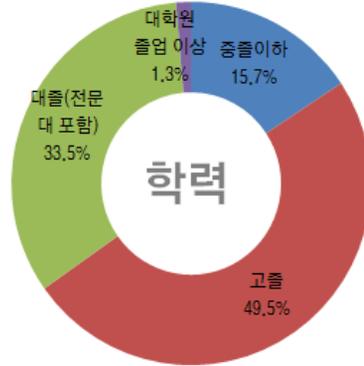
〈표 29〉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1)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남자	300	50.0
여자	300	50.0
계	600	100.0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20-29세	127	21.2
30-39세	124	20.7
40-49세	119	19.8
50-59세	121	20.2
60세 이상	109	18.2
계	600	100.0



〈표 30〉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2)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중졸이하	94	15.7
고졸	297	49.5
대졸(전문대포함)	201	33.5
대학원졸업이상	8	1.3
계	600	100.0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농임어업	81	13.6
생산직	45	7.6
사무직	90	15.1
자영업	121	20.3
공무원	18	3.0
서비스직	83	13.9
전문직	19	3.2
관리직	13	2.2
대학(원)생	55	9.2
가정주부	71	11.9
합 계	596	100.0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천안시	102	17.0
아산시	100	16.7
공주시	98	16.3
논산시	100	16.7
청양군	100	16.7
금산군	100	16.7
합계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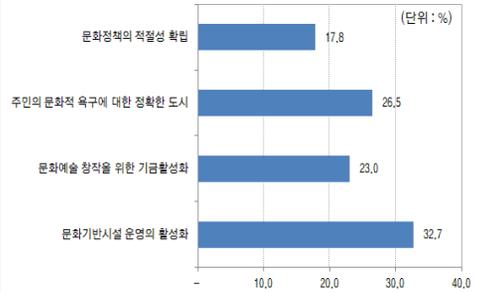
2) 지역주민 의식조사 결과

(1) 문화서비스 관련 주민의식조사 결과

충남의 전반적인 문화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가 32.7%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문화적 욕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26.5%,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기금활성화가 2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문화서비스 기능 확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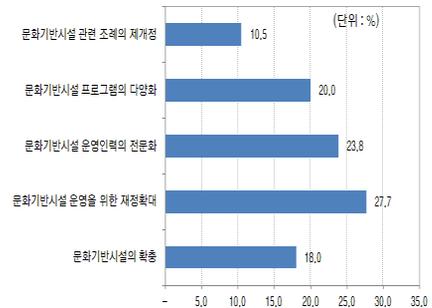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196	32.7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기금활성화	138	23.0
문화적 욕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	159	26.5
문화정책의 적정성 확립	107	17.8
합계	600	100.0



또한 문화기반시설 활용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를 위해 조사한 결과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확대가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운영인력의 전문화가 23.8%,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20.0%로 나타났다.

〈표 32〉 문화기반시설 활용을 위한 과제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108	18.0
운영을 위한 재정 확대	166	27.7
운영인력의 전문화	143	23.8
프로그램의 다양화	120	20.0
관련 조례의 제·개정	63	10.5
합계	600	100.0



지역유형별 교차분석 결과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문화기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화와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과제로 나타낸 반면, 공주-논산과 금산-청양지역은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책대와 문화기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화를 과제로 나타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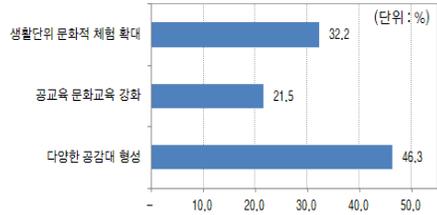
〈표 33〉 문화기반시설 활용을 위한 과제 지역별 차이분석

항 목		지역별			전체 (응답자수/ %)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문화기반시설 의 확충	빈도 (명)	28	37	43	108
	지역별 응답율(%)	14.0	18.5	21.5	
	전체 (%)	4.7	6.2	7.2	18.0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책대	빈도 (명)	47	50	69	166
	지역별 응답율(%)	23.5	25.0	34.5	
	전체 (%)	7.8	8.3	11.5	27.7
문화기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화	빈도 (명)	51	48	44	143
	지역별 응답율(%)	25.5	24.0	22.0	
	전체 (%)	8.5	8.0	7.3	23.8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의 다양화	빈도 (명)	50	38	32	120
	지역별 응답율(%)	25.0	19.0	16.0	
	전체 (%)	8.3	6.3	5.3	20.0
문화기반시설 관련 조례의 제개정	빈도 (명)	24	27	12	63
	지역별 응답율(%)	12.0	13.5	6.0	
	전체 (%)	4.0	4.5	2.0	10.5
전체	빈도 (명)	200	200	200	600
	지역별 응답율(%)	100.0	100.0	100.0	
	전체 (%)	33.3	33.3	33.3	100.0

다음으로 문화적 욕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46.3%, 공교육에서의 문화교육 강화가 21.5%, 생활단위에서 문화적 체험의 확대가 32.2%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차이는 없었다.

〈표 34〉 문화적 욕구 다양성 확보 방안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문화 다양성 공감대 형성	278	46.3
공교육 문화교육 강화	129	21.5
생활단위 문화적 체험 확대	193	32.2
합계	600	100.0



(2) 문화정체성 관련 지역주민 의견조사

충청남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정체성의 유무에 대해서는 평균 3.2점으로 보통보다는 약간 높은 값이 나왔으며, 지역별 교차분석에서는 천안-아산과 공주-논산지역의 경우 보통 이상의 긍정적 의견인데 반해 금산-청양은 2.9점으로 평균이하의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문화기반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평균 3.0점의 보통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는데, 지역별 분석에서는 천안-아산과 공주-논산지역의 경우 보통 이상의 긍정적 의견인데 반해 금산-청양은 2.7점으로 문화기반시설 이용에서 낮은 값으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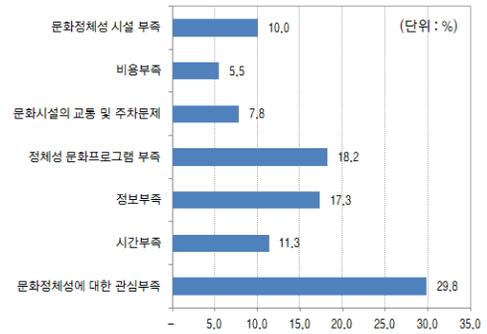
〈표 35〉 문화정체성과 관련 서비스 제공 유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1) 충청남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정체성 유무		3.2	0.92
2)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 유무		3.0	0.75
시군합계		문화정체성	문화서비스제공
천안-아산	평균(5점기준)	3.28	3.13
	응답자수(명)	200	200
	표준편차	0.89	0.71
공주-논산	평균(5점기준)	3.38	3.16
	응답자수(명)	200	200
	표준편차	0.96	0.71
금산-청양	평균(5점기준)	2.85	2.71
	응답자수(명)	200	200
	표준편차	0.82	0.74
합계	평균(5점기준)	3.17	3.00
	응답자수(명)	600	600
	표준편차	0.92	0.75
	F값	20.311	24.664
	p값	0.000	0.000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문화기반시설 향유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으로는 문화정체성에 대한 관심 부족이 29.8%, 정체성 관련 문화프로그램 부족이 18.2%, 정보부족이 1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간 차이는 없었다.

〈표 36〉 문화 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향유에 있어 문제 요소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문화정체성에 대한 관심부족	179	29.8
시간부족	68	11.3
정보부족	104	17.3
정체성문화프로그램부족	109	18.2
교통 및 주차문제	47	7.8
비용부족	33	5.5
시설 부족	60	10.0
합계	6	100.0



(3) 충청남도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기반시설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정체성 관련 종합문화예술시설 확충이 33.8%, 주민들의 거주지 근처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확충이 39.7%로 나타났으며, 확충보다는 구민회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을 주민들에게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내실화가 26.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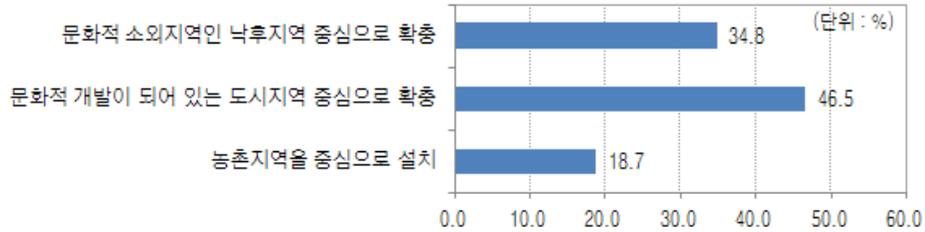
〈표 37〉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문화정체성 관련 종합문화예술시설 확충	203	33.8
주민들의 거주지 근처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확충	237	39.5
확충보다는 구민회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을 주민들에게 문화정체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내실화	160	26.7
합계	600	100.0

문화기반시설 확충 방식은 문화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 중심으로 확충이 34.8%, 문화적 개발이 되어 있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확충이 46.5%,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가 18.7%로 나타났다.

〈표 38〉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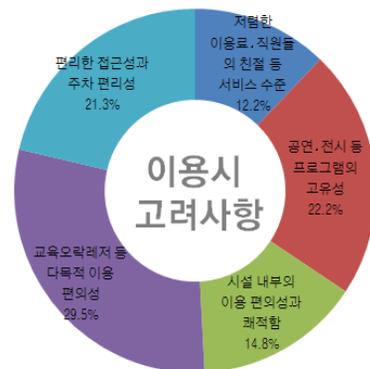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문화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 중심으로 확충	209	34.8
문화적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중심으로 확충	279	46.5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112	18.7
합계	600	100.0

거주지 주변 문화기반시설 이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한 조사 결과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이 21.3%, 교육·오락·레저 등 다목적 이용 편의성 29.5%,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이 22.2%로 나타났다.

〈표 39〉 거주지 주변 문화기반시설 이용시 고려 사항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	128	21.3
교육·오락·레저 등 다목적 이용 편의성	177	29.5
시설 내부의 이용 편의성과 쾌적함	89	14.8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	133	22.2
저렴한 이용료·직원들의 친절 등 서비스 수준	73	12.2
기타	-	-
합계	600	100.0



지역별 교차분석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금산-청양의 경우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지역에서 교육,오락, 레저 등 다목적 이용편의성이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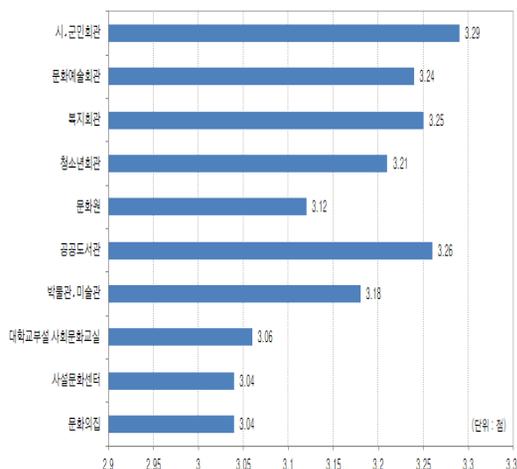
〈표 40〉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시 고려사항 지역별 차이분석

항 목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	빈도 (명)	31	38	59	128
	지역별 응답율(%)	15.5	19.0	29.5	
	전체 (%)	5.2	6.3	9.8	21.3
교육,오락, 레저 등 다목적 이용편의성	빈도 (명)	56	64	57	177
	지역별 응답율(%)	28.0	32.0	28.5	
	전체 (%)	9.3	10.7	9.5	29.5
시설내부의 이용편의성과 쾌적함	빈도 (명)	22	35	32	89
	지역별 응답율(%)	11.0	17.5	16.0	
	전체 (%)	3.7	5.8	5.3	14.8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	빈도 (명)	62	37	34	133
	지역별 응답율(%)	31.0	18.5	17.0	22.2
	전체 (%)	10.3	6.2	5.7	22.2
저렴한 이용료, 직원들의 친절 등 서비스 수준	빈도 (명)	29	26	18	73
	지역별 응답율(%)	14.5	13.0	9.0	
	전체 (%)	4.8	4.3	3.0	12.2
전체	빈도 (명)	200	200	200	600
	지역별 응답율(%)	100.0	100.0	100.0	100.0
	전체 (%)	33.3	33.3	33.3	100.0

문화시설 중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시·군민회관이 평균 3.3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이 3.3, 복지회관 3.3, 문화예술회관 3.2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대부분이 평균값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표 41〉 문화시설 문화서비스 제공 만족도

구 분	평균	순위
시·군민회관	3.39	1
문화예술회관	3.24	4
복지회관	3.25	3
청소년회관	3.21	5
문화원	3.12	7
공공도서관	3.26	2
박물관·미술관	3.18	6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3.06	8
사설문화센터	3.04	9
문화의집	3.04	9



지역별 교차분석 결과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복지회관, 시·군민회관, 문화예술회관의 이용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공주-논산의 경우 공공도서관, 시·군민회관, 박물관·미술관 등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금산-청양 지역의 경우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는 평균 값 이하로 나타나 문화정체성 관련한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도시규모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분야에서 금산-청양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회관, 문화원,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터, 문화의 집 등의 경우 이용만족도가 세 지역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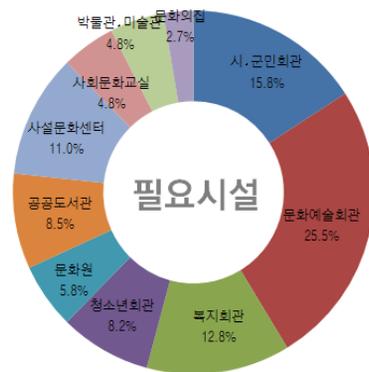
지역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응답 결과 문화예술회관이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군민회관이 15.8%, 복지회관 1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지역별 비교

지역별		시군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터	문화의집
천안-아산	평균	3.47	3.46	3.51	3.44	3.29	3.34	3.29	3.03	3.15	3.23
	응답자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표준편차	0.78	0.82	0.90	0.80	0.78	0.75	0.73	0.91	0.87	0.74
공주-논산	평균	3.41	3.32	3.32	3.30	3.34	3.43	3.40	3.26	3.22	3.20
	응답자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표준편차	0.83	0.68	0.84	0.81	0.71	0.85	0.74	0.75	0.69	0.75
금산-청양	평균	2.99	2.96	2.92	2.90	2.73	3.01	2.85	2.88	2.75	2.70
	응답자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표준편차	0.74	0.71	0.83	0.71	0.64	0.77	0.72	0.81	0.71	0.62
합계	평균	3.29	3.24	3.25	3.21	3.12	3.26	3.18	3.06	3.04	3.04
	응답자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표준편차	0.81	0.77	0.89	0.81	0.77	0.81	0.77	0.84	0.79	0.75
	F값	22.551	24.654	24.360	26.450	45.829	15.777	32.286	10.789	22.704	35.745
	p값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표 43〉 지역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

구분	응답자 (명)	비율 (%)
시·군민회관	95	15.8
문화예술회관	153	25.5
복지회관	77	12.8
청소년회관	49	8.2
문화원	35	5.8
공공도서관	51	8.5
사설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등)	66	11.0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29	4.8
박물관·미술관	29	4.8
문화의집	16	2.7
합계	600	100.0



지역별 교차분석 결과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문화예술회관과 사설문화센터(백화점 등)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공주-논산과 금산-청양 지역의 경우 시·군민회관과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지역의 경우 문화예술회관과 시·군민회관 등이 기존에 있으나 이들의 운영활성화가 필요함을 반영해 주고 있다.

〈표 44〉 문화시설 중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

항 목		지역유형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시군민회관	빈도 (명)	14	28	53	95
	지역별 응답율(%)	7.0	14.0	26.5	
	전체 (%)	2.3	4.7	8.8	15.8
문화예술회관	빈도 (명)	46	57	50	153
	지역별 응답율(%)	23.0	28.5	25.0	
	전체 (%)	7.7	9.5	8.3	25.5
복지회관	빈도 (명)	25	24	28	77
	지역별 응답율(%)	12.5	12.0	14.0	
	전체 (%)	4.2	4.0	4.7	12.8
청소년회관	빈도 (명)	23	20	6	49
	지역별 응답율(%)	11.5	10.0	3.0	
	전체 (%)	3.8	3.3	1.0	8.2
문화원	빈도 (명)	7	16	12	35
	지역별 응답율(%)	3.5	8.0	6.0	
	전체 (%)	1.2	2.7	2.0	5.8
공공도서관	빈도 (명)	21	15	15	51
	지역별 응답율(%)	10.5	7.5	7.5	8.5
	전체 (%)	3.5	2.5	2.5	8.5
사설문화센터 (백화점, 신문 사 등)	빈도 (명)	26	21	19	66
	지역별 응답율(%)	13.0	10.5	9.5	
	전체 (%)	4.3	3.5	3.2	11.0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빈도 (명)	10	11	8	29
	지역별 응답율(%)	5.0	5.5	4.0	
	전체 (%)	1.7	1.8	1.3	4.8
박물관, 미술 관	빈도 (명)	13	7	9	29
	지역별 응답율(%)	6.5	3.5	4.5	4.8
	전체 (%)	2.2	1.2	1.5	4.8
문화의 집	빈도 (명)	15	1	0	16
	지역별 응답율(%)	7.5	0.5	0.0	
	전체 (%)	2.5	0.2	0.0	2.7
전체	빈도 (명)	200	200	200	600
	지역별 응답율(%)	100.0	100.0	100.0	100.0
	전체 (%)	33.3	33.3	33.3	100.0

문화시설 이용 시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에 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직원이 친절하다가 3.3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용가능 시간이 다양하고 편리하다가 3.2점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지역별 분석결과 천안-아산과 금산-청양 지역의 경우 직원친절과 편의시설 쾌적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주-논산의 경우 이용가능시간 다양과 직원친절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용행태별로는 유익프로그램, 편의시설 쾌적, 이용가능시간다양, 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는 세 그룹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친절은 공주-논산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통주차편리는 금산-청양이 낮게 나타났다.

〈표 45〉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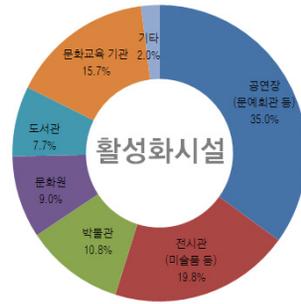
구 분		평균	순위				
문화기반시설에 문화정체성 관련 유익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많다		3.07	5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 식당/매점 등 시설(편의시설)이 쾌적하다		3.16	3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이용가능 시간이 다양하고 편리하다		3.17	2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친절하다		3.28	1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이용에 교통 및 주차가 편리하다		3.11	4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다		2.98	6				
지역별	항목	유익프로그램	편의시설 쾌적	이용가능 시간다양	직원친절	교통주차 편리	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
천안-아산	평균	3.06	3.18	3.13	3.25	3.15	2.96
	응답자	200	200	200	200	200	200
	표준편차	0.75	0.73	0.81	0.83	0.85	0.89
공주-논산	평균	3.43	3.32	3.47	3.48	3.23	3.20
	응답자	200	200	200	200	200	200
	표준편차	0.84	0.72	0.76	0.79	0.75	0.74
금산-청양	평균	2.72	2.99	2.93	3.13	2.94	2.80
	응답자	200	200	200	200	200	200
	표준편차	0.67	0.70	0.81	0.75	0.75	0.70
합계	평균	3.07	3.16	3.17	3.28	3.11	2.98
	응답자	600	600	600	600	600	600
	표준편차	0.81	0.73	0.82	0.80	0.79	0.80
	F값	44.464	11.037	23.707	10.063	7.088	13.267
	p값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문화정체성과 관련하여 활성화해야 되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연장(문예회관 등)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시관(19.8%), 문화교육기관(15.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교차분석 결과 공주-논산과 금산-청양 지역은 공연장과 전시관의 시설이 높았으며, 천안-아산의 경우 공연장과 문화교육기관의 활성화가 높게 나타났다.

〈표 46〉 문화정체성 관련 활성화해야 되는 문화서비스시설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공연장(문예회관 등)	210	35.0
전시관(미술품 등)	119	19.8
박물관	65	10.8
문화원	54	9.0
도서관	46	7.7
문화교육 기관	94	15.7
기타	12	2.0
합계	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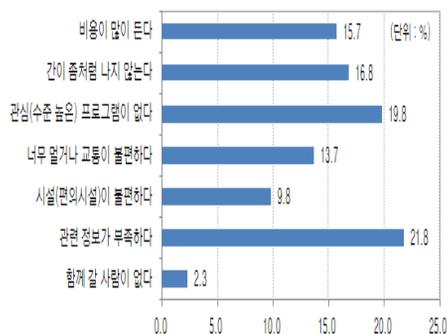


항 목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공연장(문예회관 등)	빈도(명)	46	62	102	210
	지역별 응답율(%)	23.0	31.0	51.0	
	전체(%)	7.7	10.3	17.0	35.0
전시관(미술품 등)	빈도(명)	45	47	27	119
	지역별 응답율(%)	22.5	23.5	13.5	19.8
	전체(%)	7.5	7.8	4.5	19.8
박물관	빈도(명)	22	20	23	65
	지역별 응답율(%)	11.0	10.0	11.5	
	전체(%)	3.7	3.3	3.8	10.8
문화원	빈도(명)	13	24	17	54
	지역별 응답율(%)	6.5	12.0	8.5	
	전체(%)	2.2	4.0	2.8	9.0
도서관	빈도(명)	16	14	16	46
	지역별 응답율(%)	8.0	7.0	8.0	
	전체(%)	2.7	2.3	2.7	7.7
문화교육기관	빈도(명)	46	33	15	94
	지역별 응답율(%)	23.0	16.5	7.5	
	전체(%)	7.7	5.5	2.5	15.7
기타	빈도(명)	12	0	0	12
	지역별 응답율(%)	6.0	0.0	0.0	
	전체(%)	2.0	0.0	0.0	2.0
전 체	빈도(명)	200	200	200	600
	지역별 응답율(%)	100.0	100.0	100.0	100.0
	전체(%)	33.3	33.3	33.3	100.0

문화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에 관한 조사 결과,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가 21.8%로 가장 높았으며, 관심(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없다는 19.8%,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가 1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문화행사시 참여가 어려운 이유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비용이 많이 든다	94	15.7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101	16.8
관심(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없다	119	19.8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다	82	13.7
시설(편의시설)이 불편하다	59	9.8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131	21.8
함께 갈 사람이 없다	14	2.3
합계	600	100.0



지역별 교차분석 결과 천안-아산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와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가 높게 나타났고, 공주-논산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와 관심(수준 높은)프로그램이 없다는가 높게 나타났고 금산-청양의 경우 관심(수준 높은)프로그램이 없다는와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심(수준 높은)프로그램이 없다’에 대해 천안-아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수준높은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에 대해서는 천안-아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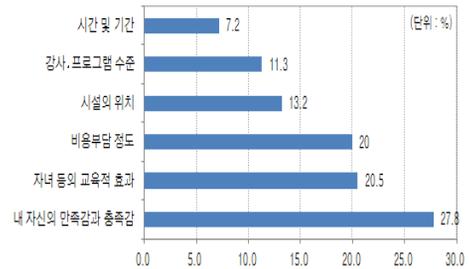
〈표 48〉 문화행사시 참여가 어려운 이유 교차분석

항 목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비용이 많이 든다	빈도 (명)	34	35	25	94
	지역별 응답율(%)	17.0	17.5	12.5	
	전체 (%)	5.7	5.8	4.2	15.7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빈도 (명)	33	36	32	101
	지역별 응답율(%)	16.5	18.0	16.0	
	전체 (%)	5.5	6.0	5.3	16.8
관심(수준높은) 프로그램이 없다	빈도 (명)	23	46	50	119
	지역별 응답율(%)	11.5	23.0	25.0	
	전체 (%)	3.8	7.7	8.3	19.8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다	빈도 (명)	30	23	29	82
	지역별 응답율(%)	15.0	11.5	14.5	
	전체 (%)	5.0	3.8	4.8	13.7
시설이 불편하다	빈도 (명)	14	20	25	59
	지역별 응답율(%)	7.0	10.0	12.5	
	전체 (%)	2.3	3.3	4.2	9.8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빈도 (명)	59	35	37	131
	지역별 응답율(%)	29.5	17.5	18.5	
	전체 (%)	9.8	5.8	6.2	21.8
함께 갈 사람이 없다	빈도 (명)	7	5	2	14
	지역별 응답율(%)	3.5	2.5	1.0	
	전체 (%)	1.2	0.8	0.3	2.3
전 체	빈도 (명)	200	200	200	600
	지역별 응답율(%)	100.0	100.0	100.0	100.0
	전체 (%)	33.3	33.3	33.3	100.0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설문 결과 내 자신의 만족감과 충족감이 2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 등의 교육적 효과 20.5%, 비용부담 정도 2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프로그램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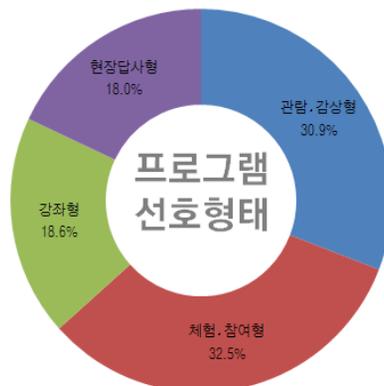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내 자신의 만족감과 충족감	167	27.8
자녀 등의 교육적 효과	123	20.5
비용부담 정도	120	20.0
시설의 위치	79	13.2
강사·프로그램 수준	68	11.3
시간 및 기간	43	7.2
합계	600	100.0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설문 결과 체험·참여형이 3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람·감상형이 31.2%, 강좌형이 18.8%, 현장답사형이 1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0〉 문화시설 프로그램 선호 형태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관람·감상형	187	31.2
체험·참여형	197	32.8
강좌형	113	18.8
현장답사형	109	17.2
합계	600	100.0



〈표 51〉 지역별 프로그램 선호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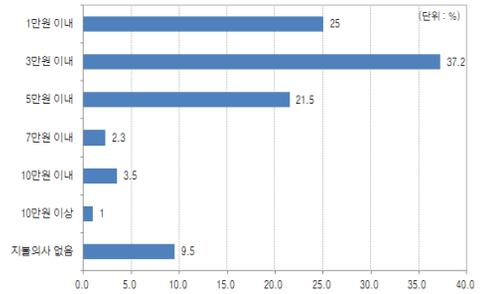
항 목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관람감상형	빈도 (명)	40	56	91	187
	지역별 응답율(%)	20.0	28.0	45.5	
	전체 (%)	6.7	9.3	15.2	31.2
체험참여형	빈도 (명)	70	70	57	197
	지역별 응답율(%)	35.0	35.0	28.5	
	전체 (%)	11.7	11.7	9.5	32.8
강좌형	빈도 (명)	32	45	36	113
	지역별 응답율(%)	16.0	22.5	18.0	
	전체 (%)	5.3	7.5	6.0	18.8
현장답사형	빈도 (명)	58	29	16	103
	지역별 응답율(%)	29.0	14.5	8.0	
	전체 (%)	9.7	4.8	2.7	17.2
전 체	빈도 (명)	200	200	200	600
	지역별 응답율(%)	100.0	100.0	100.0	
	전체 (%)	33.3	33.3	33.3	100.0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행사나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에 대한 조사 결과 3만원 이내가 37.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만원 이내가 25.0%, 5만원 이내가 21.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교차분석 결과 천안-아산의 경우 3만원 이내와 5만원 이내가 가장 높은 반면, 공주-논산 지역과 금산-청양 지역의 경우 3만원 이내와 1만원 이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저렴한 문화예술행사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52〉 행사나 프로그램 지불의사 금액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1만원 이내	150	25.0
3만원 이내	223	37.2
5만원 이내	129	21.5
7만원 이내	14	2.3
10만원 이내	21	3.5
10만원 이상	6	1.0
지불의사 없음	57	9.5
합계	600	100.0



항 목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1만원이내	빈도 (명)	19	62	69	150
	지역별 응답율(%)	9.5	31.0	34.5	
	전체 (%)	3.2	10.3	11.5	25.0
3만원이내	빈도 (명)	81	76	66	223
	지역별 응답율(%)	40.5	38.0	33.0	
	전체 (%)	13.5	12.7	11.0	37.2
5만원 이내	빈도 (명)	70	39	20	129
	지역별 응답율(%)	35.0	19.5	10.0	
	전체 (%)	11.7	6.5	3.3	21.5
7만원 이내	빈도 (명)	10	2	2	14
	지역별 응답율(%)	5.0	1.0	1.0	
	전체 (%)	1.7	0.3	0.3	2.3
10만원 이내	빈도 (명)	14	6	1	21
	지역별 응답율(%)	7.0	3.0	0.5	
	전체 (%)	2.3	1.0	0.2	3.5
10만원 이상	빈도 (명)	5	0	1	6
	지역별 응답율(%)	2.5	-	0.5	
	전체 (%)	0.8	-	0.2	1.0
지불의사 없음	빈도 (명)	1	15	41	57
	지역별 응답율(%)	0.5	7.5	20.5	
	전체 (%)	0.2	2.5	6.8	9.5
전 체	빈도 (명)	200	200	200	600
	지역별 응답율(%)	100.0	100.0	100.0	
	전체 (%)	33.3	33.3	33.3	100.0

(4)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지역문화정체성을 위해 행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전문성 강화가 3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련 예산확충이 29.2%, 민간참여 확대가 20.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교차분석 결과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전문성 강화와 민간참여 확대가 높게 나타난 반면, 공주-논산 지역의 경우 전문성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금산-청양지역의 경우 관련 예산 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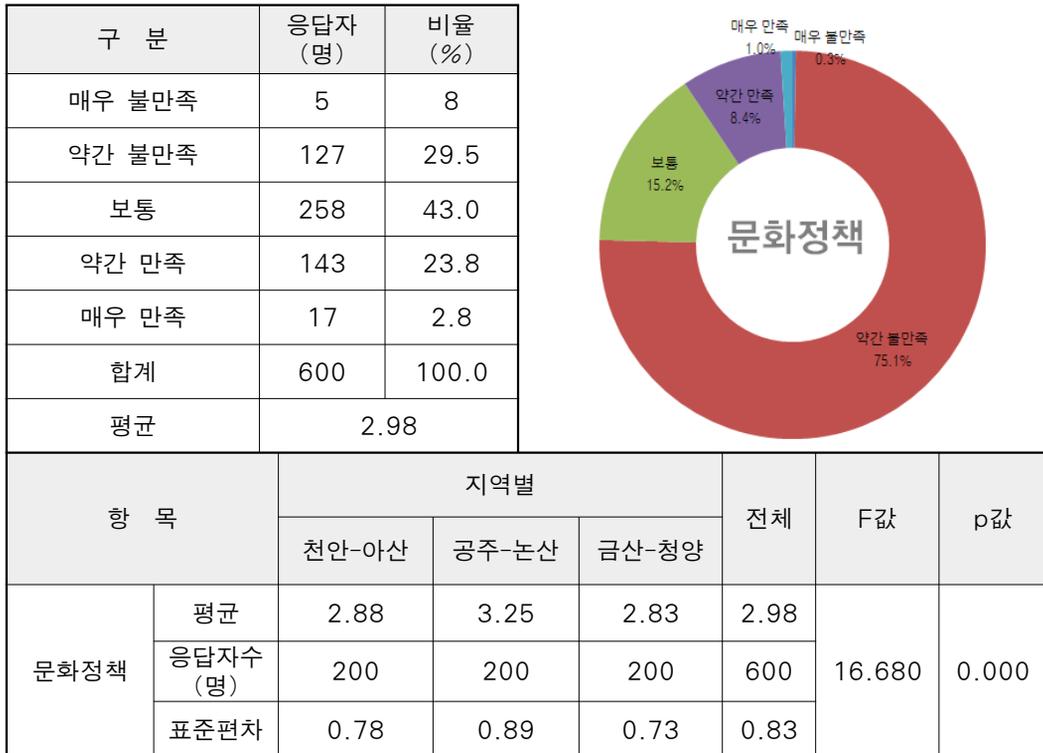
〈표 53〉 문화정체성을 위한 행정 보완 사항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전문성 강화	209	34.8
	민간참여 확대	121	20.2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	95	15.8
	기타	-	-
	합계	600	100.0

항 목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관련 예산확충	빈도 (명)	42	53	80	175
	지역별 응답율(%)	21.0	26.5	40.0	
	전체 (%)	7.0	8.8	13.3	29.2
전문성 강화	빈도 (명)	59	87	63	209
	지역별 응답율(%)	29.5	43.5	31.5	
	전체 (%)	9.8	14.5	10.5	34.8
민간참여 확대	빈도 (명)	56	37	28	121
	지역별 응답율(%)	28.0	18.5	14.0	
	전체 (%)	9.3	6.2	4.7	20.2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	빈도 (명)	43	23	29	95
	지역별 응답율(%)	21.5	11.5	14.5	
	전체 (%)	7.2	3.8	4.8	15.8
전 체	빈도 (명)	200	200	200	600
	지역별 응답율(%)	100.0	100.0	100.0	
	전체 (%)	33.3	33.3	3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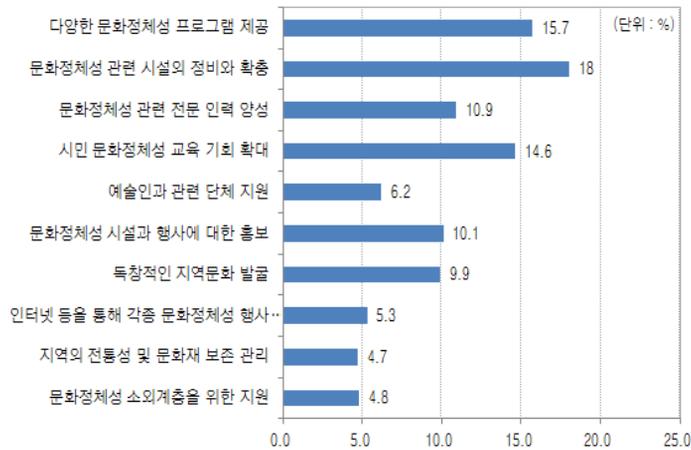
지역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평균 3.0으로 평균보다 조금 낮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 결과 공주-논산의 경우 문화정책에 대해 3.3의 평균 이상의 평가를 내린 반면, 천안-아산과 금산-청양 지역의 경우 평균 이하의 평점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문화정책 만족도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할 일에 대한 조사 결과 문화정체성 관련 시설의 정비와 확충이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문화정체성 프로그램 제공이 15.7%, 시민 문화정체성 교육 기회 확대가 14.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문화서비스 행정 역점 추진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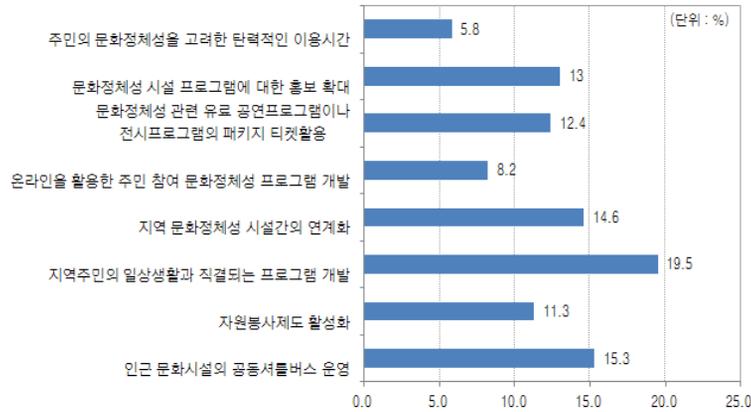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응답자 (명)	비율 (%)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다양한 문화정체성 프로그램 제공	118	19.7	70	11.7	188	15.7
문화정체성 관련 시설의 정비와 확충	115	19.2	101	16.8	216	18.0
문화정체성 관련 전문 인력 양성	77	12.8	54	9.0	131	10.9
시민 문화정체성 교육 기회 확대	85	14.2	90	15.0	175	14.6
예술인과 관련 단체 지원	32	5.3	42	7.0	74	6.2
문화정체성 시설과 행사에 대한 홍보	61	10.2	60	10.0	121	10.1
독창적인 지역문화 발굴	61	10.2	58	9.7	119	9.9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문화정체성 행사 정보제공 활성화	19	3.2	44	7.3	63	5.3
지역의 전통성 및 문화재 보존 관리	15	2.5	41	6.8	56	4.7
문화정체성 관련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17	2.8	40	6.7	57	4.8
합계	600	100.0	600	100.0	1200	100.0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주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순위에서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2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근 문화시설의 공동셔틀버스 운영이 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지역 문화정체성 시설간의 연계화가 1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14.5%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합계에서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1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문화기반시설 지역주민 활용도 제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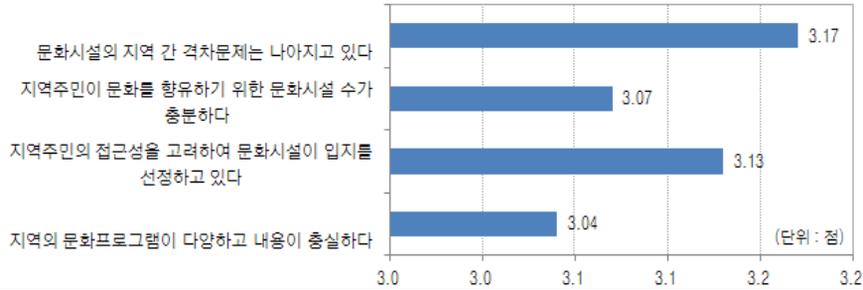


구 분	1순위		2순위		응답자 (명)	비율 (%)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근 문화시설의 공동셔틀버스 운영	122	20.3	61	10.2	183	15.3
자원봉사제도 활성화	71	11.8	65	10.8	136	11.3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개발	147	24.5	87	14.5	234	19.5
지역 문화정체성 시설간의 연계화	79	13.2	96	16.0	175	14.6
온라인을 활용한 주민 참여 문화정체성 프로그램 개발	52	8.7	46	7.7	98	8.2
문화정체성 관련 유료 공연프로그램이나 전시프로그램의 패키지 티켓활용	58	9.7	91	15.2	149	12.4
문화정체성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확대	60	10.0	96	16.0	156	13.0
주민의 문화정체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이용시간	11	1.8	58	9.7	69	5.8
합계	600	100.0	600	100.0	1200	100.0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문제는 나아지고 있다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이 입지를 선정하고 있다가 3.1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비교 결과 천안-아산과 공주-논산 지역의 경우 평균 이상의 평가를 내린 반면 금산-청양 지역의 경우 평균 이하의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분석에서는 문화시설의 격차문제와 입지선정은 세 지역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시설 수와 프로그램 내용 충실 부분에서는 공주-논산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7〉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



구분		평균	순위
1)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문제는 나아지고 있다		3.17	1
2) 지역주민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문화시설 수가 충분하다		3.07	3
3)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이 입지를 선정하고 있다.		3.13	2
4) 지역의 문화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3.0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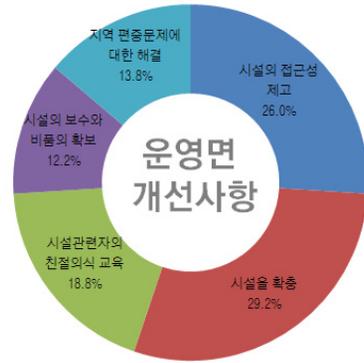
지역별	항목	지역간격차	문화시설 수	입지선정	프로그램 내용충실
천안-아산	평균	3.14	3.06	3.18	2.97
	응답자(명)	200	200	200	200
	표준편차	0.75	0.62	0.62	0.79
공주-논산	평균	3.43	3.22	3.36	3.28
	응답자(명)	200	200	200	200
	표준편차	0.82	0.78	0.76	0.76
금산-청양	평균	2.94	2.94	2.85	2.87
	응답자(명)	200	200	200	200
	표준편차	0.84	0.73	0.77	0.75
합계	평균	3.17	3.07	3.13	3.04
	응답자(명)	600	600	600	600
	표준편차	0.83	0.72	0.75	0.79
	F값	18.745	7.409	26.117	15.340
	p값	0.000	0.000	0.000	0.000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운영면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시설 확충이 29.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시설의 접근성 제고가 26.0%, 시설 관련자의 친절의식 교육이 18.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분석 결과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시설 확충이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시설의 접근성 제고가 높게 나타난 반면, 공주-논산의 경우 시설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설 관련자의 친절의식교육이 높게 나

타났으며, 금산-청양의 경우 시설의 접근성 제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8〉 문화시설 운영면에서 개선 사항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시설의 접근성 제고	156	26.0
시설을 확충	175	29.2
시설 관련자의 친절의식 교육	113	18.8
시설의 보수와 비품의 확보	73	12.2
지역 편중문제에 대한 해결	83	13.8
기타	-	-
합계	870	100.0



항 목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시설의 접근성 제고	빈도 (명)	43	47	66	156
	지역별 응답율(%)	21.5	23.5	33.0%	
	전체 (%)	7.2	7.8	11.0	26.0
시설 확충	빈도 (명)	62	51	62	175
	지역별 응답율(%)	31.0	25.5	31.0	
	전체 (%)	10.3	8.5	10.3	29.2
시설 관련자의 친절의식교육	빈도 (명)	34	49	30	113
	지역별 응답율(%)	17.0	24.5	15.0	
	전체 (%)	5.7	8.2	5.0	18.8
시설의 보수와 비품의 확보	빈도 (명)	21	27	25	73
	지역별 응답율(%)	10.5	13.5	12.5	
	전체 (%)	3.5	4.5	4.2	12.2
지역 편중문제에 대한 해결	빈도 (명)	40	26	17	83
	지역별 응답율(%)	20.0	13.0	8.5	
	전체 (%)	6.7	4.3	2.8	13.8
전 체	빈도 (명)	200	200	200	600
	지역별 응답율(%)	100.0	100.0	100.0	
	전체 (%)	33.3	33.3	33.3	100.0

3) 종합 분석 및 시사점

(1) 지역주민 설문 결과 종합정리

■ 지역문화서비스 관련 주민인식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2.7%이며, 문화자원 활용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를 위해 조사한 결과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확대가 27.7%로 응답되었다.

지역별 차이분석 결과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문화기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화와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과제로 나타낸 반면, 다른 지역은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확대와 문화기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화를 과제로 나타내 지역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적 욕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46.3%로 나타났다.

〈표 59〉 문화기반시설 이용 관련 주민인식 조사 결과

조사항목	지역	응답내용	응답율(%)
문화기반시설 서비스기능 확대 방안	전체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활성화	32.7
문화기반시설 이용활성화의 과제	천안-아산	문화기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화	25.5
	공주-논산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책대	25.0
	금산-청양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책대	34.5
문화적 욕구 다양성 확보방안	전체	삶 혹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46.3

■ 문화정체성 관련 지역주민 문화기반시설의 향유정도

충청남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정체성의 유무에 대해서는 평균 3.17점으로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은 의견이 대체로 많았으며, 지역별 교차분석에서는 천안-아산과 공주-논산지역의 경우 보통 이상의 긍정적 의견인데 반해 금산-청양은 2.85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문화기반시설 이용에 대해서 평균 3.0점으로 보통이라는 의견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지역별 분석에서는 천안-아산과 공주-논산지역의 경우 보통 이상의 긍정

적 의견인데 반해 금산-청양은 2.70점으로 낮은 점수로 분석되었다.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문화기반시설 향유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으로는 문화정체성에 대한 관심 부족이 29.8%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표 60〉 문화정체성 관련 지역주민 문화서비스 향유정도 결과

조사항목		지역별	응답점수(5점만점)
충남도만의 문화정체성 유무 (3.17)		천안-아산	3.28
		공주-논산	3.38
		금산-청양	2.84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 (3.00)		천안-아산	3.12
		공주-논산	3.16
		금산-청양	2.70
조사항목	지역	응답내용	응답율(%)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향유시 문제점	전체	문화정체성에 대한 관심 부족	29.8

■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기반시설 이용실태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시·군민회관이 평균 3.29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응답결과 문화예술회관이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1〉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기반시설 이용실태 결과

조사항목		지역	응답점수(점)	조사항목		지역	응답점수(점)
문화 시설 만족 도	시군민회관 (3.29)	천안-아산	3.47	문화 시설 만족 도	공공도서관 (3.26)	천안-아산	3.34
		공주-논산	3.41			공주-논산	3.43
		금산-청양	2.98			금산-청양	3.01
	문화예술회 관 (3.24)	천안-아산	3.46		박물관미술관 (3.18)	천안-아산	3.29
		공주-논산	3.32			공주-논산	3.40
		금산-청양	2.96			금산-청양	2.85
	복지회관 (3.25)	천안-아산	3.51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3.06)	천안-아산	3.03
		공주-논산	3.32			공주-논산	3.26
		금산-청양	2.92			금산-청양	2.88
	청소년회관 (3.21)	천안-아산	3.44		사설문화센터 (3.04)	천안-아산	3.15
		공주-논산	3.30			공주-논산	3.23
		금산-청양	2.90			금산-청양	2.75
	문화원 (3.12)	천안-아산	3.29		문화의 집 (3.04)	천안-아산	3.23
		공주-논산	3.34			공주-논산	3.20
		금산-청양	2.73			금산-청양	2.70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시 만족도 조사 결과 직원의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가 3.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활성화해야 되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연장(문예회관 등)이 35.0%로 가장 높았다.

〈표 62〉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 만족도 결과

조사항목		지역	응답점수(점)	조사항목		지역	응답점수(점)
문화 정체성 관련	유익한프로그램 (3.07)	천안-아산	3.06	문화 정체성 관련	직원친절 (3.28)	천안-아산	3.25
		공주-논산	3.43			공주-논산	3.48
		금산-청양	2.72			금산-청양	3.13
문화 서비스 만족	편의시설쾌적 (3.16)	천안-아산	3.18	문화 서비스 만족	교통주차편리 (3.11)	천안-아산	3.15
		공주-논산	3.32			공주-논산	3.23
		금산-청양	2.99			금산-청양	2.94
문화 서비스 만족	이용가능시간 다양 (3.17)	천안-아산	3.13	문화 서비스 만족	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 (2.98)	천안-아산	2.96
		공주-논산	3.47			공주-논산	3.20
		금산-청양	2.93			금산-청양	2.80

문화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에 관한 조사 결과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천안-아산이 29.5%, 관심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공주-논산, 금산-청양이 23.0%와 25.0%로 각각 나타났으며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의 만족감과 충족감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 시 선호 형태에 대한 설문 결과 체험·참여형이 천안-아산과 공주-논산에 35.0%, 관람감상형이 금산-청양에 45.5%를 차지하였다.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행사나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에 대한 조사 결과 3만원 이내인 도 시지역은 천안-아산이 40.5%, 공주-논산이 38.0%이고, 농촌인 금산-청양이 1만원이내는 34.5%로 나타났다.

〈표 63〉 문화행사 참여가 어려운 이유

조사항목	지역	응답내용	응답율(%)
문화행사에 참여 어려움	천안-아산	관련정보가 부족하다	29.5
	공주-논산	관심(수준높은)프로그램이 없다	23.0
	금산-청양	관심(수준높은)프로그램이 없다	25.0
프로그램 이용 중요시	전체	내 자신의 만족감과 충족	27.8
선호형태	천안-아산	체험참여형	35.0
	공주-논산	체험참여형	35.0
	금산-청양	관람감상형	45.5
지불금액	천안-아산	3만원 이내	40.5
	공주-논산	3만원 이내	38.0
	금산-청양	1만원 이내	34.5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민들의 거주지 근처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확충이 39.5%로 나타났으며 문화기반시설 확충 방식은 문화적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중심으로 확충이 46.5%, 거주지 주변 문화기반시설 이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한 조사 결과 천안-아산은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이 31.0%, 공주-논산은 교육·오락·레저 등 다목적 이용 편의성이 32.0%, 금산-청양은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이 29.5%로 응답되었다.

〈표 64〉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

조사항목	지역별	응답내용	응답율(%)
문화기반시설 주요정책 방향	전체	주민들의 거주지 근처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확충	39.5
문화서비스 시설 확충방식	전체	문화적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중심으로 확충	46.5
문화기반시설 이용시 고려사항	천안-아산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	31.0
	공주-논산	교육, 오락 레저 등 다목적 이용편의성	32.0
	금산-청양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	29.5

■ 문화정체성 관련 지역문화정책 추진방향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위해 행정부문을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성 강화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의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 2.98점으로 3.0점의 평균보다 조금 낮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표 65〉 문화정체성을 위한 행정 보완사항 지역 비교

조사항목	지역	응답내용	응답율(%)
문화정체성을 위한 행정 보완사항	천안-아산	전문성 강화	29.5
	공주-논산	전문성 강화	43.5
	금산-청양	관련예산확충	40.0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이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은 지역간 격차 3.2점, 입지선정 3.2점, 문화시설수 3.1점, 프로그램 내용충실이 3.0점으로 나타나 지역별 특성화로 격차를 해소하고, 입지에 맞는 프로그램과 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되어 진다.

〈표 66〉 문화기반시설 평가 지역비교

조사항목		지역	응답자수(점)	조사항목		지역	응답자수(점)
문화기반시설 개선 사항	지역간격차 (3.17)	천안-아산	3.14	문화기반시설 평가	입지선정 (3.13)	천안-아산	3.18
		공주-논산	3.43			공주-논산	3.36
		금산-청양	2.94			금산-청양	2.85
	문화시설수 (3.07)	천안-아산	3.06		프로그램 내용충실 (3.04)	천안-아산	2.97
		공주-논산	3.22			공주-논산	3.28
		금산-청양	2.94			금산-청양	2.87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할 일에 대한 조사 결과, 문화정체성 관련 시설의 정비와 확충이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주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19.5%로 응답되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운영면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시설 확충이 29.2%로 나타났다.

〈표 67〉 문화시설 역점시책 및 활용도 방안 지역비교

조사항목	지역	응답항목	응답율(%)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역점시책 (1순위)	천안-아산	다양한 문화 정체성 프로그램 제공	19.0
	공주-논산	다양한 문화 정체성 프로그램 제공	21.0
	금산-청양	문화정체성 관련 시설의 정비와 확충	29.2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역점시책 (2순위)	천안-아산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	14.0
	공주-논산	주민 지역문화교육 기회 확대	18.5
	금산-청양	문화정체성 관련시설의 정비와 확충	23.5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활용도 방안(1순위)	천안-아산	지역문화정체성 관련 시설간의 연계화	24.5
	공주-논산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개발	20.5
	금산-청양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개발	28.5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활용도방안(2순위)	천안-아산	주민들을 고려한 탄력적인 이용시간	21.5
	공주-논산	문화정체성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확대	17.0
	금산-청양	지역 문화정체성 시설간의 연계화	19.0

(2) 지역주민 설문분석의 적용 시사점

■ 문화기반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 인식 변화 유도

지역문화기반시설 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과제로는 운영인력의 전문화와 재정확대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문화기반시설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문화적 욕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삶 혹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문화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문화기반시설이 해야 하겠다.

충남도만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도시지역은 문화기반시설 이용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농촌지역은 비교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주민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였다. 특히, 문화정체성에 대한 관심부족이 30.0% 정도를 차지하여 관심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 지역별 문화정체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시·군민회관, 공공도서관, 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각 시·군지역에서 기존에 건립된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정체성을 소재로 하는 공연과 전시회, 축제와 이벤트, 음악회 등을 활성화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천안-아산의 도시지역은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반면, 금산-청양의 농촌지역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규모가 크고 문화시설이 풍부한 지역일수록 지역주민의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기반시설의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의식 고취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 대한 지역문화교육과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활성화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문화기반시설은 있으나 지역문화정체성과 연계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면에서 도시지역 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지역특성과 문화정체성을 고려한 문화시설의 확충과 운영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 문화기반시설의 지역간 차별화와 입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제공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있어서도 지역간 차별화와 입지에 적합한 문화시설 및 공간의 확충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수요에 적합하고,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보유 자원들과 연계된 문화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및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는 문화정체성 관련 시설의 정비와 확충, 다양한 문화 정체성 프로그램 제공, 시민문화정체성 교육기회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와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지역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정체성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한다.

■ 문화기반시설 이용서비스와 관련 시설 간 연계성 강화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문화정체성 관련 서비스 항목 만족도에서 직원친절과 이용가능시간 다양, 편의시설 쾌적성 등에서 높은 만족도이고 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 획득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역 정체성과 연계된 예술행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행사에 대한 문화행사정보 제공과 관심 있는 프로그램의 발굴육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관람감상형 행사보다는 체험참여형의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거주지 근처에 생활권내의 문화수요에 적합한 공연과 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연장(문예회관 등) 등의 생활권 문화기반시설 조성 and 운영활성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주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개발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정체성 관련 시설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하겠다.

■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인력 전문화와 재정확대 및 홍보 강화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위해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전문성의 강화와 예산확충이 필

요하고, 문화정체성 관련 만족도가 낮게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문화기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화에 대해 높게 나타나고 금산-청양 지역의 경우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확대가 높게 나타나, 지역의 도시와 농촌에서 문화시설 규모 및 시설 여건에 따라 정책방향을 달리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용 시간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과 문화정체성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확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강화와 주민들의 지역문화 교육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였다.

4. 문화시설 관련 담당자 조사 분석

1) 조사 분석의 개요

(1) 조사목적

충남의 대표 지역 6개 시군의 문화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문화시설 관련 담당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시설 담당자의 조사를 통하여 지역문화 서비스 제공방안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함이다.

(2) 조사방법 및 대상

설문방법은 서면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지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화시설 관련 공무원과 문화기반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문화적 정체성과 지역문화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문화관련 시설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3) 설문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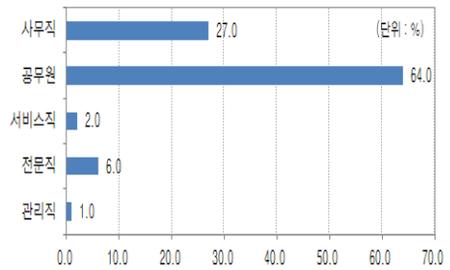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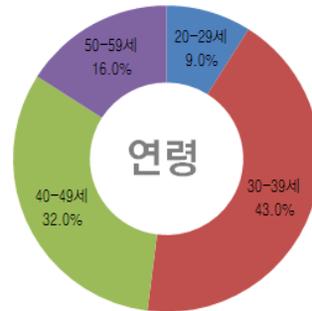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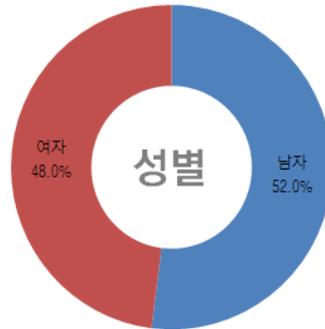
담당자를 위한 설문지는 문화정책성과 연계한 문화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사용된 척도는 명목척도와 5점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115부가 회수되었고, 그 가운데 무성의한 응답 및 진실성이 떨어지는 설문응답 15부를 제외한 100부가 유효표본으로 분석에 이용되었다.

(4)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총 유효 표본은 1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남자가 52.0%로 여자 48.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조사결과 30대인 30-39세 집단이 전체의 과반수 정도인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가 32.0%, 50대가 16.0%, 20대가 9.0%로 나타났다. 직업은 공무원이 64.0%로 가장 높았고, 학력은 대졸자가 70.0%로 가장 높았고 고졸이 28.0%, 대학원 이상이 2.0%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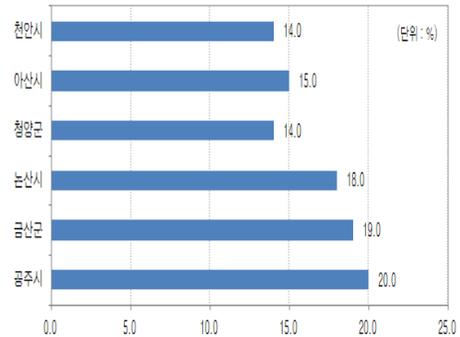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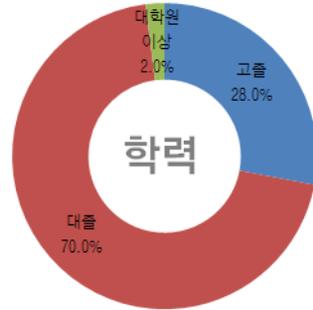
〈표 68〉 담당자 인구통계적 특성(1)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남자	52	52.0
여자	48	48.0
합계	100	100.0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20-29세	9	9.0
30-39세	43	43.0
40-49세	32	32.0
50-59세	16	16.0
합계	100	100.0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사무직	27	27.0
공무원	64	64.0
서비스직	2	2.0
전문직	6	6.0
관리직	1	1.0
합계	100	100.0



〈표 69〉 담당자 인구통계적 특성(2)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고졸	28	28.0
대졸	70	70.0
대학원 이상	2	2.0
합계	100	100.0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천안시	14	14.0
아산시	15	15.0
청양군	14	14.0
논산시	18	18.0
금산군	19	19.0
공주시	20	20.0
합계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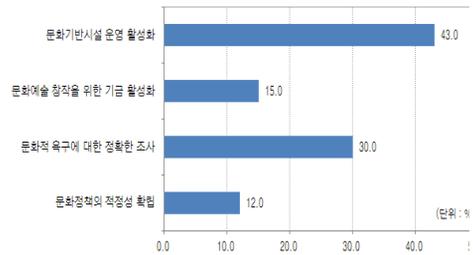
2) 담당자 의식조사 결과

(1) 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

문화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3.0%,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기금 활성화가 15.0%,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조사가 30.0%, 문화정책의 적절성 확립이 12.0%로 나타났다. 시군별 교차분석 결과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가장 많은 의견을 나타낸 반면 공주-논산지역과 금산-청양 지역은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많은 의견을 나타냈다.

〈표 70〉 문화서비스 기능 확대 방안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43	43.0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기금 활성화	15	15.0
문화적 욕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	30	30.0
문화정책의 적절성 확립	12	12.0
합계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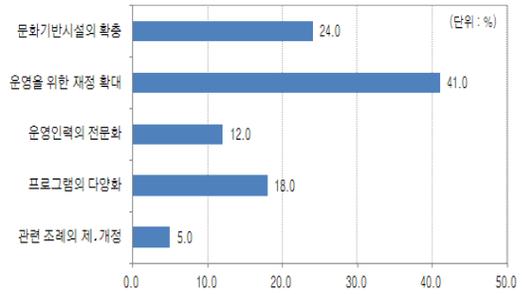
항 목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활성화	빈도 (명)	9	17	17	43
	지역별 (%)	20.9	39.5	39.5	100.0
	항목별 (%)	31.0	44.7	51.5	43.0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기금활성화	빈도 (명)	-	11	4	15
	지역별 (%)	-	73.3	26.7	100.0
	항목별 (%)	-	28.9	12.1	15.0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	빈도 (명)	14	8	8	30
	지역별 (%)	46.7	26.7	26.7	100.0
	항목별 (%)	48.3	21.1	24.2	30.0
문화정책의 적절성 확립	빈도 (명)	6	2	4	12
	지역별 (%)	50.0	16.7	33.3	100.0
	항목별 (%)	20.7	5.3	12.1	12.0
전체	빈도 (명)	29	38	33	100
	지역별 (%)	29.0	38.0	33.0	100.0
	항목별 (%)	100.0	100.0	100.0	100.0

문화기반시설 활용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를 위해 조사한 결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24.0%,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확대가 41.0%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분석 결과, 천안-아산의 경우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책대와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응답이 높은 반면 공주-논산과 금산-청양 지역의 경우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책대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표 71〉 문화기반시설 활용을 위한 과제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24	24.0
운영을 위한 재정 확대	41	41.0
운영인력의 전문화	12	12.0
프로그램의 다양화	18	18.0
관련 조례의 제·개정	5	5.0
합계	100	100.0



항 목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빈도 (명)	5	11	8	24
	지역별 (%)	20.8	45.8	33.3	100.0
	항목별 (%)	17.2	28.9	24.2	24.0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확대	빈도 (명)	9	13	19	41
	지역별 (%)	22.0	31.7	46.3	100.0
	항목별 (%)	31.0	34.2	57.6	41.0
문화기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화	빈도 (명)	6	3	3	12
	지역별 (%)	50.0	25.0	25.0	100.0
	항목별 (%)	20.7	7.9	9.1	12.0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의 다양화	빈도 (명)	8	8	2	18
	지역별 (%)	44.4	44.4	11.1	100.0
	항목별 (%)	27.6	21.1	6.1	18.0
문화기반시설 관련 조례의 제·개정	빈도 (명)	1	3	1	5
	지역별 (%)	20.0	60.0	20.0	100.0
	항목별 (%)	3.4	7.9	3.0	5.0
전체	빈도 (명)	29	38	33	100
	지역별 (%)	29.0	38.0	33.0	100.0
	항목별 (%)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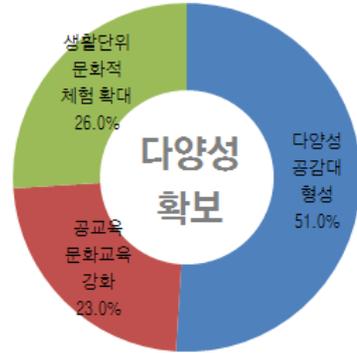
다음으로 문화적 욕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삶 혹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51.0%, 공교육에서의 문화교육 강화가 23.0%, 생활단위

에서 문화적 체험의 확대가 26.0%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분석 결과, 공주-논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삶 혹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표 72〉 문화적 욕구 다양성 확보 방안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다양성 공감대 형성	51	51.0
공교육 문화교육 강화	23	23.0
생활단위 문화적 체험 확대	26	26.0
합계	100	100.0



항 목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삶 혹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빈도 (명)	12	26	13	51
	지역별 (%)	23.5	51.0	25.5	100.0
	항목별 (%)	41.4	68.4	39.4	51.0
공교육에서의 문화교육 강화	빈도 (명)	8	7	8	23
	지역별 (%)	34.8	30.4	34.8	100.0
	항목별 (%)	27.6	18.4	24.2	23.0
생활단위에서 문화적 체험의 확대	빈도 (명)	9	5	12	26
	지역별 (%)	34.6	19.2	46.2	100.0
	항목별 (%)	31.0	13.2	36.4	26.0
전 체	빈도 (명)	29	38	33	100
	지역별 (%)	29.0	38.0	33.0	100.0
	항목별 (%)	100.0	100.0	100.0	100.0

(2) 충남 문화정체성에 대한 인식

충청남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정체성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3.1점으로 보통이라는 의견이었으며,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도 평균 2.9점으로 평균의 결과를 나타냈고, 지역의 문화적 전통이 현대까지 전승 또는 창조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은 평균 이하인 2.7점의 응답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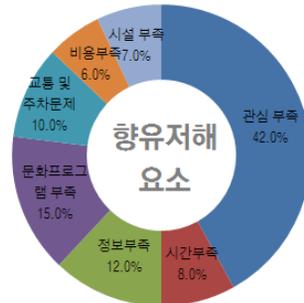
〈표 73〉 문화정체성 관련 의견

지역별	구 분	문화정체성	문화서비스제공	전승창조적발전
천안-아산	평균	3.0	3.0	2.8
	응답자(명)	29	29	29
	표준편차	0.85	0.91	0.77
공주-논산	평균	3.1	2.9	2.6
	응답자(명)	38	38	38
	표준편차	0.85	0.69	0.76
금산-청양	평균	3.1	2.9	2.7
	응답자(명)	33	33	33
	표준편차	0.83	0.77	0.77
합계	평균	3.1	2.9	2.7
	응답자(명)	100	100	100
	표준편차	0.83	0.77	0.76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문화기반시설 향유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으로는 문화정체성에 대한 관심 부족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부족이 8.0%, 정보부족이 12.0%, 정체성 관련 프로그램 부족이 15.0%, 교통 및 주차문제 10.0%, 비용부족 6.0%, 시설부족 7.0%로 나타났다.

〈표 74〉 문화기반시설 향유에 있어 문제 요소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문화정체성 관심 부족	42	42.0
시간부족	8	8.0
정보부족	12	12.0
문화프로그램 부족	15	15.0
교통 및 주차문제	10	10.0
비용부족	6	6.0
시설 부족	7	7.0
합계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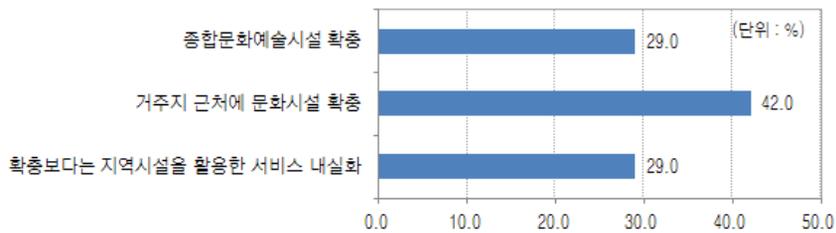


(3)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기반시설 정책에 대한 인식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기반시설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정체성 관련 종합문화예술시설 확충이 29.0%, 주민들의 거주지 근처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확충이 42.0%로 나타났으며, 확충보다는 구민회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을 주민들에게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내실화 해야 한다는 응답은 29.0%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 결과 천안-아산, 금산-청양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거주지 근처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주-논산지역의 경우 문화정체성 관련 종합문화예술시설 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5〉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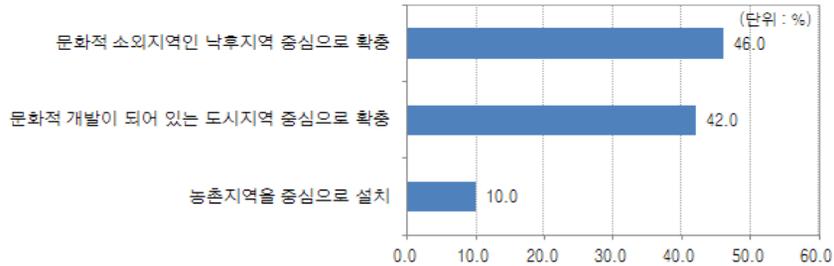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문화정체성 관련 종합문화예술시설 확충	29	29.0
주민들의 거주지 근처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확충	42	42.0
확충보다는 구민회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을 주민들에게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내실화	29	29.0
합계	100	100.0

문화기반시설 확충 방식은 문화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 중심으로 확충하자는 의견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적 기반이 되어 있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자는 의견도 42%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분석 결과, 천안-아산과, 공주-논산 지역은 문화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 중심으로 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산-청양 지역은 문화적 기반이 되어 있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6〉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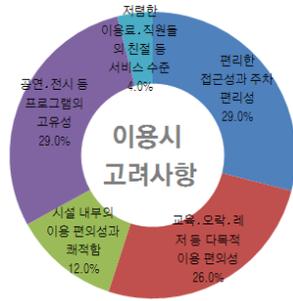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문화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 중심으로 확충		46	46.0		
문화적 기반이 되어 있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확충		42	42.0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10	10.0		
기타		2	2.0		
합계		100	100.0		
항 목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문화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 중심으로 확충	빈도 (명)	14	19	13	46
	지역별 (%)	30.4	41.3	28.3	100.0
	항목별 (%)	48.3	50.0	39.4	46.0
문화적 기반이 되어 있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확충	빈도 (명)	10	15	17	42
	지역별 (%)	23.8	35.7	40.5	100.0
	항목별 (%)	34.5	39.5	51.5	42.0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빈도 (명)	4	4	2	10
	지역별 (%)	40.0	40.0	20.0	100.0
	항목별 (%)	13.8	10.5	6.1	10.0
기타	빈도 (명)	1	-	1	2
	지역별 (%)	50.0	-	50.0	100.0
	항목별 (%)	3.4	-	3.0	2.0
전 체	빈도 (명)	29	38	33	100
	지역별 (%)	29.0	38.0	33.0	100.0
	항목별 (%)	100.0	100.0	100.0	100.0

거주지 주변 문화기반시설 이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과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오락·레저 등 다목적 이용 편의성이 26.0%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천안-아산과 금산-청양은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주-논산 지역의 경우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7〉 거주지 주변 문화기반시설 이용 시 고려 사항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	29	29.0
교육·오락·레저 등 다목적 이용 편의성	26	26.0
시설 내부의 이용 편의성과 쾌적함	12	12.0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	29	29.0
저렴한 이용료·직원들의 친절 등 서비스 수준	4	4.0
합계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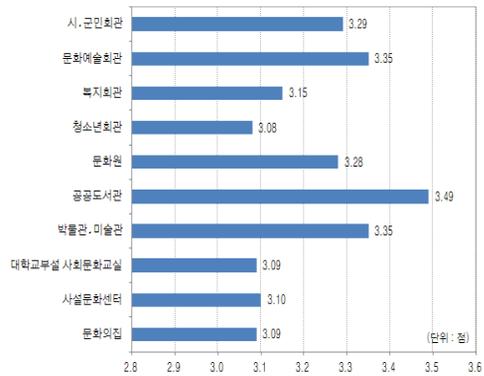


항 목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	빈도 (명)	6	17	6	29
	지역별 (%)	20.7	58.6	20.7	100.0
	항목별 (%)	20.7	44.7	18.2	29.0
교육,오락, 레저 등 다목적 이용편의성	빈도 (명)	6	12	8	26
	지역별 (%)	23.1	46.2	30.8	100.0
	항목별 (%)	20.7	31.6	24.2	26.0
시설내부의 이용편의성과 쾌적함	빈도 (명)	4	4	4	12
	지역별 (%)	33.3	33.3	33.3	100.0
	항목별 (%)	13.8	10.5	12.1	12.0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	빈도 (명)	9	5	15	29
	지역별 (%)	31.0	17.2	51.7	100.0
	항목별 (%)	31.0	13.2	45.5	29.0
저렴한 이용료, 직원들의 친절 등 서비스 수준	빈도 (명)	4	0	0	4
	지역별 (%)	100.0	0.0	0.0	100.0
	항목별 (%)	13.8	0.0	0.0	4.0
전체	빈도 (명)	29	38	33	100
	지역별 (%)	29.0	38.0	33.0	100.0
	항목별 (%)	100.0	100.0	100.0	100.0

문화시설 중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미술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78〉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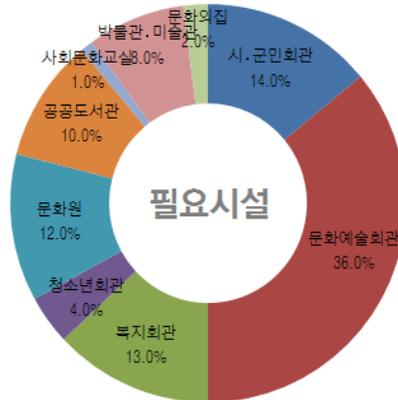
구 분	평균	순위
시·군민회관	3.29	4
문화예술회관	3.35	2
복지회관	3.15	6
청소년회관	3.08	10
문화원	3.28	5
공공도서관	3.49	1
박물관·미술관	3.35	2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3.09	8
사설문화센터	3.10	7
문화의집	3.09	8



지역의 문화시설 중 지역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문화예술회관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군민회관이 14%, 복지회관이 13%, 문화원이 12%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차이는 없었다.

〈표 79〉 문화기반시설 중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시·군민회관	14	14.0
문화예술회관	36	36.0
복지회관	13	13.0
청소년회관	4	4.0
문화원	12	12.0
공공도서관	10	10.0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1	1.0
박물관·미술관	8	8.0
문화의집	2	2.0
합계	100	100.0



문화시설 이용 시 문화정체성 관련 서비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직원의 친절도에 대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차이분석 결과,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가능시간 다양, 직원친절, 교통주차편리에 대

해서 도시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가능시간의 다양성과 직원친절 항목의 경우 금산-청양과 천안-아산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주차 편리 항목에 대해서는 천안-아산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0〉 문화정체성 관련 서비스 항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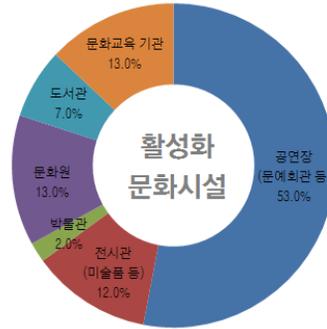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문화기반시설에 문화정체성 관련 유익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많다		3.22	0.66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 식당/매점 등 시설(편의시설)이 쾌적하다		2.97	0.77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이용가능 시간이 다양하고 편리하다		3.22	0.76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친절하다		3.38	0.74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의 교통 및 주차가 편리하다		3.19	0.69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다		3.22	0.70				
지역유형 별	항목	유익프로그램	편의시설 쾌적	이용가능 시간다양	직원친절	교통주차 편리	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
천안-아산	평균	3.4	2.9	3.5	3.7	3.5	3.4
	응답자(명)	29	29	29	29	29	29
	표준편차	0.78	0.77	0.83	0.90	0.78	0.90
공주-논산	평균	3.1	3.1	3.2	3.2	3.2	3.2
	응답자(명)	38	38	38	38	38	38
	표준편차	0.51	0.78	0.66	0.69	0.64	0.56
금산-청양	평균	3.2	2.8	3.0	3.4	2.9	3.1
	응답자(명)	33	33	33	33	33	33
	표준편차	0.70	0.76	0.75	0.55	0.56	0.65
합계	평균	3.2	3.0	3.2	3.4	3.2	3.2
	응답자(명)	100	100	100	100	100	100
	표준편차	0.66	0.77	0.76	0.74	0.69	0.70

문화정체성과 관련 문화기반시설 제공에 대해서는 공연장(문예회관 등)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원과 문화교육 기관이 각각 13%, 전시관(미술품 등)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81〉 활성화해야 되는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공연장(문예회관 등)	53	53.0
전시관(미술품 등)	12	12.0
박물관	2	2.0
문화원	13	13.0
도서관	7	7.0
문화교육 기관	13	13.0
합계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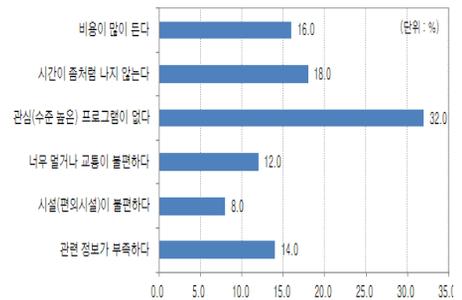


문화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없다는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간이 나지 않는다가 18.0%, 비용이 많이 든다가 16.0%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분석 결과, 모든 지역에서 관심(수준 높은)프로그램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천안-아산 지역은 비용과 정보부족이라는 비율이 높았고 공주-논산 지역은 시간 부족, 금산-청양 지역은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82〉 문화행사 참여의 어려움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비용이 많이 든다	16	16.0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18	18.0
관심(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없다	32	32.0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다	12	12.0
시설(편의시설)이 불편하다	8	8.0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14	14.0
합계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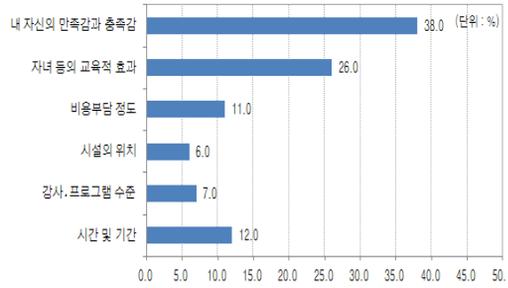
〈표 83〉 문화행사 참여 어려움의 지역별 비교분석

항 목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비용이 많이 든다	빈도 (명)	6	4	6	16
	지역별 응답율(%)	20.7	10.5	18.2	
	전체 (%)	6.0	4.0	6.0	16.0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빈도 (명)	4	10	4	18
	지역별 응답율(%)	13.8	26.3	12.1	
	전체 (%)	4.0	10.0	4.0	18.0
관심(수준높은)프로그램이 없다	빈도 (명)	8	10	14	32
	지역별 응답율(%)	27.6	26.3	42.4	
	전체 (%)	8.0	10.0	14.0	32.0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다	빈도 (명)	3	4	5	12
	지역별 응답율(%)	10.3	10.5	15.2	
	전체 (%)	3.0	4.0	5.0	12.0
시설(편의시설)이 불편하다	빈도 (명)	2	3	3	8
	지역별 응답율(%)	6.9	7.9	9.1	
	전체 (%)	2.0	3.0	3.0	8.0
관련정보가 부족하다	빈도 (명)	6	7	1	14
	지역별 응답율(%)	20.7	18.4	3.0	
	전체 (%)	6.0	7.0	1.0	14.0
전 체	빈도 (명)	29	38	33	100
	지역별 응답율(%)	100.0	100.0	100.0	
	전체 (%)	29.0	38.0	33.0	100.0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설문 결과 내 자신의 만족감과 충족감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녀 등의 교육적 효과를 중요시 한다는 응답이 26.0%로 나타났다.

〈표 84〉 프로그램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점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내 자신의 만족감과 충족감	38	38.0
자녀 등의 교육적 효과	26	26.0
비용부담 정도	11	11.0
시설의 위치	6	6.0
강사·프로그램 수준	7	7.0
시간 및 기간	12	12.0
합계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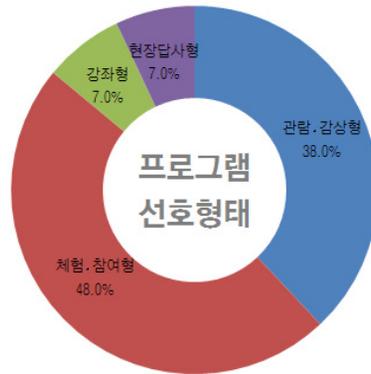


항 목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내 자신의 만족감과 충족	빈도 (명)	10	14	14	38
	지역별 (%)	26.3	36.8	36.8	100.0
	항목별 (%)	34.5	36.8	42.4	38.0
자녀 등의 교육적 효과	빈도 (명)	7	9	10	26
	지역별 (%)	26.9	34.6	38.5	100.0
	항목별 (%)	24.1	23.7	30.3	26.0
비용부담 정도	빈도 (명)	5	2	4	11
	지역별 (%)	45.5	18.2	36.4	100.0
	항목별 (%)	17.2	5.3	12.1	11.0
시설의 위치	빈도 (명)	1	3	2	6
	지역별 (%)	16.7	50.0	33.3	100.0
	항목별 (%)	3.4	7.9	6.1	6.0
강사프로그램 수준	빈도 (명)	2	2	3	7
	지역별 (%)	28.6	28.6	42.9	100.0
	항목별 (%)	6.9	5.3	9.1	7.0
시간 및 기간	빈도 (명)	4	8	-	12
	지역별 (%)	33.3	66.7	-	100.0
	항목별 (%)	13.8	21.1	-	12.0
전체	빈도 (명)	29	38	33	100
	지역별 (%)	29.0	38.0	33.0	100.0
	항목별 (%)	100.0	100.0	100.0	100.0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설문 결과 체험 참여형이 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람감상형이 38%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분석 결과, 천안-아산지역은 체험참여형이 가장 높았고 공주-논산은 관람감상형이 가장 높았으며, 금산-청양은 체험참여형이 높게 나타났다.

〈표 85〉 프로그램 선호 형태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관람·감상형	38	38.0
체험·참여형	48	48.0
강좌형	7	7.0
현장답사형	7	7.0
합계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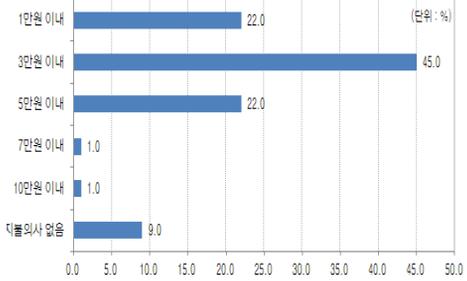


항 목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관람감상형	빈도 (명)	8	20	10	38
	지역별 응답율(%)	27.6	52.6	30.3	
	전체 (%)	8.0	20.0	10.0%	38.0
체험참여형	빈도 (명)	16	14	18	48
	지역별 응답율(%)	55.2	36.8	54.5	
	전체 (%)	16.0	14.0	18.0	48.0
강좌형	빈도 (명)	1	2	4	7
	지역별 응답율(%)	3.4	5.3	12.1	
	전체 (%)	1.0	2.0	4.0	7.0
현장답사형	빈도 (명)	4	2	1	7
	지역별 응답율(%)	13.8	5.3	3.0	
	전체 (%)	4.0	2.0	1.0	7.0
전체	빈도 (명)	29	38	33	100
	지역별 응답율(%)	100.0	100.0	100.0	
	전체 (%)	29.0	38.0	33.0	100.0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행사나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에 대한 조사 결과 3만원이내가 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만원 이내와 5만원 이내가 각각 22.0%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3만원이내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천안-아산의 경우 5만원이내가 높았으며, 공주-논산의 경우 1만원이내, 금산-청양의 경우 5만원이내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표 86〉 행사나 프로그램 지불의사 금액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1만원 이내	22	22.0
3만원 이내	45	45.0
5만원 이내	22	22.0
7만원 이내	1	1.0
10만원 이내	1	1.0
지불의사 없음	9	9.0
합계	100	100.0



항 목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1만원이내	빈도 (명)	3	12	7	22
	지역별 응답율(%)	10.3	31.6	21.2	
	전체 (%)	3.0	12.0	7.0	22.0
3만원이내	빈도 (명)	15	16	14	45
	지역별 응답율(%)	51.7	42.1	42.4	
	전체 (%)	15.0	16.0	14.0	45.0
5만원 이내	빈도 (명)	9	3	10	22
	지역별 응답율(%)	31.0	7.9	30.3	
	전체 (%)	9.0	3.0	10.0	22.0
7만원 이내	빈도 (명)	1	-	-	1
	지역별 응답율(%)	3.4	-	-	
	전체 (%)	1.0	-	-	1.0
10만원 이내	빈도 (명)	-	-	1	1
	지역별 응답율(%)	-	-	3.0	
	전체 (%)	-	-	1.0	1.0
지불의사 없음	빈도 (명)	1	7	1	9
	지역별 응답율(%)	3.4	18.4	3.0	
	전체 (%)	1.0	7.0	1.0	9.0
전 체	빈도 (명)	29	38	33	100
	지역별 응답율(%)	100.0	100.0	100.0	
	전체 (%)	29.0	38.0	3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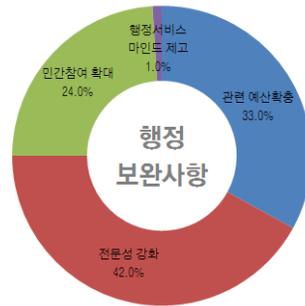
(4)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인식

지역문화정책성을 위해 행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전문성 강화가 4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을 관련 예산확충이 33.0%, 민간참여 확대가 24.0%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분석 결과, 천안-아산지역의 경우 민간참여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주-논산의 경우 관련 예산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금산-청양의 경우 전문성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7〉 문화정책성을 위한 행정 보완 사항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관련 예산확충	33	33.0
전문성 강화	42	42.0
민간참여 확대	24	24.0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	1	1.0
합계	100	100.0



항 목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관련 예산확충	빈도 (명)	6	16	11	33
	지역별 응답율(%)	20.7	42.1	33.3	
	전체 (%)	6.0	16.0	11.0	33.0
전문성 강화	빈도 (명)	11	14	17	42
	지역별 응답율(%)	37.9	36.8	51.5	
	전체 (%)	11.0	14.0	17.0	42.0
민간참여 확대	빈도 (명)	12	7	5	24
	지역별 응답율(%)	41.4	18.4	15.2	
	전체 (%)	12.0	7.0	5.0	24.0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	빈도 (명)	-	1	-	1
	지역별 응답율(%)	-	2.6	-	
	전체 (%)	-	1.0	-	1.0
전 체	빈도 (명)	29	38	33	100
	지역별 응답율(%)	100.0	100.0	100.0	
	전체 (%)	29.0	38.0	3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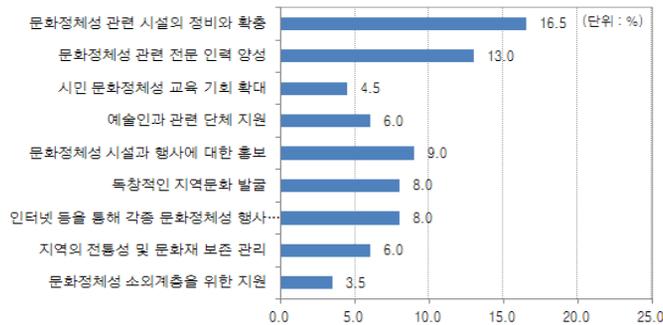
지역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2.99점으로 평균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별 분석 결과 천안-아산은 3.21점으로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88〉 지역별 문화정책에 대한 만족도

지역별	평균	응답자(명)
천안-아산	3.21	29
공주-논산	2.92	38
금산-청양	2.88	33
합계	2.99	100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할 일에 대한 조사결과, 다양한 문화정체성 프로그램 제공이 합계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정체성 관련 시설의 정비와 확충이 16.5%, 전문 인력 양성이 13.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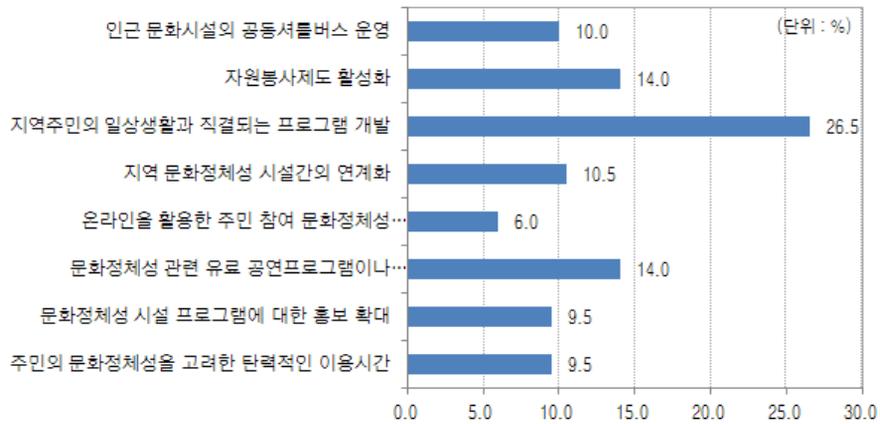
〈표 89〉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 역점 추진 사항



구 분	1순위	2순위	전체 응답자 (명)	비율 (%)
	빈도	빈도		
다양한 문화정체성 프로그램 제공	31	20	51	25.5
문화정체성 관련 시설의 정비와 확충	21	12	33	16.5
문화정체성 관련 전문 인력 양성	13	13	26	13.0
시민 문화정체성 교육 기회 확대	5	4	9	4.5
예술인과 관련 단체 지원	7	5	12	6.0
문화정체성 시설과 행사에 대한 홍보	3	15	18	9.0
독창적인 지역문화 발굴	7	9	16	8.0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문화정체성 행사 정보제공 활성화	5	11	16	8.0
지역의 전통성 및 문화재 보존 관리	3	9	12	6.0
문화정체성 관련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5	2	7	3.5
합계	100	100	200	100.0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주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순위에서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40.0%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2순위에서는 자원봉사제도 활성화가 1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중응답 결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원봉사제도 활성화와 문화정체성 관련 유료 공연프로그램이나 전시프로그램의 패키지 티켓활용이 각각 14.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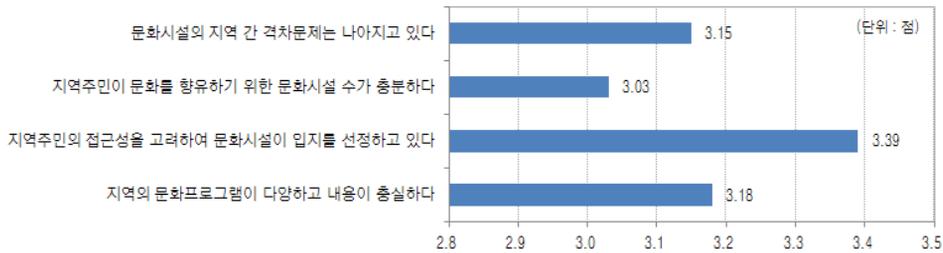
〈표 90〉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주민 활용도 제고 방안



구 분	1순위	2순위	전체 응답자 (명)	비율 (%)
	응답자 (명)	응답자 (명)		
인근 문화시설의 공동서틀버스 운영	9	11	20	10.0
자원봉사제도 활성화	11	17	28	14.0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개발	40	13	53	26.5
지역 문화정체성 시설간의 연계화	8	13	21	10.5
온라인을 활용한 주민 참여 문화정체성 프로그램 개발	4	8	12	6.0
문화정체성 관련 유료 공연프로그램이나 전시프로그램의 패키지 티켓활용	12	16	28	14.0
문화정체성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확대	7	12	19	9.5
주민의 문화정체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이용시간	9	10	19	9.5
합계	100	100	200	100.0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평균 이상의 평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역별 분석에서 금산-청양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문화시설 수가 충분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인 2.8의 평가를 나타냈다.

〈표 91〉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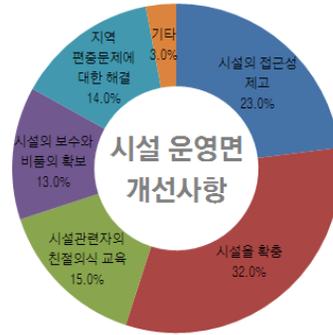
구 분					평균	표준편차
1)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문제는 나아지고 있다					3.15	0.80
2) 지역주민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문화시설 수가 충분하다					3.03	0.81
3)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이 입지를 선정하고 있다					3.39	0.79
4) 지역의 문화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3.18	0.85
지역유형별	항 목	지역간격차	문화시설수	입지선정	프로그램내용 충실	
천안-아산	평균	3.3	3.1	3.6	3.5	
	응답자(명)	29	29	29	29	
	표준편차	0.80	0.79	0.91	0.99	
공주-논산	평균	3.1	3.1	3.4	3.1	
	응답자(명)	38	38	38	38	
	표준편차	0.78	0.80	0.71	0.78	
금산-청양	평균	3.1	2.8	3.2	3.0	
	응답자(명)	33	33	33	33	
	표준편차	0.83	0.83	0.75	0.73	
합계	평균	3.2	3.0	3.4	3.2	
	응답자(명)	100	100	100	100	
	표준편차	0.80	0.81	0.79	0.85	
	F값	0.576	1.257	1.499	3.066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운영면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시설 확충이 32.0%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설의 접근성 제고가 23.0%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 결과, 천안-아산의 경우 시설 확충과 지역 편중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응답하였고 공주-논산의 경우 시설의 접근성 제고와 시설확충을, 금산-청양의 경우 시설확충과 시설의 보수와 비품의 확보를 개선할 사항으로 응답하였다.

〈표 92〉 문화시설 운영의 개선 사항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시설의 접근성 제고	23	23.0
시설을 확충	32	32.0
시설관련자의 친절의식 교육	15	15.0
시설의 보수와 비품의 확보	13	13.0
지역 편중문제에 대한 해결	14	14.0
기타	3	3.0
합계	100	100.0



항 목		지역유형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시설의 접근성 제고	빈도 (명)	2	17	4	23
	지역별 응답율(%)	6.9	44.7	12.1	
	전체 (%)	2.0	17.0	4.0	23.0
시설 확충	빈도 (명)	10	10	12	32
	지역별 응답율(%)	34.5	26.3	36.4	
	전체 (%)	10.0	10.0	12.0	32.0
시설 관련자의 친절의식교육	빈도 (명)	5	6	4	15
	지역별 응답율(%)	17.2	15.8	12.1	
	전체 (%)	5.0	6.0	4.0	15.0
시설의 보수와 비품의 확보	빈도 (명)	3	1	9	13
	지역별 응답율(%)	10.3	2.6	27.3	
	전체 (%)	3.0	1.0	9.0	13.0
지역 편중문제에 대한 해결	빈도 (명)	7	4	3	14
	지역별 응답율(%)	24.1	10.5	9.1	
	전체 (%)	7.0	4.0	3.0	14.0
기타	빈도 (명)	2	-	1	3
	지역별 응답율(%)	6.8	-	3.0	
	전체 (%)	2.0	-	1.0	3.0
전체	빈도 (명)	29	38	33	100
	지역별 응답율(%)	100.0	100.0	100.0	
	전체 (%)	29.0	38.0	3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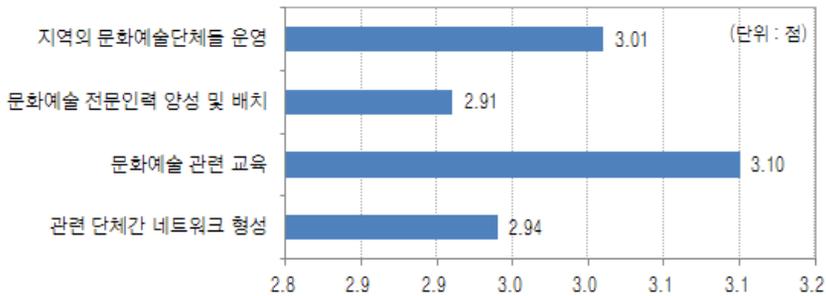
(5) 문화시설 관련 운영 실태와 발전방향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 운영에 대한 관련 담당자 조사 결과 평균 3.0로 보통의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지역별 분석에서는 공주-논산은 3.2의 평균 이상의 평가를 내린 반면 다른 지역은 평균 이하의 평가를 나타냈다.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에 대한 관련 담당자 조사 결과 평균 2.9로 지역별 평가에서 공주-논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평균 이하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문화예술 관련 교육에 대한 관련 담당자 조사 결과는 평균 3.1로 평균이상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지역별 조사에서 천안-아산지역과 공주-논산은 평균 이상의 평가를 내린 반면, 금산-청양의 경우 평균 이하의 평가를 내렸다. 관련 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관련 담당자 조사 결과는 평균 2.9로 보통보다 조금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지역별 평가에서는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표 93〉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평가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 운영	3.01	0.76
2)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2.91	0.77
3) 문화예술 관련 교육	3.10	0.77
4) 관련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2.94	0.68

〈표 94〉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지역별 평가

지역유형별	항목	단체운영	전문인력양성	관련교육	네트워크형성
천안-아산	평균	2.9	2.8	3.3	3.0
	응답자(명)	29	29	29	29
	표준편차	0.92	0.80	0.88	0.85
공주-논산	평균	3.2	3.2	3.2	2.9
	응답자(명)	38	38	38	38
	표준편차	0.68	0.73	0.68	0.65
금산-청양	평균	2.8	2.7	2.9	2.9
	응답자(명)	33	33	33	33
	표준편차	0.64	0.69	0.74	0.56
합 계	평균	3.0	2.9	3.1	2.9
	응답자(명)	100	100	100	100
	표준편차	0.76	0.77	0.77	0.68

(6) 기타의견

기타 문화정체성을 위해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95〉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제시 사항

구분	주요내용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지역주민의 문화행사 볼거리 제공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 만들기 문화행사나 프로그램의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마련 지역별 문화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 방과후 활동 역사 체험 프로그램 수업 늘리기 수준높은 프로그램 유치
문화시설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도서관 증대 기존 문화시설물 공유(공연 규모에 맞게) 문화원 사업지원(지역문화 자료 확보) 생활 예절교육장 확대
예산확대	문화서비스 관련 예산 확보/확대 충분한 예산확보로 지역민의 문화혜택의 기회 제공 균등 예산으로 소외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축제를 활성화 기존에 조성된 문화시설에 대한 컨설팅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함 전문 인력 운용의 재정적 확충이 필요
홍보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홍보 지자체의 적극적인 문화 행사 홍보와 추진 활동 요함 문화재 홍보 부족/문화재 관련 자료 주민 홍보하기(박문수 초상 홍보) 인터넷문화행사알림서비스 홍보활동 공동참여(사회단체)
행정서비스	문화기반시설 이용을 위해 접근이 편리하도록 행정서비스 필요 기존 문화시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책 개발 지속가능한 문화 정책 수립
인력	문화재관련 전문 인력키우기 문화시설에 전문 인력을 투입한 유지 관리필요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1) 문화시설 관련 공무원 및 운영자 설문조사 종합정리

■ 지역문화서비스의 기능 확대방안과 과제

문화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응답자가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자원 활용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전체 응답의 41.0%인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확대가 응답되었다.

문화적 욕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삶 혹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6〉 지역문화서비스 기능 확대 방안 지역비교

조사항목	지역	응답항목	응답율(%)
지역문화서비스 기능 확대 방안	천안-아산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조사	48.3
	공주-논산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활성화	44.7
	금산-청양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활성화	51.5
	전체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활성화	43.0
문화자원 활용의 해결과제	전체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확대	41.0
지역주민 문화욕구 다양성 확보방안	전체	삶 혹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51.0

■ 충남 문화정체성 관련 인식과 문화서비스 제공 인식

충청남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정체성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3.1점으로 나타나 보통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도 평균 2.9점으로 평균의 결과를 나타냈고, 지역의 문화적 전통이 현대까지 전승 또는 창조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은 평균 이하인 2.7점이었다. 문화정체성과 관련하여 문화서비스 향유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으로는 문화정체성에 대한 관심 부족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7〉 문화정체성 관련 인식과 서비스 향유 지역 비교

조사항목	지역	응답점수(점) (5점 만점)	
문화정체성의 유무 정도	전체	3.05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 정도	전체	2.92	
전통문화의 현대전 전승과 창조적 변화 정도	전체	2.68	
조사항목	지역	응답내용	응답율(%)
문화서비스 향유 문제점	전체	문화정체성에 대한 관심 부족	42.0

■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기반시설 향유 실태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기반시설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민들의 거주지 근처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확충이 42.0%로 응답되었으며, 문화기반시설 시설 확충 방식은 문화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 중심으로 확충하자는 의견이 46.0%로 나타났다.

거주지 주변 문화기반시설 이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과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이 각각 29.0%로 응답되었다. 지역별로는 천안-아산과 금산-청양은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주-논산 지역의 경우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8〉 문화기반시설 향유 실태 지역비교

조사항목	지역별	응답항목	응답율(%)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부문의 주력정책	천안-아산	주민들의 거주지 근처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확충	41.4
	공주-논산	문화정체성 관련 종합문화예술시설 확충	39.5
	금산-청양	주민들의 거주지 근처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확충	51.5
	전체	주민들의 거주지 근처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확충	42.0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확충의 정책추진 방향	천안-아산	문화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 중심으로 확충	48.3
	공주-논산	문화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 중심으로 확충	50.0
	금산-청양	문화적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중심으로 확충	51.5
	전체	문화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 중심으로 확충	46.0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시 고려사항	천안-아산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	31.0
	공주-논산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	44.7
	금산-청양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	45.5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의 문화시설 중 지역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문화예술회관이 36%로 응답되었으며, 문화시설 이용 시 문화정체성 관련 서비스 항목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직원의 친절도에 대해 만족도 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9〉 문화기반시설 이용만족도 지역별 결과

조사항목		지역별	응답점수(점/5점 만점)
문화기반시설 이용만족도	시군민회관	전체	3.29
	문화예술회관	전체	3.35
	복지회관	전체	3.15
	청소년회관(3.08)	천안-아산	3.34
		공주-논산	2.87
		금산-청양	3.09
	박물관미술관(3.35)	천안-아산	3.79
		공주-논산	2.87
		금산-청양	3.30
	문화의 집(3.04)	천안-아산	3.83
		공주-논산	3.34
		금산-청양	3.36
	박물관미술관 (3.35)	천안-아산	3.66
		공주-논산	3.32
		금산-청양	3.12
사회문화교실	전체	3.09	
사설문화센터	전체	3.10	
문화의 집(3.09)	천안-아산	3.48	
	공주-논산	2.84	
		3.03	
조사항목	지역	응답내용	응답율(%)
문화정체성 제고 필요시설	전체	문화예술회관	36.0
조사항목		지역	응답점수(점/5점만점)
문화 정체성 관련 문화 서비스 만족도	유익한 프로그램	전체	3.22
	편의시설 쾌적	전체	2.97
	이용가능시간다양	전체	3.22
	직원친절 (3.38)	천안-아산	3.66
		공주-논산	3.18
		금산-청양	3.36
	교통주차편리 (3.19)	천안-아산	3.52
		공주-논산	3.16
		금산-청양	2.94
프로그램 정보	전체	3.22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공연장(문예회관 등)이 53%로 나타나 가장 필요한 시설로 나타났으며, 문화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없다는 32.0%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설문 결과 내 자신의 만족감과 충족감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체험·참여형이 48.0%로 나타났다. 참여하고 싶은 문화 예술행사나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에 대한 조사 결과 3만원이내가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00〉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실태 결과

조사항목	지역	응답내용	응답율(%)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 활성화시설	전체	공연장(문예회관)	53.0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행사 참여어려움	전체	관심(수준높은)프로그램이 없다	32.0
문화정체성 관련 프로그램 이용시 중요한 점	전체	내자신의 만족감과 충족	38.0
문화정체성 관련 참여 문화행사나 프로그램 선호형태 (전체 : 48.0%)	천안-아산	체험참여형	55.2
	공주-논산	관람감상형	52.6
	금산-청양	체험참여형	54.5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행사나 프로그램 참여 지불금액	전체	1만원 이상 - 3만원 이내	45.0

■ 문화정체성 관련 지역문화정책의 추진방향

지역문화정체성을 위해 행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전문성 강화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3.0점으로 평균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해야 할 일에 대한 조사의 다중응답 결과 다양한 문화정체성 프로그램 제공이 전체 응답 중 25.5%로 나타났으며,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주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개발(40%)이 1순위로 꼽혔다.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나 지역별 분석에서 금산-청양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문화시설 수가 충분하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인 2.9점으로 나타났다.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운영면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시설 확충이 32.0%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아산의 경우 시설 확충과 지역 편중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응답하였고 공주-논산의 경우 시설의 접근성 제고와 시설확충을, 금산-청양의 경우 시설확충과 시설의 보수와 비품의 확보를 개선할 사항으로 응답되었다.

〈표 101〉 지역문화정책 추진방향 결과

조사항목	지역	응답내용	응답율(%)
지역문화정체성을 위한 행정의 보완사항	천안-아산	민간참여 확대	41.4
	공주-논산	관련 예산확충	42.1
	금산-청양	전문성 강화	51.5
문화정체성을 위한 문화시설 운영의 우선 개선사항	천안-아산	시설확충	34.5
	공주-논산	시설의 접근성 제고	44.7
	금산-청양	시설 확충	36.4
문화정체성을 위한 문화서비스 행정의 역점정책 1순위	천안-아산	다양한 문화 정체성 프로그램 제공	37.9
	공주-논산	다양한 문화 정체성 프로그램 제공	42.1
	금산-청양	문화정체성 관련시설의 정비와 확충	33.3
문화정체성을 위한 문화서비스 행정의 역점정책 2순위	천안-아산	각종 문화정체성 행사 정보제공 활성화	20.7
	공주-논산	다양한 문화 정체성 프로그램 제공	21.1
	금산-청양	독창적인 지역문화 발굴	24.2
문화정체성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활용방안(1순위)	전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개발	40.0
문화정체성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활용방안(2순위)	전체	자원봉사제도 활성화	17.0
조사항목	지역	응답점수(점/5점만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정책 만족도 (2.99)	천안-아산	3.21	
	공주-논산	2.92	
	금산-청양	2.88	

■ 문화시설 관련 운영 실태와 발전방향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 운영에 대한 관련 담당자 조사 결과 평균 3.0점으로 보통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지역별 분석에서는 공주-논산은 3.2점의 평균 이상의 평가를 내린 반면 다른 지역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에 대한 관련 담당자 조사 결과 평균 2.9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평가에서 공주-논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련 교육에 대한 관련 담당자 조사 결과는 평균 3.1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조사에서 천안-아산지역과 공주-논산은 평균 이상의 평가를 내린 반면, 금산-청양의 경우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관련 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관련 담당자 조사 결과는 평균 2.9점으로 응답되었다.

〈표 102〉 문화시설 관련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결과

조사항목		지역	응답점수(점)
문화정책성 관련 문화시설 개선사항 평가	지역간격차	전체	3.15
	문화시설수	전체	3.03
	입지선정	전체	3.39
	프로그램내용충실 (3.18)	천안-아산	3.48
		공주-논산	3.13
금산-청양		2.97	
문화정책성 관련 문화시설운영실태 평가	문화예술단체운영	전체	3.01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	천안-아산	2.83
		공주-논산	3.18
		금산-청양	2.67
	문화예술 관련 교육	전체	3.10
문화예술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전체	2.94	

(2) 담당자 설문분석 시사점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문화기반시설 운영활성화와 공감대 형성 필요

지역의 문화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문화기반시설 운영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 활용을 위한 해결과제로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서비스의 문화적 욕구 다양성 확보 방안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삶 혹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 문화적 전통을 계승할 문화서비스 제공 강화와 관련 담당자의 관심 제고

충남만의 문화정체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보통정도(3.1점)’ 이었고,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은 ‘보통이하(2.9점)’ 로서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기반시설 관련 담당자들은 지역의 문화적 전통이 현대까지 전승 또는 창조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프로그램 확충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거주지 근처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을 확충하되 문화화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해야 한다. 문화기반시설 이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편리성,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이라고 응답하여 시설 조성 및 운영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역별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관리운영의 강화

문화시설 중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에 있어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문화예술회관으로서 아직 건립되지 않은 시·군은 확충이 필요하고, 이미 건립된 시군은 이들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정체성과 연계하는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만족도는 대부분 높은 점수이나 편의시설의 쾌적성만 보통이하의 점수로 나타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

■ 고유성이 살아있는 문화기반시설과 연계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육성

지역문화정체성과 관련한 필요 문화기반시설은 공연장(문예회관 등)이며, 문화행사 참여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관심 있는(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부족을 꼽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정체성 관련 지역 고유성이 살아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저가형의 체험·참여형으로 육성하도록 해야 하겠다.

■ 일상생활권 연계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추진방향은 민간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였다. 또한 문화서비스 행정의 역점 추진정책으로는 문화정체성 관련시설의 정비와 확충과 다양한 문화정체성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므로 독창적인 지역문화 발굴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지역문화 전문 인력양성과 관련 시설 및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향유를 위해 문화시설 운영면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활성화와 프로그램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과 문화예술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였다.

5. 지역주민과 담당자 설문결과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문화정책성과 연계한 문화서비스 향유 실태

(1)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과제 :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인력의 전문화 필요

지역주민의 경우 문화자원 활용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확대가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운영인력의 전문화가 23.8%,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20.0%로 나타났다.

문화시설 담당자의 경우 문화자원 활용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확대가 41.0%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24.0%, 프로그램 다양화가 18.0%, 운영인력의 전문화가 12.0%로 나타났다.

〈표 103〉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과제

구 분	지역주민		담당자	
	응답자(명)	비율(%)	응답자(명)	비율(%)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108	18.0	24	24.0
운영을 위한 재정 확대	166	27.7	41	41.0
운영인력의 전문화	143	23.8	12	12.0
프로그램의 다양화	120	20.0	18	18.0
관련 조례의 제·개정	63	10.5	5	5.0
합계	600	100.0	100	100.0

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문화시설 담당자의 경우 문화재정 확대를 우선 시 한 반면 지역주민의 경우 재정확대뿐만 아니라 인력전문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타내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관심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향유 시 문제점 : 정보와 프로그램 부족

지역주민의 경우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문화서비스 향유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으로는 문화정체성에 대한 관심 부족이 29.8%, 정체성 관련 문화프로그램 부족이 18.2%, 정보부족이 1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담당자는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문화서비스 향유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으로는 문화정체성에 대한 관심 부족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부족이 8.0%, 정보부족이 12%, 정체성 관련 프로그램 부족이 15%, 교통 및 주차문제 10%, 비용부족 6%, 시설부족 7%로 나타났다.

〈표 104〉 문화서비스 향유에 있어 문제 요소

구 분	지역주민		담당자	
	응답자(명)	비율(%)	응답자(명)	비율(%)
문화정체성에 대한 관심 부족	179	29.8	42	42.0
시간부족	68	11.3	8	8.0
정보부족	104	17.3	12	12.0
정체성 문화프로그램 부족	109	18.2	15	15.0
교통 및 주차문제	47	7.8	10	10.0
비용부족	33	5.5	6	6.0
시설 부족	60	10.0	7	7.0
합 계	6	100.0	100	100.0

이를 비교분석해 보면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문화서비스 향유에 대한 문제점을 담당자들은 정체성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지역주민의 경우 관심도 부족하지만 관련된 정보와 프로그램부족을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시설 확충 방식 : 수요자 중심 문화시설 제공

지역주민은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시설 확충 방식에 대해 문화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 중심으로 확충이 34.8%, 문화적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중심으로 확충이 46.5%,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가 18.7%로 나타났다.

담당자들은 문화서비스 시설 확충 방식으로 문화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 중심으로 확충하

자는 의견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적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중심으로 확충하자는 의견도 42%로 나타났다.

〈표 105〉 문화서비스 시설 확충 방식

구 분	지역주민		담당자	
	응답(명)	비율(%)	응답(명)	비율(%)
문화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 중심으로 확충	209	34.8	46	46.0
문화적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중심으로 확충	279	46.5	42	42.0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112	18.7	10	10.0
기 타	-	-	2	2.0
합 계	600	100.0	100	100.0

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역주민은 문화적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확충 하자는 의견이 많은 반면 담당자들은 문화적으로 소외지역인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자는 의견으로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시설 확충에 있어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확충방안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4)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 시 고려사항 : 다목적 이용 편의성 제고

지역주민의 경우 거주지 주변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한 조사 결과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이 21.3%, 교육·오락·레저 등 다목적 이용 편의성 29.5%,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이 22.2%로 나타났다.

담당자들은 거주지 주변 문화기반시설 이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과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오락·레저 등 다목적 이용 편의성이 26.0%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6〉 거주지 주변 문화기반시설 이용시 고려 사항

구 분	지역주민		담당자	
	응답자(명)	비율(%)	응답자(명)	비율(%)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	128	21.3	29	29.0
교육·오락·레저 등 다목적 이용 편의성	177	29.5	26	26.0
시설 내부의 이용 편의성과 쾌적함	89	14.8	12	12.0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	133	22.2	29	29.0
저렴한 이용료·직원들의 친절 등 서비스 수준	73	12.2	4	4.0
합계	600	100.0	100	100.0

이를 비교분석해 보면, 지역주민의 경우 지역의 문화기반시설들을 교육·오락·레저 등 다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반면, 담당자들은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 특히,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을 고유성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기존 문화기반시설들의 운영에 있어 활용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 만족도 : 주민 중심 문화서비스 제공

문화시설 중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지역주민과 담당자 등이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미술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경우 문화시설 중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시·군민회관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는 문화시설 중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공공도서관이 가장 높고,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미술관, 시·군민회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교분석해 보면, 문화시설 중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경우 문화시설 담당자와 비교하여 복지회관, 청소년회관을 제외한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행정의 입장에서가 아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의 문화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7〉 문화시설 문화기반시설 이용 만족도

구 분	지역주민		담당자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시·군민회관	3.29	1	3.29	4
문화예술회관	3.24	4	3.35	2
복지회관	3.25	3	3.15	7
청소년회관	3.21	5	3.08	6
문화원	3.12	7	3.28	5
공공도서관	3.26	2	3.49	1
박물관·미술관	3.18	6	3.35	3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3.06	8	3.09	8
사설문화센터	3.04	9	3.10	10
문화의집	3.04	9	3.09	8

(6)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 만족도 : 지역문화 관련 정보 제공 미흡

지역주민의 경우 문화시설 이용 시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다가 3.0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 유익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많다가 3.1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비교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담당자의 경우 문화시설 이용 시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 식당/매점 등 시설(편의시설)이 쾌적하다가 3.0점으로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교분석해 본 결과 담당자의 경우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반면 지역주민의 경우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관련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측면보다는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예술행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8〉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 만족도

구 분	지역주민		담당자	
	평균	순위	평균	순위
문화기반시설에 문화정체성 관련 유익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많다	3.07	5	3.22	2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 식당/매점 등 시설(편의시설)이 쾌적하다	3.16	3	2.97	6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이용가능 시간이 다양하고 편리하다	3.17	2	3.22	2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근무 직원이 친절하다	3.28	1	3.38	1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교통 및 주차가 편리하다	3.11	4	3.19	5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다	2.98	6	3.2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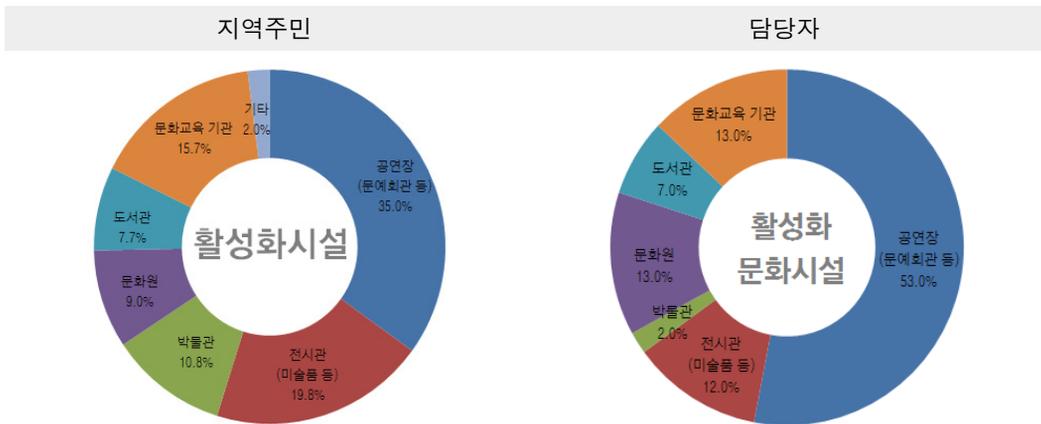
(7) 문화정체성 관련 활성화해야 되는 문화기반시설 : 공연 및 박물관 순

지역주민의 경우 활성화해야 되는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연장(문예회관 등)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시관(19.8%), 문화교육기관(15.7%)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들은 문화정체성과 관련 문화기반시설 제공에 대해서는 공연장(문예회관 등)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원과 문화교육 기관이 각각 13%, 전시관(미술품 등)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교분석 해보면, 지역주민과 담당자들이 공동으로 공연장(문예회관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연장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문화시설 담당자들이 문화원과 문화교육기관의 활성화를 원하는 반면 지역주민의 경우 박물관과 전시관(미술품 등)의 활성화를 더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있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0) 문화정체성 관련 활성화해야 되는 문화기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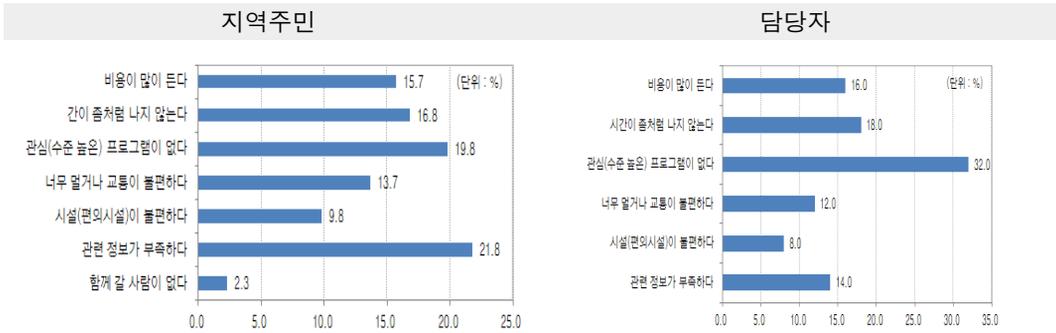
(8) 문화행사 참여 어려움 : 관련 정보와 프로그램 부족

지역주민의 경우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문화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에 관한 조사 결과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가 21.8%로 가장 높았으며, 관심(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없다는 19.8%,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가 16.8%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자의 경우 문화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없다는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간이 나지 않는다가 18.0%, 비용이 많이 든다가 16.0%로 나타났다.

이들을 비교분석해 보면, 지역주민은 무엇보다도 관련 정보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 담당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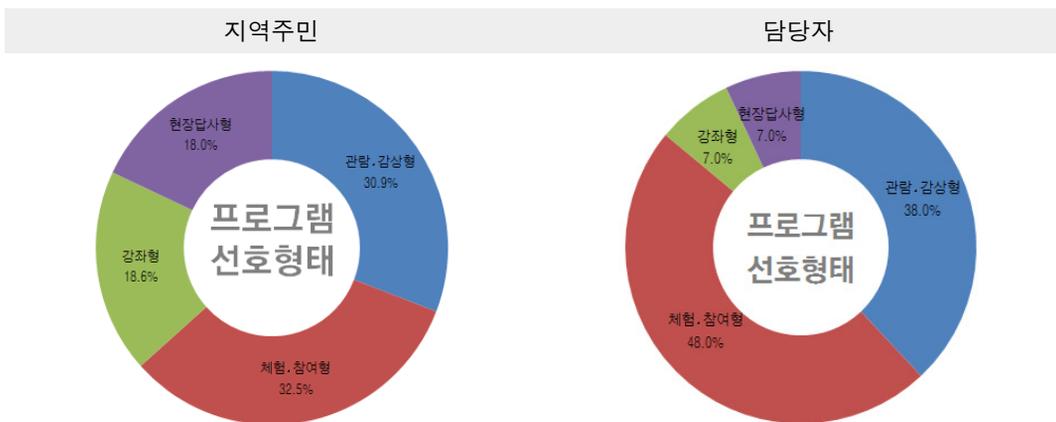
[그림 11]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행사 참여 어려움



(9) 문화정체성 관련 프로그램 선호 형태 : 체험·참여형 중심 다양성 확보 필요
 지역주민의 경우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행사나 프로그램 선호형태에 대한 설문 결과 체험·참여형이 3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람·감상형이 31.2%, 강좌형이 18.8%, 현장답사형이 17.2%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자의 경우 문화행사나 프로그램 선호형태에서 역시, 체험참여형이 4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람감상형이 38.0%로 나타나 체험참여형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를 비교분석해 보면, 지역주민의 경우 기본적으로 체험참여형과 관람감상형도 선호하지만 강좌형과 현장답사형의 프로그램도 비교적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2] 문화정체성 관련 프로그램 선호 형태



2) 지역문화정책 관련 활성화 및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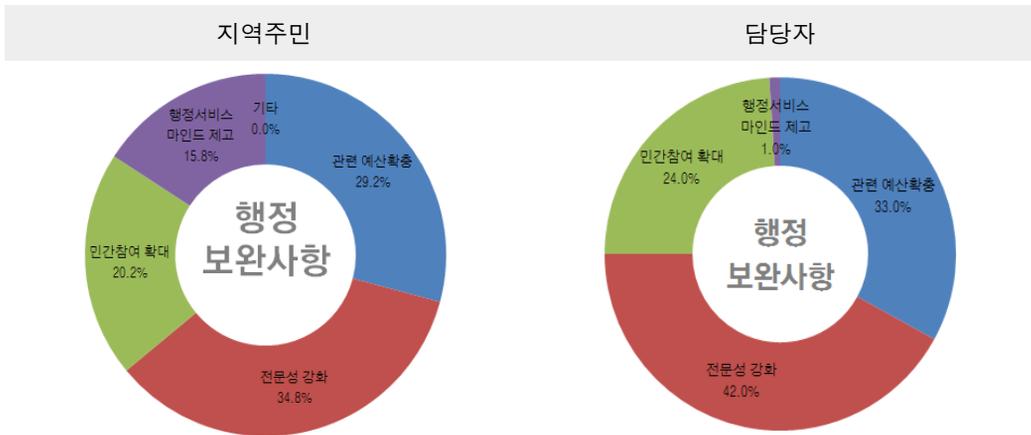
(1)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행정의 보완 사항 : 전문성 강화와 예산확충

지역주민의 경우 지역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행정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전문성 강화가 3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련 예산확충이 29.2%, 민간참여 확대가 20.2%,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 15.8%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자의 경우 지역문화정체성을 위해 행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전문성 강화가 4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련 예산확충이 33.0%, 민간참여 확대가 24.0%로 나타났다.

이를 비교해 보면, 전문성 강화와 예산확충, 민간참여 확대 등은 지역주민과 담당자 모두 높으나 지역주민들은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의 필요성을 담당자들 보다 높게 나타내고 있어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3] 문화정체성을 문화서비스 행정 보완 사항



(2) 지역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정책 만족도 : 지역별 만족도 차이 극복 필요

지역주민의 경우 지역별 분석 결과 공주-논산의 경우 문화정책에 대해 3.3점으로 평균 이상

의 평가를 내린 반면, 천안-아산과 금산-청양 지역의 경우 평균 이하의 평점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의 경우 지역별 분석 결과 천안-아산은 3.2점으로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평균보다 조금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지역정체성 관련 문화정책의 만족도가 담당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민을 위한 문화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9〉 문화정책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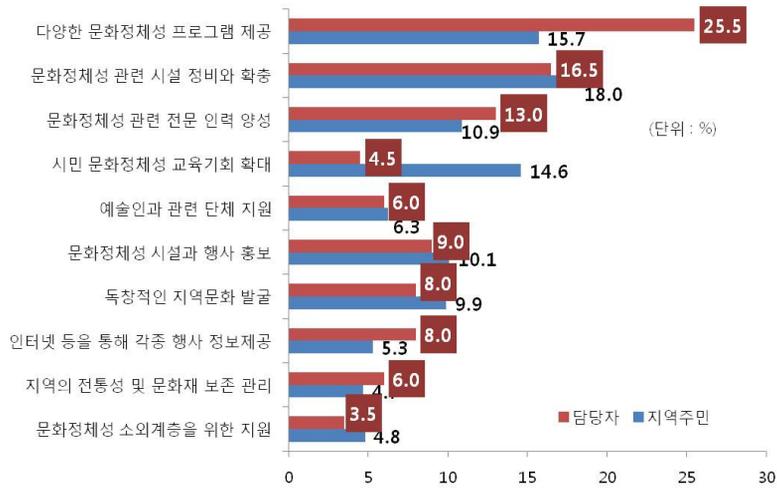
항 목		지역유형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지역주민	평균	2.88	3.25	2.83	2.98
	빈도	200	200	200	600
	표준편차	0.78	0.89	0.73	0.83
담당자	평균	3.21	2.92	2.88	2.99
	빈도	29	38	33	100
	표준편차	0.675	0.673	0.781	0.718

(3) 문화서비스 행정 역점 추진 사항 : 문화정체성 관련 프로그램 확대와 교육 기회 강화
지역주민의 경우 문화정체성과 관련하여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할 일에 대한 조사 결과 문화정체성 관련 시설의 정비와 확충이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문화정체성 프로그램 제공이 15.7%, 시민 문화정체성 교육 기회 확대가 14.6%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자의 경우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할 일에 대한 조사결과, 다양한 문화정체성 관련 프로그램 제공이 합계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정체성 관련 시설의 정비와 확충이 16.5%, 전문 인력 양성이 1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비교해 보면, 지역주민과 담당자 모두 다양한 문화정체성 관련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의 정비와 확충이 가장 많았다. 이들 두 비교차가 많이 나는 것은 지역주민의 경우 문화정체성 교육 기회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당자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행정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4]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행정 역점 추진 사항



(4) 문화시설 운영면 개선 사항 : 지역 편중 극복과 시설의 접근성 제고 우선
 지역주민의 지역별 차이분석 결과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시설 확충이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시설의 접근성 제고가 높게 나타난 반면, 공주-논산의 경우 시설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설 관련자의 친절의식교육이 높게 나타났으며, 금산-청양의 경우 시설
 의 접근성 제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담당자의 경우 지역별 차이분석 결과 천안-아산의 경우 시설 확충과 지역 편중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응답하였고 공주-논산의 경우 시설의 접근성 제고
 와 시설확충을, 금산-청양의 경우 시설확충과 시설의 보수와 비품의 확보를 개선할 사항으로
 응답하였다.

이들을 비교해 보면,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담당자들은 지역 편중문제에 대한 해결이 개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반해 지역주민의 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입지선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주-논산의 경우 담당자들은 시설의 접근성 제고를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된다는 의
 견인데 반해 지역주민은 시설 관련자의 친절의식교육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관
 련자들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0〉 문화시설 운영면 개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역별 비교분석

지역주민		지역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시설의 접근성 제고	빈도 (명)	43	47	66	156
	지역별 응답율(%)	21.5	23.5	33.0	
	전체 (%)	7.2	7.8	11.0	26.0
시설 확충	빈도 (명)	62	51	62	175
	지역별 응답율(%)	31.0	25.5	31.0	
	전체 (%)	10.3	8.5	10.3	29.2
시설 관련자의 친절의식교육	빈도 (명)	34	49	30	113
	지역별 응답율(%)	17.0	24.5	15.0	
	전체 (%)	5.7	8.2	5.0	18.8
시설의 보수와 비품의 확보	빈도 (명)	21	27	25	73
	지역별 응답율(%)	10.5	13.5	12.5	
	전체 (%)	3.5	4.5	4.2	12.2
지역 편중문제에 대한 해결	빈도 (명)	40	26	17	83
	지역별 응답율(%)	20.0	13.0	8.5	
	전체 (%)	6.7	4.3	2.8	13.8
전 체	빈도 (명)	200	200	200	600
	지역별 응답율(%)	100.0	100.0	100.0	
	전체 (%)	33.3	33.3	33.3	100.0

또한, 금산-청양의 경우 담당자들은 시설의 보수와 비품의 확보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지역주민은 시설의 접근성 제고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111〉 문화시설 운영면 개선 사항에 대한 담당자의 지역별 비교분석

항 목		지역유형별			전체
		천안-아산	공주-논산	금산-청양	
시설의 접근성 제고	빈도 (명)	2	17	4	23
	지역별 응답율(%)	6.9	44.7	12.1	
	전체 (%)	2.0	17.0	4.0	23.0
시설 확충	빈도 (명)	10	10	12	32
	지역별 응답율(%)	34.5	26.3	36.4	
	전체 (%)	10.0	10.0	12.0	32.0
시설 관련자의 친절의식교육	빈도 (명)	5	6	4	15
	지역별 응답율(%)	17.2	15.8	12.1	
	전체 (%)	5.0	6.0	4.0	15.0
시설의 보수와 비품의 확보	빈도 (명)	3	1	9	13
	지역별 응답율(%)	10.3	2.6	27.3	
	전체 (%)	3.0	1.0	9.0	13.0
지역 편중문제에 대한 해결	빈도 (명)	7	4	3	14
	지역별 응답율(%)	24.1	10.5	9.1	
	전체 (%)	7.0	4.0	3.0	14.0
기타	빈도 (명)	2	-	1	3
	지역별 응답율(%)	6.8	-	3.0	
	전체 (%)	2.0	-	1.0	3.0
전체	빈도 (명)	29	38	33	100
	지역별 응답율(%)	100.0	100.0	100.0	
	전체 (%)	29.0	38.0	33.0	100.0

6. 분석 과제의 도출

(1) 충남 문화정체성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충남도의 문화적 정체성 유무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문화 관련 담당자의 응답이 모두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지역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과 교육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의 확충과 운영프로그램 개발 요구

충남도의 문예회관 등과 같은 공연장을 활용한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행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충남 문화적 정체성은 충절과 예학이라는 전통에 기초한 스토리 구성을 통해 지역별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문화기반시설을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지역특색이 있고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체험·참여형 문화행사와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3) 문화기반시설의 시·군별 차이극복과 다목적 이용과 방안 마련

충남의 시군별 문화기반시설의 분포는 문화시설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시설의 확충과 지역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문화시설들이 조성되어야 한다.

(4)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전문성 강화 및 예산확보 부진 극복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서비스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설운영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전문인력 확충 및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5) 문화정체성 관련 지역별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과 홍보 극대화

문화서비스 시설을 활용한 지역정체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입지하고 있는 지역정체성 관련 자원의 특성에 따라 관련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이와 관계되는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을 이들 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이에 적합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 참여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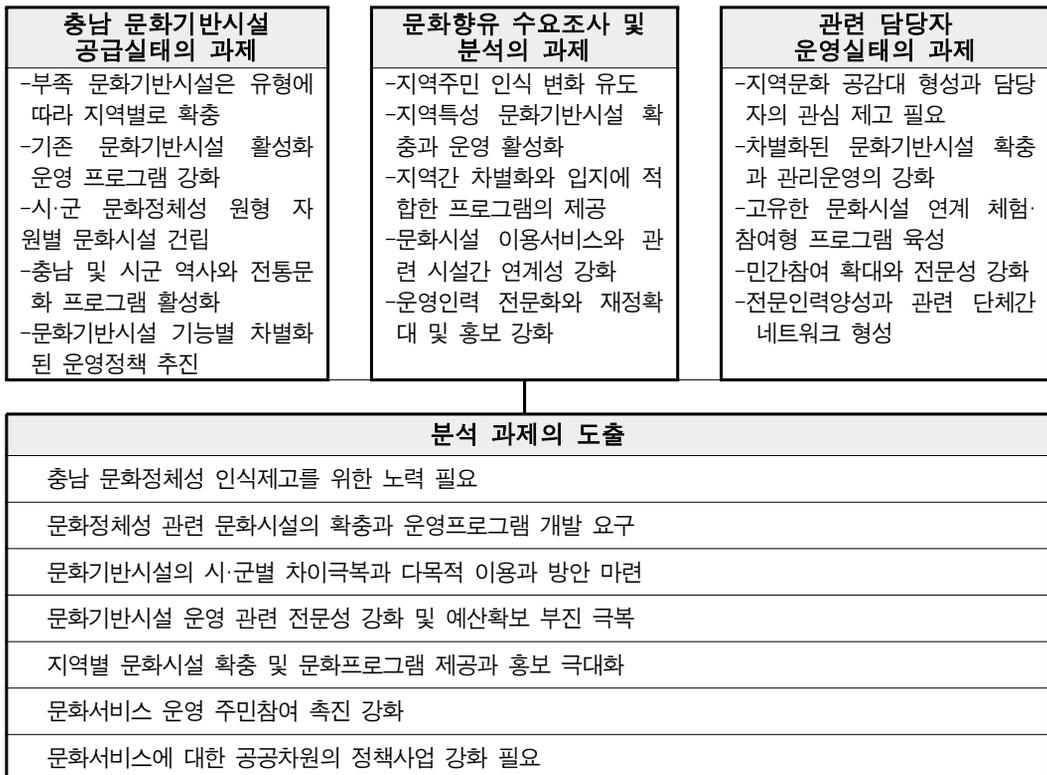
(6)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운영 주민참여 촉진 강화

문화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을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 관련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주민의 참여 촉진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7)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서비스에 대한 공공차원의 정책사업 강화 필요

지역의 문화정체성과 연계하여 문화서비스 제고를 위해 행정차원에서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프로그램의 발굴 및 운영, 민간단체의 운영 및 지역문화전문가 양성의 강화 지원, 지역주민 참여 촉진 등 매우 다양한 부문에서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해야 할 적절한 역할을 찾아 정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사업들을 강화해야 한다.

(그림 15) 분석 과제의 도출체계



제4장 충남 문화정체성 연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1. 접근 틀과 정책추진과제

1) 접근 틀

(1) 충남의 문화정체성 관련 요인

충남 지역정체성 관련 요인은 역사정체성에 역사적 사실, 역사의 현장, 역사적 인물 등이 있고, 문화정체성은 유적과 민속, 축제,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음식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역사, 인물, 유물과 유적, 세시풍속과 음식, 언어와 행동양식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충남 문화기반시설 공급과 운영 관련 요인

충남 문화기반시설 공급과 운영 관련요인은 문화서비스 수요와 문화기반시설의 유형과 시설수, 문화시설의 운영인력, 문화시설 이용성향, 문화시설의 운영예산, 문화시설에서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주제의 프로그램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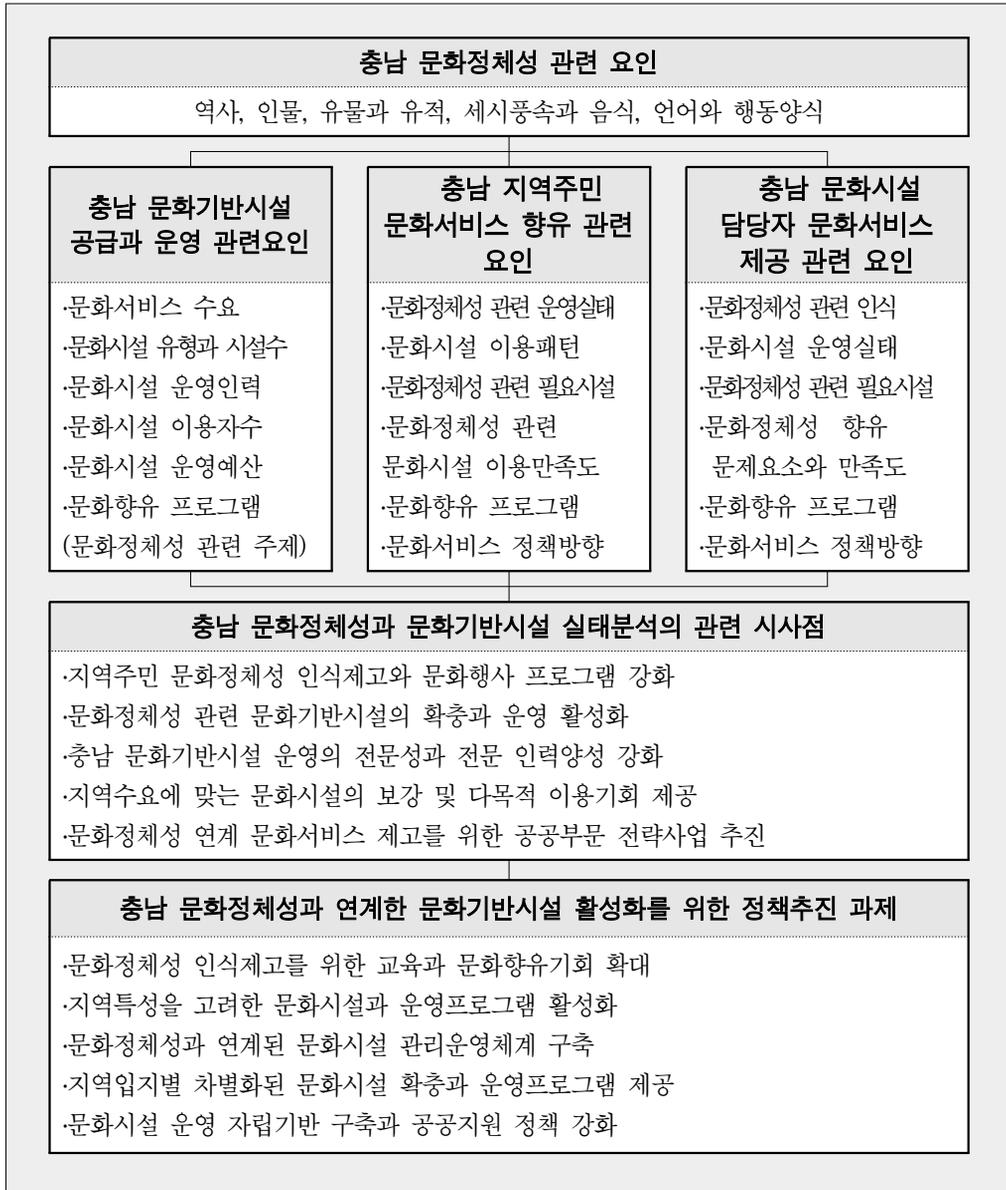
(3) 충남 지역주민 문화서비스 향유 관련 요인

충남 지역주민 문화서비스 향유 관련 요인은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바라본 문화시설의 운영실태, 문화시설의 이용패턴, 문화정체성 관련 필요 문화시설, 문화시설 이용만족도, 문화시설에서의 향유 프로그램, 문화서비스 정책방향 등이다.

(4) 충남 문화시설 담당자의 문화서비스 제공 관련 요인

충남 문화시설 담당자의 문화서비스 제공 관련 요인은 실무 공무원과 운영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충남 문화정체성 관련 인식, 문화시설의 운영실태, 문화정체성 관련 필요 문화시설, 문화정체성 향유 문제요소와 만족도, 문화시설에서의 향유 프로그램, 문화서비스 정책방향 등이다.

[그림 16] 접근 틀



2) 정책추진과제

(1) 문화정체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문화향유기회 확대

충남은 예로부터 역사문화의 고장으로서 백제문화와 내포문화, 기호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문화기반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문화자원과 문화시설을 활용한 지역 문화정체성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충남의 도민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의 고유한 문화에 대하여 교육기회를 증대하고, 충남의 문화정체성과 연계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2) 지역문화 특성을 고려한 문화시설과 운영프로그램 활성화

충남지역에는 문화정체성과 관련이 되는 역사와 인물, 유물과 유적, 세시풍속과 음식, 언어와 생활양식 등의 영향요인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차원에서의 문화시설들이 입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상호간에 관련성을 가지고 도민들을 위한 문화시설과 운영프로그램 측면에서 활성화가 미흡한 편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서 보유하고 전통과 문화가 문화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므로 지역문화 특성을 고려한 문화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육성하도록 한다.

(3) 문화정체성과 연계된 문화시설 관리운영체계 구축

충남의 각 시군에는 공공의 문화기반시설로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이 있다. 이들은 시군의 지역주민들에 문화예술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공연과 영화, 전시회 등과 독서 등을 할 수 있도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인물, 예술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은 지역의 문화정체성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운영예산, 문화예술 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문화시설의 운영과 연계시키기 위한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지역입지별 차별화된 문화시설 확충과 운영프로그램 제공

충남의 시·군 지역별로는 그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자원, 문화예술 등과 같은 특성 있는 자원들이 분포한다. 이러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은 충남의 문화 정체성과 관련성 깊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프로그램의 제공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충남의 신도청이 새롭게 이전하는 내포신도시내에는 충남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정체성이 있는 문화시설들을 조성하고, 프로그램도 운영도 이루어져야 한다.

(5) 문화시설 운영 자립기반 구축과 공공지원 정책 강화

각 시·군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기반 시설들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은 공공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은 공공과 민간에서 지방문화원은 민간운영의 단체로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공공, 공공과 민간, 민간단체 등의 어떠한 운영형태이더라도 운영에 대한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주도형의 문화시설들도 공공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일부예산이라도 자체 충당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문화시설의 운영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단체 운영 모두 초기에는 공공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주민과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자립화와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목표와 추진전략

1) 비전

고유한 지역문화로 행복한 충남도민

2) 목표

(1) 충남의 문화정체성 인식제고

충남의 고유한 지역문화로 행복한 충남의 도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인식을 제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지역주민들이 공유하며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2) 문화기반의 확충과 운영개선

각 시군에서 문화기반시설이 과부족한 지역과 전통성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이와 관련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관리운영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3) 전통문화의 향유기회 강화

충남은 유구한 전통문화와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도민들이 문화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므로,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문화정체성과 연계된 문화서비스 향유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

3) 추진전략

(1) 지역주민 문화정체성 인식제고를 위한 전통행사와 교육프로그램 강화

충남의 지역주민들의 문화정체성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전통행사와 교육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문화재단의 설립과 문화정체성 연관 사업 추진 강화, 지역주민

대상 '지역문화아카데미' 교육 사업 실시, 기존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한 지역 정체성 연계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문화기반시설 운영과 교육 네트워크 구성과 주민참여형 문화체험교육 개발, 충남의 전통문화 대표 축제와 지역별 문화정체성 고유 문화행사 개최 등이 있다.

(2)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 활성화

충남의 시·군 지역별로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문화기반시설의 육성과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포신도청 신도시에 충남문화 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의 집중 조성, 정체성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문화기반시설로 육성하고, 프로그램으로 활용, 지역주민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지구와 문화거점 지역 등 문화환경 강화, 시·군의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컨설팅 지원과 전문성 제고 등이 있다.

(3) 문화기반시설의 차별화 및 다목적 이용을 위한 기능 강화

충남의 지역주민들이 문화시설을 균형 있게 이용하고, 다목적으로 이용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권 문화시설 건립 및 전문 문화공간으로 모델 구축, 폐교를 지역문화시설 및 공간으로 활용으로 주민 문화의 장으로 육성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충남도민들이 지역문화와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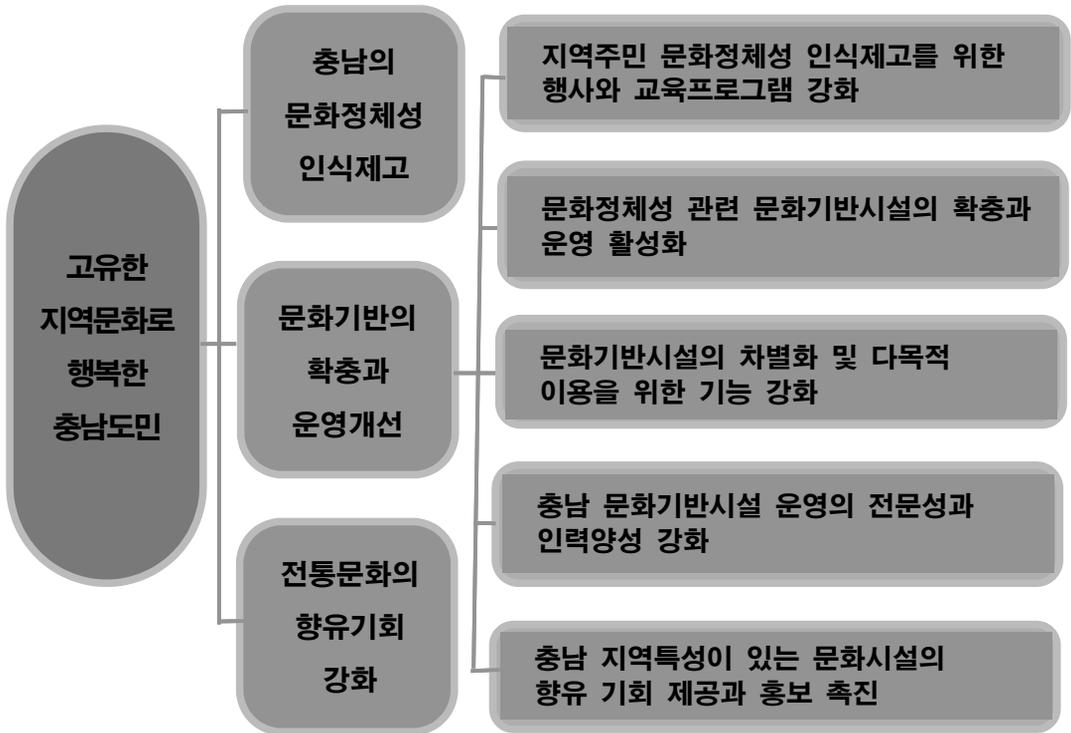
(4)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인력양성 강화

충남 도민들의 문화활동은 문화기반시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들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의 전문성과 인력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의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컨설팅 지원과 관리운영에 대한 벤치마킹,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 문화기반시설 운영과 교육 네트워크 구성과 주민참여형 문화체험교육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

(5) 충남 지역특성이 있는 문화시설의 향유 기회 제공과 홍보 촉진

충남 지역특성의 문화시설별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홍보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개선과 자립운영체계 구축, 충남 문화아카이브 설립 운영과 안내 및 정보시스템 구축, 충남 문화예술인력의 역량강화 및 민간기업과 상생협력, 충남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연고지 활동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그림 17] 목표와 추진전략



3. 충남 문화정체성 연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1) 문화정체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행사와 프로그램 강화

(1) 지역주민 대상 '지역문화아카데미' 교육 사업 활성화

충남의 지난 2002년에 논산시에서는 건양대에서 '지역문화 아카데미'를 통해 논산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지역민들의 문화 마인드 확산에 일조하였다. 이는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지역문화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와 논산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서부터 지역문화의 발전 방향성까지 가늠해 보는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최근에 2012년에는 청양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문화콘텐츠 진흥사업 MOU 및 행복문화아카데미 개강식을 하였다. 이와 같이 충남과 각 시·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전통문화를 이해하여 문화정체성을 제고하는데 지역문화아카데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실시된 충청남도의 행복문화아카데미를 각 시·군별 또는 인접한 시·군별로 협력사업으로 하여, 지역대학 또는 문화원, 문화예술단체 등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영주문화아카데미 사례

영주시에서는 (사) 영주문화연구회와 동양대 전통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영주문화아카데미를 5일씩 연간 2회를 개최하였다.

영주문화아카데미는 영주문화연구회가 영주지역을 바로 알고 바로 보자는 취지로 지역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봄과 여름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하고 있다. 강좌내용으로는 고지도로 보는 영주역사, 유불선의 이상세계, 역사의 현장에서 본 영주의 인물, 영주의 자연과 취락, 재미있는 영주의 지명, 영주의 미술세계, 영주의 민속 등 다양하여 지역문화 정체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 기존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한 지역 정체성 연계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충남의 시·군 지역별로는 그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자원, 문화예술 등과 같은 특성 있는 자원들이 분포한다. 현재 충남에 있는 시·군 문예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전반적으로 음악회, 영화감상, 오락이나 취미활동이 대부분이며, 지역의 정체성과 연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충남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예회관의 프로그램으로는 당진군 ‘기지사줄다리기박물관’의 ‘代를 이어 朝鮮을 구하다’, 서천군 ‘서천문예의전당’의 ‘월남이상재’ 등을 들 수 있다. 문예회관의 프로그램을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내용으로 운영하여 단순한 여가나 취미활동의 수준을 벗어나 지역의 전통문화와 연계되어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충남의 각 시·군별로 지역의 전통문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 문화정체성 관련 프로그램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112〉 시·군별 역사문화와 연계한 프로그램화 방안 예시

지역	문화정체성 관련 자원 예시	프로그램화 방안
천안시	유관순	공연
공주시	백제역사	공연, 전시회, 예술제
보령시	도미부인	공연
서산시	안건	미술제
논산시	유교문화	문화제
당진시	심훈	문학행사
계룡시	사계 김장생	공연
금산군	칠백의총	공연
부여군	백제역사	공연, 전시회, 예술제
서천군	월남 이상재	공연
청양군	체재공	공연
홍성군	한용운, 김좌진	공연, 문화제
예산군	추사 김정희	서예대전
태안군	이종일	공연

또한, 시·군별로 건립되어 있는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예술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시·군의 문화예술회관은 지역예술창조의 핵심시설로서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계층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통하여 장르별 상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확대하도록 한다.

특히, 충남에는 근대산업 유산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도시로 강경과 장항이 있다. 따라서 강경과 장항에 현재 까지 남아있는 근대의 건축물과 거리, 전통 행사 등을 활용하여 문화기반시설로서 박물관 또는 전시관 등의 건립과 공연 및 전시, 축제 및 이벤트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지역 특성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활성화

(1) 정체성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문화기반시설로 육성하고, 프로그램으로 활용
현재 충남은 지역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는 문화기반시설로 천안박물관, 추사기념관, 김장생기념관, 마곡사 성보박물관, 부여생활사박물관(사립), 한국통일 서예비림(사립), 우산 민속박물관(사립), 서산시립박물관, 금산어린이박물관, 서산시립미술관(안전), 연기군립미술관(장욱진화백), 중원미술관(사립) 등을 운영 중이거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남의 시·군 지역별로는 그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자원과 인물, 역사성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지역문화기반시설로 육성한다. 특히, 박물관 건립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으로 공주에서는 효박물관, 예산의 의형제 박물관, 태안의 해양문화재 연구소, 보령의 문방사우박물관 등의 건립을 구상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²⁵⁾

또한, 이러한 지역역사문화자원은 문화기반시설로 건립 할뿐만 아니라 전시, 공연, 이벤트 및 축제, 영화, 콘텐츠 등의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여 개발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관광객들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시·군의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컨설팅 지원과 전문성 제고

충남의 시·군 지역별 문화기반시설로는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지역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과 시설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규로 건립되는 문화기

25) 충청남도(2007), '충청남도는 문화예술의 향기 그윽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에서 수정·보완함.

반시설의 경우는 건립과정에서부터 운영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전문업체와 컨설팅 협약에 의해 신규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 시설별 전문가의 채용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문예회관의 공연기획요원이나 무대종사자 등은 한국문예진흥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한다. 또한, 시·군별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내·외부의 문화예술 분야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충남의 전 시·군간에는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전문화한다.

(3) 문화 전문인력 교육확대 및 네트워크 구성과 주민참여형 문화체험교육 개발

충남의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더불어 문화 전문인력의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 및 예술활동 종사자와 교육자, 문화행정 집행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충남도내에는 문화 전문인력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이 현재는 없으므로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찾아가는 교육 지원시스템을 활용한다. 교육대상자는 문화행정가, 문화예술 기획자,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지원한다. 장기적으로 (재)충남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도내 문화인력 전문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문화시설 운영 및 교육담당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험 및 정보를 교류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 공유토록 한다. 충남도내 공무원 및 문화 관련 운영자들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체험교육을 개발한다. 참여형 문화예술체험은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가족과 청소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주민 문화예술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 문화활동 공간 제공, 견학프로그램 운영, 전문예술인과의 만남 등을 주선하고, 지역축제와 문화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자원봉사제로서 시·군별 자원봉사자를 등록하여 운영하며, 도차원의 자원봉사자풀제를 운영토록 한다.

3) 문화기반시설의 차별화와 다목적 이용을 위한 기능의 강화

(1) 문화기반시설 유형과 지역별로 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의 확충과 운영 강화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은 유형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이용패턴이 다르고 지역문화로서 가지는 기능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앞의 문화기반시설 공급과 지역주민 이용실태 분석 등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이용목적에 따라서 기능을 다각화하고 문화시설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문화기반시설 유형별로 차별성을 가지고 다목적 이용을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과 연계하여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거나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화기반시설의 차별화와 다목적 이용을 위한 기능의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다.

<표 113> 문화기반시설 유형과 지역별로 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의 확충과 운영 강화

지역	문화기반시설 연계 활성화 방안	예시사업 및 정책
시·군민회관	- 시민회관 명칭 지역성 명칭 개명 추진 - 민속, 연극, 음악, 무용 관련 공연 정기 개최 - 미술, 문학, 민속 전시회 정기 개최	- 육거리시민회관(포항) - 전통과 현대 무용, 음악 공연 - 현대 지역작가 전시 및 주민발표회
문화예술회관	- 문예회관 명칭 지역특화 - 시·군 민속, 연극, 음악, 무용 관련 공연 개최 - 시·군 미술, 문학, 민속 관련 전시회 개최	- 이산행사성문예회관, 천안예술의 전당 - 전통과 현대 무용, 음악 공연 - 현대 지역작가 전시 및 주민발표회
박물관	- 향토·민속박물관 확충 건립 - 전시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근대유산 민속박물관(강경), 효박물관 - 역사박물관학교 개설운영(국립박물관)
미술관	- 저명화가 미술관 확충 및 운영활성화 - 전시회 및 이벤트 개최	- 안건, 이응노미술관 등 활성화 - 전통과 현대미술작가적 정기 개최
복지회관	- 지역전통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전통음식, 풍속놀이 등 교육 및 문화행사 개최	- 소외계층 문화바우처 대상 사업 적용 - 민속음식과 놀이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문화원	- 지역전통문화, 행동양식 지역주민 교육 강화 - 전통역사와 풍속 문화축제 개최	- 지역문화 정체성 교육사업 실시 - 역사축제와 민속문화행사 주관 개최
청소년회관	- 청소년 대상 공연, 전시회, 교육 등 강화	- 역사, 인물 공연과 전시회, 교육사업 실시
공공도서관	- 도서관 기능 이외 문학전시 및 이벤트 개최	- 소규모도서관 확충과 문학전시회, 백일장 개최
문화체육센터	- 전통민속놀이, 풍속의 교육과 전수 - 문화예술 체험행사 개최 강화	- 민속놀이, 풍속, 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 민속문화·예술 체험 및 이벤트 정기 실시
문화의 집	- 전통 및 현대 문화예술 교육과 정보 제공 -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과 문화행사 개최	-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예술 교육 실시 - 전통문화예술 체험 및 문화행사 개최

(2) 내포신도시에 충남문화 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의 집중 조성

충남의 도청신도시는 명품 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 기존 문화예술자원을 육성하는 곳이 아닌 새로운 개념에서 문화지구를 조성하여 문화인프라, 문화활동프로그램, 문화경관 등을 갖춘 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따라서 문화지구내에는 야외공연장을 포함한 예술의 전당,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전시시설 포함), 예술인기념관, 문화의 집, 기타 생활문화공간 등을 공공청사지구와 공원지구를 연계하여 문화시설을 조성할 것이다.

충남에서는 현재 지역출신 예술인 기념관으로 고암 이용노 기념관, 이문구 문학관, 박동진 판소리 유물전시관, 만해체험관, 홍대용 생가 전문과학관 등을 건립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충남 출신 예술인기념관을 도청신도시내에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 전문미술관 건립을 구상하여 추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신도청도시의 문화지구내 건립 될 각각의 문화기반시설들은 시설 및 공간뿐만 아니라 건축개념, 운영프로그램까지 충남의 전통문화와 연계한 문화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주민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지구와 문화거점 지역 등 문화환경 강화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역사문화자원의 관리, 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충남도 차원에서 문화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시·도지사는 자치조례를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역사문화자원을 관리·보호하고 문화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지역으로는 ①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②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③.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환경 조성이 특히 필요한 지역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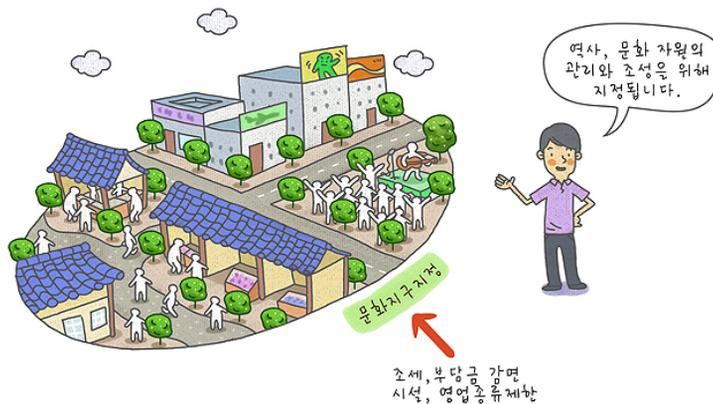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내 문화지구를 지정 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그 문화지구내에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영업시설의 종류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과 영업시설에 대한 조

세와 부담금이 감면되고 다음의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 지정 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2008년 현재 대학로문화지구 인사동문화지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목포시에서도 향토문화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종합문화예술회관, 남농기념관, 야외공연장이 밀집되어 있는 갯바위 근린공원지역을 ‘문화예술지구’로 조성하였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경우도 새롭게 건설 중인 도청신도시, 공주부여·홍성 등과 같은 역사문화도시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지구를 통해 역사, 문화자원을 관리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림 18) 문화지구 조성의 개념도



자료 : <http://urban.seoul.go.kr/4DUPIS/wordsearch/content>

4)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인력양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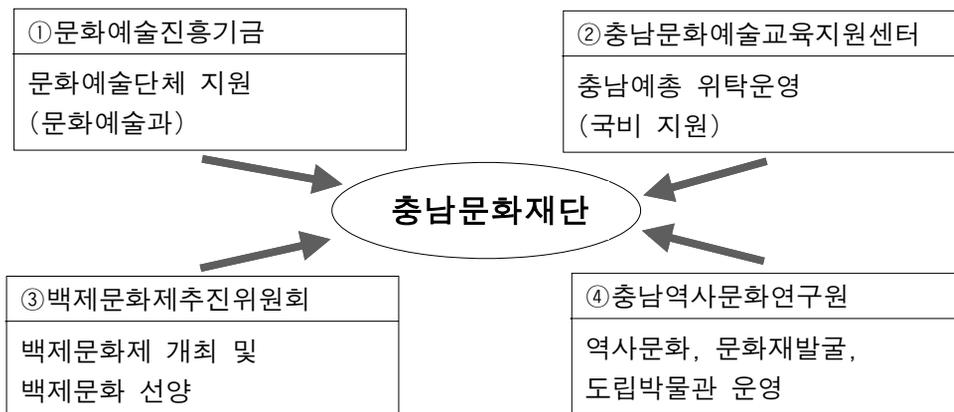
(1) 충남문화 선도기관의 설립과 문화정책 지원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지역협력형 사업의 활성화 등 지역문화정책의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문화재단 설립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례들이 대부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목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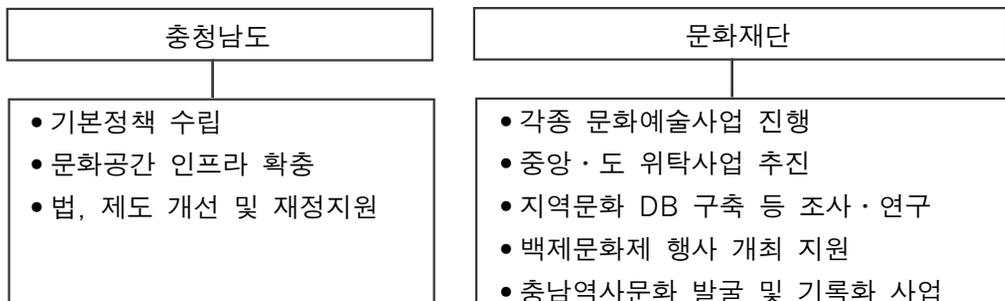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11개소가 기설립 되었고, 충남을 포함한 3개소가 추진 중이며, 2개소가 미추진하고 있다. 충남은 도민의 문화향수권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문화예술진흥 전담기구인 충남문화재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2012년 9월 현재 이 사업은 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충남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에 의한 재단의 역할과 주요업무를 살펴보고, 지역 문화정책성과 연관된 사업의 추진 강화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충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을 통합한 조직으로 구성하게 된다. 충남문화재단의 기본적 역할 정립은 각종 문화예술 사업 진행, 중앙·도 위탁사업 추진, 지역문화 DB 구축 등 조사·연구, 백제문화제 행사 개최 지원, 충남역사문화 발굴 및 기록화 사업 등이다.

[그림 19] 충남문화재단 조직 구성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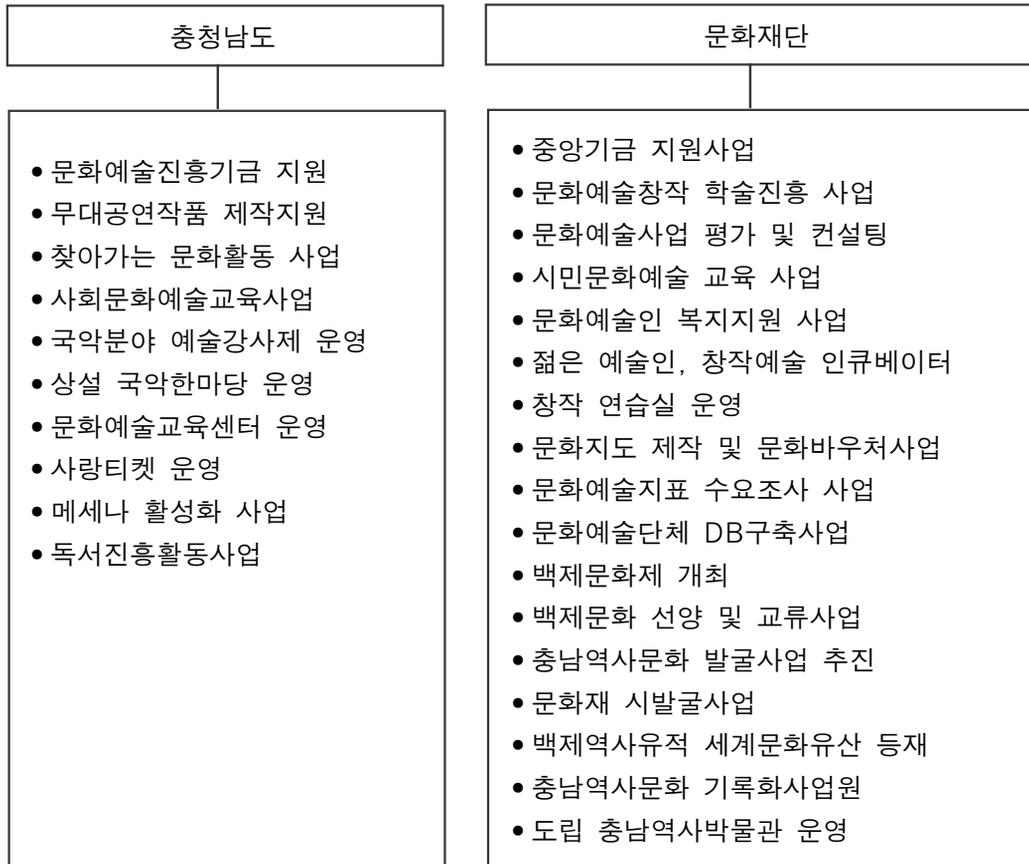
[그림 20] 충남문화재단 기본적 역할 정립



자료 : 충청남도·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안), 충남문화재단 설립 워크숍, 2011. 5.

충남문화재단의 주요업무에 있어서도 충남역사문화 발굴사업 추진과 충남역사문화 기록화 사업 등 지역문화정책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반영하고 있다. 기금 운영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백제문화제추진, 문화예술진흥기금, 역사문화연구원 기금을 계정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림 21) 충남문화재단 주요업무



자료 : 충청남도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안), 충남문화재단 설립 워크숍, 2011. 5.

이러한 문화재단의 업무영역과 운영방향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지역성의 강화를 통한 주민 밀착형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의 전통과 역사와 연계된 문화 환경의 개선에 관심이 필요하며 거리, 광장, 도심 등 지역 거점별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아마추어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 주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이다. 또한, 문화재단은 기존의 문화기관이나 도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인수하여 승계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통합 문화재단은 새로운 업무 영역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형 프로젝트나 전시성 사업보다는 지역이 역사 문화에 기반을 둔 콘텐츠와 관광-축제와 연계된 문화상품의 개발,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창의성 확산 등 새로운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일깨우는 일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²⁶⁾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충남문화재단은 주요기능과 업무영역에 있어서 기존의 충남도와 문화기관의 업무를 수용하면서 충남의 고유한 전통과 역사에 기반을 둔 문화정체성을 정립하는 충청학 연구와 DB의 구축, 이러한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된 문화시설들의 확충과 운영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방문객까지 모든 사람들이 충남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문화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개선과 자립운영체계 구축

충남의 시·군별 문예회관 운영실태 분석(충청남도, 2007)에서는 평균 재정자립도가 4%로 운영상 취약하고, 이용객중 유료관중이 34.2%로 무료관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충남의 공공도서관 업무는 자체 운영평가시스템이 없이 중앙정책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인 지방문화원은 향토문화사에 대한 연구나 조사에서 젊은 층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새로운 문화사조에 적응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욕구수준이 걸맞는 문화사업의 추진이 미흡했던 것이 일반적인 문화원의 운영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은 지방문화의 정체성과 문화구심체 역할을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지역향토사 연구와 환경보전,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문화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개선과 자립적인 운영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최근의 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도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은 예산으로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만든 천안예술의전당(주)이 건물

26) 양효석, 광역 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설립·운영방향, 충남문화재단 설립 워크숍, 충청남도·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1. 5에서 요약 정리

을 지어 시에 기부한 후 20년간 시설 운영을 맡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회사는 공연장 대관료를 받고 카페와 같은 관람객 편의시설은 직접 운영한다. 천안시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보조해 투자자들 원금 회수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천안종합휴양관광지 내에 짓는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 2만4493㎡ 규모로 대공연장(1,581석)·소공연장(462석), 미술관, 문화단체 관리실 등과 카페·아트숍 등 부대시설을 갖춘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오페라·뮤지컬·발레 공연 등 다목적 예술공간으로, 소공연장은 영화 상영이나 연극, 소연주회 장소로 이용된다. 이와 같이 문예회관의 건립과 운영도 민간참여에 의한 건립과 자립적인 운영관리 방식이 채택되어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건립될 문예회관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군의 문예회관들도 민간기업과 지역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리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있어서도 각 시군의 전통 및 향토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정체성의 정립을 위한 특성화된 사업을 육성하여 다른 문화단체와는 차별화된 운영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3)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과 관련 시설 및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문화기반시설은 운영하는 전문인력에서 도서관과 박물관 등은 앞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인력 비율이 낮은 실정으로, 운영의 특성상 전문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기존의 전문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전문인력 확충은 서설구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 공립시설의 경우에는 정부의 총액 인건비제도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문화시설 전문인력은 총액 인건비제도의 예외규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충남에는 충남 문화예술지원센터가 ‘충청남도의 창의적인 문화역량 강화’의 비전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올바른 가치와 의미 정착, 지식정보화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화 사업추진, 향유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기반 조성 등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 등의 교육사업과 다양한 네트워크와 워크숍을 실시하여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교육사업은 현재 문화예술 분야의 실습교육에 집중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지역의 전통문화와 연계된 다양한 장르의 분야뿐만 아니라, 기획과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컨설팅 등의 다각적인 분야에 걸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한 앞에서 제시한 충남문화 선도기관의 설립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양성조직을 구성하고, 교육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활성화와 프로그램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과 문화예술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앞의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기반시설과 이용실태는 격차가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충남의 문화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충청남도는 2010년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주체가 되어 천안에서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내·외 문화산업 관련 교수, 기업대표, 유관기관 연구진을 비롯한 창업투자회사, 중앙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3개분과(정보·기술 분과, OSMU포럼 분과, 지역균형발전 분과)로 출범을 하였다. 이 위원회는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충남의 문화산업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충청권 종합발전 계획을 구상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위원회는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의 네트워크 구축으로서 이러한 협력 체계이외에도 충청남도의 각 시·군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기발시설과 운영인력, 문화예술단체 등간의 충남의 지역문화를 공유하고, 공동협력의 인식을 같이하면서, 각 시·군의 문화기반시설의 운영과 행사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역별 문화행사의 개최에 관한 정보 등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공유하면서 협력 상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지역의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문화기반시설의 구축과 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 발굴·육성 등은 상호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예방하고, 지역별로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충남 문화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충남 지역특성의 문화시설별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홍보촉진

(1) 충남 전통문화아카이브 설립 운영과 안내 및 홍보시스템 구축

‘아카이브’(archives)란 영어로 정부나 관공서, 기타 조직체의 공문서와 사문서를 소장·보

관하는 문서국 또는 기록보관소를 의미하며,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 둔 파일의 뜻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아카이브의 설립이 다양한 장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립예술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근현대 디자인박물관, 한국춤화자료원, 공예디자인전문 도서관 KCDF 아카이브센터,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한국미술정보센터,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아카이브 등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에 대한 아카이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전문화재단에서 문화 아카이브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문화예술 아카이브를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현대 문화예술과 관련한 문화 아카이브이다.

따라서 충남에서도 충남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지역의 전통과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DB화하고,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전통문화 아카이브센터를 설치하여 충남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충남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연고지 활동 기반 강화

충남 도민들의 지역문화 향유기회 제공은 거주지내에 입지하고 있는 문화시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건물 등 하드웨어만으로는 지역문화발전의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으며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술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예술인과 도민이 함께 호흡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지원을 통한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도민예술활동 참여 활성화, 도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연고지 활동의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의 예술가와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활동을 위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지역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활동이므로 이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단체들이 지역 문화기반시설에 상주할 수 있는 제도화를 추진하여 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술단체의 안정적 기반구축하며, 나아가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공연기회가 적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역공연을 확대하여 지역전통문화를 도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충남도에서는 폐교를 활용한 예술인촌 및 예술교육장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 공주 한국공연예술 체험마을, 상신

리 도예촌과 부여 김덕수 사물놀이 전수관, 예산 민족음악원, 금산 청소년토리패 풍물단 교육 시설 등이 있다. 따라서 이를 확대하여 폐교를 활용한 도예촌, 문예촌, 문예전수관 등 지역의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전통문화예술의 교육장으로 조성하여,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3) 충남의 전통문화 대표 축제와 지역별 문화정체성 고유 문화행사 개최

충남의 문화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문화 축제를 육성해야 한다. 현재는 시·군 지역별로 축제를 지역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통문화 축제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의 고유한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축제가 개최되어야 한다.

전문 예술축제는 도내 예술인들의 축제의 장이 되며 충남 문화예술 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축제는 소비성, 전시성 행사로 양산된 상태로서 순수한 지역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순수한 예술분야의 전문축제를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충남에서 장르별 예술축제를 지원하고 있는 충남연극제, 무용제, 학생무용제, 합창경연대회, 안전미술제 등을 충청남도 예술제 등 충청남도차원에서 학생미술제, 대학미술제 개최도 가능하며, 매년 시·군별로 순회 개최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종합정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문화환경은 우리 문화의 특성을 살리고 문화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일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충남은 도민들을 위한 문화인프라로서 문화기반시설은 전국의 6위로 중위권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문화향유지수 3개 부분이 하위권 14-15위권으로서 도민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실태를 분석해보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다. 또한 문화정체성은 문화시설의 운영과 도민 문화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문화정체성 및 문화기반시설 관련 연구가 미흡하여 정책적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지역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여 충남의 문화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이와 연계하는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 실태와 지역주민들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략적인 문화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충남의 문화정체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정리 및 고찰로 지역문화의 연구기반을 구축한다.
- 둘째, 문화정체성 연계 문화기반시설의 운영현황과 향유실태 분석으로 과제를 도출하여 정

책 기초자료로 제시한다.

셋째,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 방안과 충남 중장기 문화발전계획 수립과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한다.

연구방법은 이론연구와 문헌고찰, 조사항목 및 실태조사 문항 도출, 지역주민 및 관련 담당자 설문조사, 연구협의회와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등으로 이루어졌다.

(2) 이론고찰 및 분석의 틀 설정

① 문화정체성의 개념과 유형

문화적 정체성이란 개인적, 집단적 인격체의 심장으로서 모든 주요한 결정, 관계방식, 활동 등에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한 사회를 자기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 특징적인 고유성들을 유지하게 하고, 소외됨이 없이 변화를 수용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문화정체성은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종교적 그리고 국가적 문화에 ‘속해있음’ 으로부터 형성되는 정체성의 측면들을 지칭한다. 문화적 정체성은 특정집단의 과거 역사적 경험이나 지리적 근접성, 미래에 대한 공통 목표 등에 의해 구성되며, 그 집단 성원들에게 문화적 동질성과 독자성, 그리고 현실 이해에 대한 공통의 지침을 제공한다. 오늘날 ‘문화적 정체성’의 재정립 문제가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체성은 철학적 논의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이론 및 실무들과 결합하면서 보다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게 된다. 가장 비근한 예로, 최근 대부분의 도시와 지역들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 또는 장소마케팅과 관련된 행사들은 바로 이러한 지역정체성 복원 또는 새로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역정체성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들을 몇 가지 요소들로 유형화하면 역사정체성, 문화정체성, 경관정체성, 산업정체성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② 문화 환경과 문화기반시설의 관계

문화 환경은 문화를 위한 환경으로서의 문화시설과 문화적 환경인 일상생활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지구, 문화산업단지, 문화마을, 문화도시, 문화벨트 등이 지역 문화 환경을 확충하고 생활공간에서 문화향수를 위한 문화 환경으로 구분한다. 문화 환경 조성에 있어 문화시설, 문화지구, 문화의 거리, 문화도시, 문화벨트 등 선(線)의 개념이나 면(面)의 개념으로 연결

되어 공간 간의 관계성이 형성된다. 이중 문화시설은 공연전시 및 문화보급, 전승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가리킨다. 공연, 도서, 지역 문화복지, 문화보급 전수 및 기타 용도에 쓰이는 시설이다.

문화기반시설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삶의 다양성, 다양한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문화 활동의 과정이나 결과가 나타나는 총체적 공간이다. 문화기반 시설은 지역문화 활동의 창출 및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의 역할을 수행한다. 법적 체계에 의한 문화시설은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일 뿐 장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문화시설을 현실적 여건에 맞춰 설치목적, 기능, 시설형태, 운영방식, 시설형태, 시설규모에 따라 재분류 할 수 있다

문화기반시설의 법적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나타난 우리나라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 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기타 등 총 6개로 분류된다.

본 연구대상의 문화기반시설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중에서 비교적 공공성의 기능과 성격이 크다고 판단되는 시·군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복지회관, 문화원, 청소년회관, 공공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문화의 집 등으로 하였다.

③ 충남의 문화정체성 관련 연구 동향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은 지역을 통해 인지되는 표상으로서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경제, 사회작동체계(지역사회 규범 등)와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표상들은 단편적인 지표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독립변수, 즉 역사인식, 역사적 인물, 전통사상, 세시풍속, 전통예술, 언어적 특성,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 기록, 유물, 유적 등을 총체적으로 투입하여 인지되는 시간함수와 지형, 기후, 인구특성을 반영하는 인문현상, 토지이용 등 공간 활용방식 등을 총체적으로 투입하여 인지되는 공간함수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문화정체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지속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집단은 문화정체성을 통해 문화를 일관되게 이해하고, 질서 있게 영위하게 되며, 문화정체성을 통해 문화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문화에 대한 열의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연환경과 문화적 전통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충남에 문화정체성은 충남지역의 역사, 역사적 인물, 유물과 유적, 세시풍속,

음식, 예술, 언어, 행동양식 등에 영향을 받아 충남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자신들에 대한 개별 의식이나 집단에 대한 문화적인 공통의식 및 자긍심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충남의 문화정체성은 지역의 역사, 인물, 유물과 유적, 세시풍속과 신앙, 음식, 예술, 언어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를 통해 내부의 동일성과 항상성, 그리고 외부와의 차별성을 포함하고 있다. 충남의 역사는 유구하되 일단 이롭다고 판단한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성이 있고, 충남의 인물은 자신에겐 엄격했지만 남을 배려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며, 큰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충의정신을 타고 났다. 충남의 자연환경은 금강이 내륙사이를 가로 지르며 흐르고 있고 산지와 그 사이에 평야가 펼쳐지고 있다. 또한 충남은 서해 바다가 섬과 해안으로 연결되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에서 비롯한 충남문화 정체성은 온화함과 원만함이다.

백제의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며, 개방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백제인들은 외래의 새로운 문화요소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진취적으로 받아들여 주체적으로 소화시킴으로써 자기 것으로 표현하였다. 충남의 인물을 통하여 규명할 수 있는 충남문화의 정체성은 예의 고장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의리적, 실천적 정신이다. 또한 이러한 충의 정신은 백제 계백의 정신에서도 알 수 있다. 계백의 충의 정신은 단지 전투에서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에 한정하지 않고 도의(道義)에서 벗어나지 않는 관용의 정신을 보여주는 진정한 충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충남에는 국가적 환란기에 저항정신을 보여준 인물, 리고 조선시대 특색 있는 한국의 유교문화를 이룩해 낸 대학자 등 다양한 인물이 많이 있다. 충청지역에서 절의와 저항정신은 백제부흥군의 부흥운동으로부터 하여 조선시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가 제 강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충남의 인물을 분석하여 보면 충남은 역사적으로 유교문화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충남의 유물과 유적은 검이불루 화이불사(儉而不陋 華而不侈)로 표현된다. 즉,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아니하다. 군더더기 없는 절제미가 충남의 유적에서 느껴진다. 이러한 느낌은 언어 즉, 충청도 사투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충청도 사투리는 느리다는 평을 많이 받아 왔지만 충청도 사투리의 함축적 의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더하지도, 그렇다고 궁색하지도 않은 선비의 절제된 마음가짐이 충청도 사투리에 녹아 있다. 충남의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여유’이고, 충남의 격식은 남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이며, 충남의 운율은 거

드름이 아니라 진정성을 전하기 위한 확신을 담고 있다.

④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분석의 틀

지역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는 충남 정체성 연구(소진광 외, 2010) 등이 있으나 문화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충남 문화정체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타 시도의 문화향수 실태와 수요조사는 각 지역의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설문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주민수요에 대한 설문조사와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실태 조사 분석을 연구범위로 한정하고, 충남 문화정체성 고찰, 충남 문화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실태 조사 분석, 정책과제 도출을 통해 충남 도민문화향유를 위한 정책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틀은 문화정체성과 문화기반시설 관련 이론고찰, 충남 정체성에 관한 연구 동향,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공급실태, 문화향유 수요조사 및 분석,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등 세 가지 영향요인의 세부항목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3)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실태 분석과 과제

① 충남 문화기반시설 공급실태 분석

충남내에서 문화소비는 57.0%이고, 서울·경기에 인접하고 있어 수도권지역에 대한 문화소비도 34.9%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역에서 충남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문화활동 소비도 78.7%로서 외부지역보다는 충남의 자체적인 문화활동 소비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들 관계를 비교분석해 본다면 충남의 내부적 문화활동 소비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으면서 외부의 문화활동 소비를 충남으로 유인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건립과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전국문화기반시설로 충남은 전체 시설수가 10개 광역자치도 중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기반시설은 유형에 따라 지역별로 확충하여 지역별 문화시설의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기반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무엇보다 미술관 등과 같은 전시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마

찬가지로 도서관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기반시설들은 지역주민들의 이용수요에 따라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반시설의 운영차원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차원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충남도는 새로운 서해안대가 도래하고, 세종시의 건립과 도청사의 내포이전을 계기로 백제시대 동북아 교류의 중심지였던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포용과 관용의 문화적 가치에 기초하여 지향적 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② 충남 문화향유 지역주민 의식조사 분석의 시사점

충남 문화향유 지역주민 의식조사 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기반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 인식 변화 유도이다. 지역문화기반시설 서비스 기능 확대를 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과제로는 운영인력의 전문화와 재정확대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문화기반시설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문화적 욕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삶 혹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문화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문화기반시설이 해야 하겠다.

충남도만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의식은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도시지역은 문화기반시설 이용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농촌지역은 비교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주민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였다. 특히, 문화정체성에 대한 관심부족이 30.0% 정도를 차지하여 관심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지역별 문화정체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이다.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시·군민회관, 공공도서관, 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각 시·군지역에서 기존에 건립된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정체성을 소재로 하는 공연과 전시회, 축제와 이벤트, 음악회 등을 활성화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천안-아산의 도시지역은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반면, 금산-청양

의 농촌지역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규모가 크고 문화시설이 풍부한 지역일 수록 지역주민의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기반시설의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의식 고취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 대한 지역문화교육과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활성화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문화기반시설은 있으나 지역문화정체성과 연계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면에서 도시지역 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지역특성과 문화정체성을 고려한 문화시설의 확충과 운영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문화기반시설의 지역간 차별화와 입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있어서도 지역간 차별화와 입지에 적합한 문화시설 및 공간의 확충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수요에 적합하고,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보유 자원들과 연계된 문화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및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는 문화정체성 관련 시설의 정비와 확충과 다양한 문화 정체성 프로그램 제공, 시민문화정체성 교육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와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지역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정체성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한다.

넷째, 문화기반시설 이용서비스와 관련 시설간 연계성 강화이다.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문화정체성 관련 서비스 항목 만족도에서 직원친절과 이용가능시간 다양, 편의시설 쾌적성 등에서 높은 만족도이고 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 획득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역 정체성과 연계된 예술행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행사에 대한 문화행사정보 제공과 관심 있는 프로그램의 발굴육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관람·감상형 행사보다는 체험 참여형의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문화기반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거주지 근처에 생활권내의 문화수요에 적합한 공연과 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연장(문예회관 등) 등의 생활권 문화기반시설 조성과 운영활성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주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개발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정체성 관련 시설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하겠다.

다섯째,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인력 전문화와 재정확대 및 홍보 강화이다.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위해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전문성의 강화와 예산확충이 필요하고, 문화정체성 관련 만족도가 낮게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문화기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화에 대해 높게 나타나고 금산-청양 지역의 경우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확대가 높게 나타나, 지역의 도시와 농촌에서 문화시설 규모 및 시설 여건에 따라 정책방향을 달리 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용시간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과 문화정체성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확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강화와 주민들의 지역문화 교육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였다.

③ 문화시설 관련 담당자 조사분석의 시사점

문화시설 관련 담당자 조사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문화기반시설 운영활성화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문화기반시설 운영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 활용을 위한 해결과제로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서비스의 문화적 욕구 다양성 확보 방안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삶 혹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둘째, 문화적 전통을 계승할 문화서비스 제공 강화와 관련 담당자의 관심 제고이다. 충남만의 문화정체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보통정도(3.1점)’ 이었고,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은 ‘보통이하(2.9점)’ 로서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기반시설 관련 담당자들은 지역의 문화적 전통이 현대까지 전승 또는 창조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프로그램 확충이다.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거주지 근처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을 확충하되 문화화

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해야 한다. 문화기반시설 이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편리성,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이라고 응답하여 시설 조성 및 운영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별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관리운영의 강화이다. 문화시설 중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이용에 있어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문화예술회관으로서 아직 건립되지 않은 시·군은 확충이 필요하고, 이미 건립된 시·군은 이들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정체성과 연계하는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만족도는 대부분 높은 점수이나 편의시설의 쾌적성만 보통이하의 점수로 나타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고유성이 살아있는 문화기반시설과 연계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육성해야 한다. 지역문화정체성과 관련한 필요 문화기반시설은 공연장(문예회관 등)이며, 문화행사 참여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관심 있는(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부족을 꼽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정체성 관련 지역 고유성이 살아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저가형의 체험·참여형으로 육성하도록 해야 하겠다.

여섯째, 일상생활권 연계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이다.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추진방향은 민간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였다. 또한 문화서비스 행정의 역점 추진 정책으로는 문화정체성 관련시설의 정비와 확충과 다양한 문화정체성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므로 독창적인 지역문화 발굴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과 관련 시설 및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이다.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향유를 위해 문화시설 운영면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문화예술 단체의 운영 활성화와 프로그램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과 문화예술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였다.

2) 정책제언

(1) 정책추진 과제

충남지역에는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정체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문화향유기회 확대, 지역문화 특성을 고려한 문화시설과 운영프로그램 활성화, 문화정체성과 연계된 문화시설 관리운영체계 구축, 지역입지별 차별화된 문화시설 확충과 운영프로그램 제공, 문화시설 운영 자립기반 구축과 공공지원 정책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2) 목표와 추진전략

충남의 문화비전으로는 ‘고유한 지역문화로 행복한 충남도민’으로 제시하고, 충남의 문화정체성 인식제고, 문화기반의 확충과 운영개선, 전통문화의 향유기회 강화 등 세 가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은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주민 문화정체성 인식제고를 위한 전통행사와 교육프로그램 강화,
- 둘째,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육성과 운영 활성화,
- 셋째, 문화기반시설의 편중성 극복과 다목적 이용으로 문화향유기회 촉진,
- 넷째,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인력양성 강화,
- 다섯째, 충남 지역특성의 문화시설별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홍보 촉진 등이다.

(3) 충남 문화정체성 연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① 문화정체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행사와 프로그램 강화

문화정체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행사와 프로그램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 대상 ‘지역문화아카데미’ 교육 사업 활성화이다. 충남과 각 시·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전통문화를 이해하여 문화정체성을 제고하는데 지역문화아카데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실시된 충청남도의 행복문화아카데미를 각 시·군별 또는 인접한 시·군별 협력사업으로 하여, 지역대학 또는 문화원, 문화예술단체 등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둘째, 기존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한 지역 정체성 연계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이다. 충남의 시·군 지역별로는 그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자원, 문화예술 등과 같은 특성 있는 자원들이 분포한다. 따라서 문예회관 등의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을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내용으로 운영하여 단순한 여가나 취미활동의 수준을 벗어나 지역의 전통문화와 연계 되어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② 지역 특성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활성화

지역 특성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성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문화기반시설로 육성하고,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 충남의 시·군 지역별로는 그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자원과 인물, 역사성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지역문화기반시설로 육성한다. 특히, 박물관 건립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 찾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으로 공주에서는 효박물관, 예산의 의형제 박물관, 태안의 해양문화재 연구소, 보령의 문방사우박물관 등의 건립을 구상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역사문화자원은 문화기반시설로 건립할뿐만 아니라 전시, 공연, 이벤트 및 축제, 영화, 콘텐츠 등의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여 개발하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관광객들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군의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컨설팅 지원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충남의 시·군 지역별 문화기반시설로는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지역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활용과 시설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규로 건립되는 문화기반시설의 경우는 건립과정에서부터 운영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전문업체와 컨설팅 협약에 의해 신규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셋째, 문화 전문인력 교육확대 및 네트워크 구성과 주민참여형 문화체험교육을 개발한다. 충남의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더불어 문화 전문인력의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 및 예술활동 종사자와 교육자, 문화행정 집행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시설 운영 및 교육담당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험 및 정보를 교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 공유토록 한다. 그리고 충남도내 공무원 및 문화 관련 운영자들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한다.

③ 문화기반시설의 차별화와 다목적 이용을 위한 기능의 강화

문화기반시설의 차별화와 다목적 이용을 위한 기능의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기반시설 유형과 지역별로 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의 확충과 운영 강화이다.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은 유형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이용패턴이 다르고 지역문화로서 가지는 기능도 다르므로, 문화기반시설 유형별로 차별성을 가지고 다목적 이용을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과 연계하여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거나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화기반시설의 차별화와 다목적 이용을 위한 기능의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다.

둘째, 내포신도시에 충남문화 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의 집중 조성이다. 충남에서는 현재 지역출신 예술인 기념관으로 고암 이응노 기념관, 이문구 문학관, 박동진 판소리 유물전시관, 만해체험관, 홍대용 생가 전문과학관 등을 건립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충남 출신 예술인공간 기념관을 도청신도시에내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 전문미술관 건립을 구상하여 추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신도청도시의 문화지구내 건립 될 각각의 문화기반시설들은 시설 및 공간뿐만 아니라 건축개념, 운영프로그램까지 충남의 전통문화와 연계한 문화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지구와 문화거점 지역 등 문화환경 강화이다. 시·도지사는 자치조례를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역사문화자원을 관리·보호하고 문화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내 문화지구를 지정 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그 문화지구내에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영업시설의 종류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경우도 새롭게 건설 중인 도청신도시, 공주부여·홍성 등과 같은 역사문화도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지구를 통해 역사, 문화자원을 관리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을 조성해야 하겠다.

④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인력양성 강화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인력양성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문화 선도기관의 설립과 문화정책 지원체계 구축이다. 2012년 9월 현재 이 사업은 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충남문화재단은 주요기능과 업무영역에 있어서 기존의 충남도와 문화기관의 업무를 수용하면서 충남의 고유한 전통과 역사에 기반을 둔 문화정책성을 정립하는 충청학연구와 DB의 구축, 이러한 충남 문화정책성과 연계된 문화시설들의 확충과 운영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방문객까지 모은 사람들이 충남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문화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개선과 자립운영체계 구축이다.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개선과 자립적인 운영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도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은 예산으로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만든 천안예술의전당(주)이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한 후 20년간 시설 운영을 맡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건립될 문예회관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군의 문예회관들도 민간기업과 지역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리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있어서도 각 시·군의 전통 및 향토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정책성의 정립을 위한 특성화된 사업을 육성하여 다른 문화단체와는 차별화된 운영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셋째,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과 관련 시설 및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이다.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전문인력 확충은 서설구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 공립시설의 경우에는 정부의 총액 인건비제도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문화시설 전문인력은 총액 인건비제도의 예외규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문화정책성 관련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활성화와 프로그램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과 문화예술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앞의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기반시설과 이용실태는 격차가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는 충남의 문화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문화기반시설의 구축과 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육성 등은 상호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예방하고, 지역별로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충남 문화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⑤ 충남 지역특성의 문화시설별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홍보촉진

충남 지역특성의 문화시설별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홍보촉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 전통문화아카이브 설립 운영과 안내 및 정보시스템 구축이다. 최근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에 대한 아카이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전문화재단에서 문화아카이브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문화예술 아카이브를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현대 문화예술과 관련한 문화 아카이브이다.

따라서 충남에서도 충남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지역의 전통과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DB화하고,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전통문화 아카이브 센터를 설치하여 충남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충남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연고지 활동 기반 강화이다.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지원을 통한 창의력 시장을 위하여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도민예술활동 참여 활성화, 도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연고지 활동의 기반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역의 예술가와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활동을 위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지역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활동이므로 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충남의 전통문화 대표 축제와 지역별 문화정체성 고유 문화행사 개최이다. 충남의 문화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문화 축제를 육성해야 한다. 현재는 시·군 지역별로 축제를 지역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통문화 축제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의 고유한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축제가 개최되어야 한다.

2. 향후 연구과제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시·군의 문화기반시설 공급실태는 충남도의 내부자료를 통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문화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용실태조사와 분석은 16개 시·군의 전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6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공간범위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충남의 전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있어서는 각각의 추진 전략에 대하여 세부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거나 각 전략별 별도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종(2010),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원 외(2008), 충북지역 청소년 정체성 연구, 충북개발연구원.
- 김세훈(2001),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라도삼(2004),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라도삼·백승만(2006), 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 부산발전연구원(2010), 부산시 문화지표 연구.
-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2006), 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연구.
- 심재연(2004), 문화공간 활용을 통해 본 문화환경 조성방안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진광·박철희(2010), 충남의 정체성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손경년(2002), 지식정보시대 문화벤처 지원정책,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 양건열(2002),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원.
- 양정필(2006), 문화기반시설 건립 관련 법규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원
- 오재환·임호(2010), 부산 문화지표 조사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울산발전연구원(2009), 울산지역 시민의 문화지수 측정과 문화향유 실태분석.
- 이동기 외(2007), 전라북도 문화기반시설 확충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이동기 외(2007), 전라북도 문화향수실태 및 수요조사, 전북발전연구원.
- 이연학(2008), 문화교류를 위한 한국적 문화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태 외(2003),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이재열·강희경·실동훈(2004), 충청지역의 사회의식과 지역정체성, 백산서당.
- 이재호(2009), 울산지역 시민의 문화지수 측정과 문화향유 실태 분석, 울산발전연구원.

조정(2011), 문화환경 조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현성(2009), 전통적 정신문화의 현대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명희(2010), 전라북도 서민층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문화서비스 제고방안, 전북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2007), 전라북도 문화향수 실태 및 수요조사.

전북발전연구원(2007), 전라북도 문화기반시설 확충방안.

최병두(2008), “도시발전 전략에 있어 정체성 형성과 공적 공간의 구축에 관한 비판적 성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4권 제5호.

최지원(2010), “지역기반 기념박물관의 현황과 역할 강화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청남도(1991), 충남정신의 뿌리와 실제.

충청남도(2007), 충청남도는 문화예술의 향기 그윽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충청남도(2011), 충남통계연보.

충청북도(2011), 충북 사회문화 활성화 전략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연구.

허지정·최막중(2009), “지역의 문화서비스공급이 지역의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4권 제6호.

홍성민(2001), 디지털시대의 문화정체성, 정신문화연구 제24권 제4호.

홍경자(2006), 세계화시대의 문화정체성 문제, 해석학연구 18권.

부록 1.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지역문화서비스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남도 출연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본 설문지는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지역문화서비스 제고 방안」을 위하여 충남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실태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환경, 문화시설이용, 문화정책 등의 문화활동 실태를 조사하여, 문화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의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 목적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충남발전연구원 문화디자인연구부
이인배(041-840-1251, iblee@cdi.re.kr)
김경태(041-840-1253, kimkt@cdi.re.kr)

I. 일반적 문화서비스 관련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문화관련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활성화
 - ②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기금 활성화
 - ③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
 - ④ 문화정책의 적절성 확립
 - ⑤ 기타 _____
2. 귀하께서는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 ②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확대
 - ③ 문화기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화
 - ④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의 다양화
 - ⑤ 문화기반시설 관련 조례의 제개정
 - ⑥ 기타 : _____
3. 귀하께서는 지역주민이 갖는 문화적 욕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무엇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삶 혹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 ② 공교육에서의 문화교육 강화
 - ③ 생활단위에서 문화적 체험의 확대
 - ④ 기타 : _____

Ⅱ. 문화정체성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정체성이란 타지역 문화와 구별되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의미와 문화활동을 공유하는 주민, 지역공동체가 느끼는 일체감 또는 귀속감을 말합니다.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요소로는 문화기반시설과 이와 관련하여 민속, 축제,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등이 있습니다.

4. 귀하께서는 충청남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귀하께서는 충청남도의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문화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귀하께서는 충청남도민이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문화서비스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정체성에 대한 관심 부족 ② 시간부족 ③ 정보부족 ④ 정체성문화프로그램 부족
 ⑤ 문화시설의 교통 및 주차문제 ⑥ 비용부족 ⑦ 문화정체성 시설 부족 ⑧ 기타_____

Ⅲ. 충청남도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서비스 관련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귀하께서는 충청남도민의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하여 문화기반시설 부문에서 어떠한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정체성 관련 종합문화예술시설 확충
 ② 주민들의 거주지 근처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확충
 ③ 확충보다는 구민회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을 주민들에게 문화정체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내실화
 ④ 기타 : _____
8. 귀하께서는 충청남도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 중심으로 확충 ② 문화적 개발이 되어 있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확충
 ③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④ 기타 : _____
9. 귀하께서는 거주지 주변에서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 박물관·미술관, 문화의집, 도서관)을 이용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십니까?
 ①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 ② 교육·오락·레저 등 다목적 이용 편의성
 ③ 시설 내부의 이용 편의성과 쾌적함 ④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
 ⑤ 저렴한 이용료·직원들의 친절 등 서비스 수준 ⑥ 기타 : _____

10. 다음 문화기반시설 중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항목	1점 ←-----> 5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시군민회관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회관	①	②	③	④	⑤
복지회관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회관	①	②	③	④	⑤
문화원	①	②	③	④	⑤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박물관·미술관	①	②	③	④	⑤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①	②	③	④	⑤
시설문화센터	①	②	③	④	⑤
문화의집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중 지역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시군민회관 ② 문화예술회관 ③ 복지회관 ④ 청소년회관
 ⑤ 문화원 ⑥ 공공도서관 ⑦ 시설문화센터 ⑧ 사회문화교실
 ⑨ 박물관·미술관 ⑩ 문화의집

12. 귀하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신 문화기반시설 중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서비스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 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 유익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식당/매점 등 시설(편의시설)이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이용가능 시간이 다양하고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교통 및 주차가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의 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활성화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공연장(문예회관 등) ② 전시관(미술품 등) ③ 박물관 ④ 문화원
 ⑤ 도서관 ⑥ 문화교육 기관 ⑦ 기타 (_____)

14. 귀하께서 지역문화정체성과 관련하여 열리는 문화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이 많이 든다 ②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③ 관심(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없다 ④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다
 ⑤ 시설(편의시설)이 불편하다 ⑥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⑦ 함께 갈 사람이 없다 ⑧ 기타 : _____

부록 2.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지역문화서비스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 관련 담당자 -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남도 출연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본 설문지는 「충남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지역문화서비스 제고 방안」을 위하여 충남의 문화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문화향유 실태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문화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환경, 문화시설이용, 문화정책 등의 문화활동 실태를 조사하여, 문화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 목적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2. 6.

연락처 : 충남발전연구원 문화디자인연구부
이인배(041-840-1251, iblee@cdi.re.kr)
김경태(041-840-1253, kimkt@cdi.re.kr)

I. 일반적 문화서비스 관련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문화관련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활성화
 - ②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기금 활성화
 - ③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
 - ④ 문화정책의 적절성 확립
 - ⑤ 기타 _____
2. 귀하께서는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 ②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확대
 - ③ 문화기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화
 - ④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의 다양화
 - ⑤ 문화기반시설 관련 조례의 제개정
 - ⑥ 기타 : _____
3. 귀하께서는 지역주민이 갖는 문화적 욕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무엇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삶 혹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 ② 공교육에서의 문화교육 강화
 - ③ 생활단위에서 문화적 체험의 확대
 - ④ 기타 : _____

Ⅱ. 문화정체성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정체성이란 타지역 문화와 구별되는 특정한 지역사회의 문화적 의미와 문화활동을 공유하는 주민, 지역공동체가 느끼는 일체감 또는 귀속감을 말합니다.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요소로는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이들과 연관되는 민속, 축제,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등이 있습니다.

4. 귀하께서는 충청남도 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귀하께서는 충청남도의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문화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귀하께서는 충청남도민이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문화서비스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정체성에 대한 관심 부족 ② 시간부족 ③ 정보부족 ④ 정체성문화프로그램 부족
 ⑤ 문화시설의 교통 및 주차문제 ⑥ 비용부족 ⑦ 문화정체성 시설 부족 ⑧ 기타_____
7.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사상이나 철학, 문학, 예술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⑥ (_____)
8. 귀하께서는 지역이 문화적 전통(사상이나 철학, 문학과 예술 등)이 현대까지 전승 또는 창조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Ⅲ. 충청남도 문화정체성과 연계한 문화서비스 관련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귀하께서는 충청남도민의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문화기반 시설 부문에서 어떠한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정체성 관련 종합문화예술시설 확충
 ② 주민들의 거주지 근처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 확충
 ③ 확충보다는 구민회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을 주민들에게 문화정체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내실화
 ④ 기타 : _____

10. 귀하께서는 충청남도에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적 소외지역인 낙후지역 중심으로 확충 ② 문화적 개발이 되어 있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확충
 ③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④ 기타 : _____

11. 귀하께서는 거주지 주변에서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 박물관·미술관, 문화의집, 도서관)을 이용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십니까?

- ① 편리한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 ② 교육·오락·레저 등 다목적 이용 편의성
 ③ 시설 내부의 이용 편의성과 쾌적함 ④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의 고유성
 ⑤ 저렴한 이용료·직원들의 친절 등 서비스 수준 ⑥ 기타 : _____

12. 다음 문화기반시설 중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제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항목	1점 ←-----> 5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시·군민회관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회관	①	②	③	④	⑤
복지회관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회관	①	②	③	④	⑤
문화원	①	②	③	④	⑤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박물관·미술관	①	②	③	④	⑤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①	②	③	④	⑤
사설문화센터	①	②	③	④	⑤
문화의집	①	②	③	④	⑤

13.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중 지역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시·군민회관 ② 문화예술회관 ③ 복지회관 ④ 청소년회관
 ⑤ 문화원 ⑥ 공공도서관 ⑦ 사설문화센터 ⑧ 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실
 ⑨ 박물관·미술관 ⑩ 문화의집

14. 귀하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신 문화기반시설 중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서비스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 유익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식당/매점 등 시설(편의시설)이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이용가능 시간이 다양하고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의 교통 및 주차가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의 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활성화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 기반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공연장(문예회관 등) ② 전시관(미술품 등) ③ 박물관 ④ 문화원
⑤ 도서관 ⑥ 문화교육 기관 ⑦ 기타 (_____)

16. 귀하께서 지역문화정체성과 관련하여 열리는 문화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이 많이 든다 ②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③ 관심(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없다 ④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다
⑤ 시설(편의시설)이 불편하다 ⑥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⑦ 함께 갈 사람이 없다 ⑧ 기타 : _____

17. 귀하께서 지역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내 자신의 만족감과 충족감 ② 자녀 등의 교육적 효과
③ 비용부담 정도 ④ 시설의 위치
⑤ 강사프로그램 수준 ⑥ 시간 및 기간
⑦ 기타 : _____

18. 귀하께서는 지역 문화정체성 관련 참여할 문화행사나 프로그램을 선택 할 때 어떤 형태를 가장 선호하십니까?

- ① 관람감상형 ② 체험참여형 ③ 강좌형 ④ 현장답사형 ⑤ 기타 _____

19. 귀하께서 지역 문화정체성 관련 꼭 관람(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행사나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 ① 1만원 이내 ② 3만원 이내 ③ 5만원 이내 ④ 7만원 이내
⑤ 10만원 이내 ⑥ 10만원 이상 ⑦ 지불의사 없음

IV.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귀하께서는 지역 문화정체성을 위한 행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련 예산확충 ② 전문성 강화 ③ 민간참여 확대
④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 ⑤ 기타(_____)

21. 귀하께서는 현재 지역에서 수행하는 지역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22. 귀하께서는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 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1순위와 2순위의 번호를 써 주십시오. 1 순위 : () 2 순위 : ()

- ① 다양한 문화정체성 프로그램 제공
- ② 문화정체성 관련 시설의 정비와 확충
- ③ 문화정체성 관련 전문 인력 양성
- ④ 시민 문화정체성 교육 기회 확대
- ⑤ 예술인과 관련 단체 지원
- ⑥ 문화정체성 시설과 행사에 대한 홍보
- ⑦ 독창적인 지역문화 발굴
- ⑧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문화정체성 행사 정보제공 활성화
- ⑨ 지역의 전통성 및 문화재 보존 관리
- ⑩ 문화정체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23. 귀하께서는 지역문화정체성과 관련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주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1순위와 2순위의 번호를 써 주십시오. 1 순위 : () 2 순위 : ()

- ① 인근 문화시설의 공동서틀버스 운영
- ② 자원봉사제도 활성화
- ③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개발
- ④ 지역 문화정체성 시설간의 연계화
- ⑤ 온라인을 활용한 주민 참여 문화정체성 프로그램 개발
- ⑥ 문화정체성 관련 유료 공연프로그램이나 전시프로그램의 패키지 티켓활용
- ⑦ 문화정체성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확대
- ⑧ 주민의 문화정체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이용시간

24.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기반시설에서 개선되어야 부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문제는 나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주민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문화시설 수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입지를 선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역의 문화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25. 귀하께서는 지역 문화정체성 관련 문화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하여 문화기반시설 운영면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설의 접근성 제고
- ② 시설을 확충
- ③ 시설관련자의 친절의식 교육
- ④ 시설의 보수와 비품의 확보
- ⑤ 지역 편중문제에 대한 해결
- ⑥ 기타(_____)

26.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위해 문화서비스 제고를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집 필 자 ■

연구 책임 ·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부연구진 · 권영현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태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권미정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외부연구진 · 유기준 공주대학교 교수
정선기 충남대학교 교수

전략연구 2012-10 ·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글쓴이 · 이인배외 5인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2년 12월 31일 / 발행 · 2012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251(문화디자인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59

ISBN · 978-89-6124-199-1 03350

<http://www.cdi.re.kr>

© 2012,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